

드폴은 나치 협력자들을 사회로부터 소멸시켜야 할 사회의 악으로 규정했으며, 저항운동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 모두를 전으로 보고 새로운 민족 통합을 시도하면서 가치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였다.⁶⁸⁾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150만~200만 명이 나치협력자 숙청 조치에 연관되었다. 드폴은 나치협력자 숙청을 하며 이들을 숙청할 사법부부터 숙청하였다⁶⁹⁾. 그러면서 정치인⁷⁰⁾, 경찰⁷¹⁾, 언론인⁷²⁾, 행정관료⁷³⁾, 문학 예술인⁷⁴⁾,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

프랑스에서의 나치협력자 숙청 과정은 역사의 교훈이다. 그리고 하나의 전형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전형은 많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진실과 정의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둥이 되게 하고 있다.

다. 영국 경찰의 피노체트 체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피노체트가 영국에서 체포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피노체트가 살인마이지만 영국 경찰이 무슨 권리로 피노체트를 체포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스페인의 발타사르 가르손 치안판사는 피노체트 집권시 자국민들이 고문, 살해된 것과 관련하여 피노체트를 '대량학살, 테러, 고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하였고, 신병 치료차 영국에 와 있던 피노체트를 영국 경찰이 98년 10월 16일 체포 억류하였다. 이렇게 영국 경찰이 자국과 관련된 사건이 아닌 타국에서 자국민과 연관 없는 사건으로 피노체트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테러 진압

68) 주섭일, 앞의 글, 145쪽

69) 주섭일, 앞의 글, 149쪽. 18명의 헌법위원회 위원들과 334명의 판사들이 이에 해당.

70) 주섭일, 앞의 글, 153쪽. 비시 정권 당시 416명의 상하의원 중 302명이 피선 거권 박탈, 자문위원 233명 중 154명 참정권 박탈.

71) 주섭일, 앞의 글, 148쪽. 170명의 경찰 간부가 이에 해당.

72) 주섭일, 앞의 글, 149쪽. 4명 총살, 6명 사형선고에서 종신 징역으로 감형, 5명 종신 징역과 함께 이와 연관된 다수의 언론사를 폐간.

73) 주섭일, 앞의 글, 148쪽. 28,750명이 숙청됨.

74) 주섭일, 앞의 글, 149쪽. 앙드레 말로, 장 폴 사르트르 등 저항 작가들이 전 국가위원회(CNE)를 결성하고 예술가들도 전국예술연맹을 결성하여 나치협력 문학 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발표. 이들 중 일부가 사형과 종신 징역 등의 형을 받았고 50명이 문인들이 작품 발표 금지 당했고 예술인들도 미술활동을 금지 당함.

을 위한 유럽 협약에 의해서였다. 이에 대해 면책특권 시비가 일어났다. 영국 대법원은 11월 25일 피노체트에 대한 면책특권 불인정 판결을 내려 다른 나라에서 발생된 '인권'에 관한 국제 협약 위반자를 자국의 법정에 세울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은 99년 2월 9일 성명을 발표하고 피노체트를 유럽 범죄인 인도협약(ECE)에 따라 스페인에 인도하는 것은 영국의 의무라 밝혔다. 또한 스페인에서 받고 있는 범죄가 영국에서 살인 미수 및 음모, 고문(음모), 납치(음모) 등의 범죄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노체트는 문제의 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면책특권도 누릴 수 없다고 하였다.

국제 사회는 전쟁범죄, 고문, 학살 등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없이 처벌하는 추세로 되어 있다. 여기에 정치적인 의문사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다. 이 추세는 2000년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치되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우리 나라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다.

95년 3월 15일자 한겨레신문에 <살 떨리는 아르헨티나 '의문사'>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류의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대신하고자 한다.

"벌거벗겨진 채 진정제 과다주사로 축 늘어져 잠든 13명의 남녀들을 비행기 바닥에 일렬로 끌어다 놓았다. 이제 그들을 남대서양 빙바다에 한 명씩 떨어뜨려야만 한다. 아돌포 프란시스코 실링고는 순간 2차대전 때 찍은 나치 수용소의 끔찍한 장면을 떠올렸다."

아르헨티나의 전 해군소령 실링고(48). 지난 70~80년대 군부독재 시절 좌익세력을 포함한 반체제인사들을 '취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린'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서 죽음의 비행대' 책임자로 직접 반정부인사들을 산체로 바다에 수장한 장본인 가운데 한사람이다.

그가 최근 마침내 그 잔혹 행위에 대해 회오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까지 '더러운 전쟁'의 실상이 자료와 증언들을 통해 일부 드러나긴 했지만 이처럼 살인행위에

직접 가담했던 고위관계자가 실토한 적은 없었다. 이 때문에 잊혀져 가던 악몽이 다시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13일 전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반정부인사로 지목돼 연행된 인사들은 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의 해군기술학교 수송부에 수용됐다. 그들은 그곳에서 참혹한 고문 속에 심문을 받은 뒤 죽음의 비행기를 떠났다. 이렇게 해서 매주 수요일 20명 안팎의 반체제인사들이 해군기술학교에서 죽음의 비행기를 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수가 지금 9천~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실링고는 그 끔찍한 악몽에 시달린 끝에 진정제를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정신장애인이 됐다. 그는 고백록출간과 함께 죽음의 비행 책임을 물어 해군 총책임자를 고소했다.

3. 피해자에 대한 구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유엔 인권위원회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 등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위해 특별보고자로 임명된 테오 반 보벤의 보고서의 다음과 같은 결론 부분이다.⁷⁵⁾

(1) 현금 또는 그에 유사한 형태의 배상, 육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진료, 고용, 주택, 교육 등의 형태에 의한 배상을 포함한다.

(2) 비 금전적 배상의 형태로서 희생자들의 도덕적, 사회적 복지와, 정의와 평화의 목적에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가)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나) 범해진 침해에 대한 책임의 공개적인 인정

(다) 책임자의 처벌

(라) 희생자, 그들의 친척과 친구, 증인들의 보호

(마) 희생자들에 대한 기념과 애도의 표시

(바) 희생자들을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그들을 돕는 요원의 훈련

75) Second Progress Report Submitted by Mr. Theo van Boven, Special Rapporteur, "Study concerning the Right to Restitution,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9 July 1992, E/CN.4/Sub.2/1992/8, p22-23 참조

(사) 다음의 수단을 포함하는 침해의 재발 방지 조치

① 보안군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특히 민간인의 통제하에 두는 일

② 군사법정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

③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

④ 인권운동가와 법률가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일

⑤ 구금과 등록제도를 개선하는 일

⑥ 보안군과 법 집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제공하는 일

피해자에 대한 구제로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독일 정부와 국제 사회의 동향이다. 근래에 들어 미국과 폴란드 등의 나치 강제노역자 생존자들은 강제 노역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 정부와 재제는 강제 노역자 배상재단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한다. 여기에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도 배상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1999년 2월 16일 재계 지도자들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책임 있는 태도로 과거사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면서 "기금의 도덕적, 윤리적 목표는 연료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의 볼프 브로이어 회장도 "이 문제를 다음 세대까지 끌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결정이 과거사 청산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⁷⁶⁾

이와 함께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나치 약탈 예술품 반환을 하기 위해 11개항에 대해 원칙을 합의하였다.

미국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관련 국제회의에서 유럽 주요국들과 나치 약탈 예술품의 반환을 위한 11개항의 계획에 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계획은 각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해 나치가 약탈한 예술품을 확인하고 관련기록을 공개하며 소유권 반환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⁷⁷⁾

76) 한겨레신문 99.02.18.자 참조

77) 한겨레신문 99.12.04.자 참조

VI. 의문사 해결을 위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의문사 해결은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다 성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⁷⁸⁾.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된다. 때로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 국가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되풀이되는 속성을 가진 역사에서 웬만한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중대한 인권 침해이며 인도에 반한 죄인 정치적 의문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의문사를 비롯하여 모든 의문사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의문사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소 시효의 문제도 아니고, 특검제도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다. 이 의지가 있을 때 그 외에 수반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때로는 기술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요건

1.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치권과 국민들은 진상규명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과 이를 이루어 내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⁷⁹⁾.

2. 과거 정치적 의문사를 자행했던 국가 기관에 대한 수사권 등 강력한 권한을 갖는 법적 장치와 주

78) 이 글에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남미 각국에서 유사한 사례에 대한 과거 청산 작업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95년 역사비평에 게재된 박원순 변호사의 글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음.

79)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의 의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로는 국민회의에서조차 진상규명을 위한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하기 보다 형식적인 차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바라보고 있고 법무부와 국무총리실로 대표되는 정부의 입장은 그보다 더 보수적이다. 반면 국민들의 진상규명 의지는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에서 보듯이 온 국민들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바라고 있으며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체를 세워야 한다.⁸⁰⁾ 이는 그 동안 민간 차원은 물론이고

80)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는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90년부터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진상규명' 그 자체에 있다.

특별법을 통한 법적 장치 외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중요한 요건은 의문의 죽음 진상 규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법의학이 갖는 현재의 지위와 체계를 바꾸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한겨레21 99년 1월 14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되어 있다.

"지난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부의 협박과 회유로 인해 마치 목에 칼이 겨눠져 있는 심정으로 감정을 한 적도 있다고 법의관들은 회고한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87년 박종철씨 사건 때 황석준 당시 법의학과장(현 고려대 교수)이 고인 끝에 경찰이 발표한 단순 쇼크사를 뒤집고 고문치사라고 발표한 이후 정권에 휘둘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오판의 개인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실제 그 동안 오판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이들도 시인한다."

그러나 열악한 현재의 법의학 구조에서 오판의 가능성이 많더라도 한 번 결정 난 결과를 바꾸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동류의식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겨레21의 기사를 보자.

"한번 감정결과를 내리면 동료 법의관들이 이에 대해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이 세계의 불문율이다. 집도를 맡았던 법의관만큼 감정 결과에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또 집도 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부검이라는 1차 감정이 아닌, 사신이나 서류 등을 통한 2차 감정을 하는 데 그친다는 이유도 있다. 그래서 법의관이 한번 감정 결정을 하면 국과수 법의학과장이나 소장 등 상사와 하더라도 쉽게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이한영(41) 법의학과장은 '외국이 있을 경우 1차로 서류를 담당 법의관에게 반송할 수 있고, 그래도 담당 법의관이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법의관 전체 회의를 열어 다른 법의관들이 의견을 개진한다. 그러나 이때도 집도 책임자가 자신의 주장을 고수하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법의학과 이윤성 교수는 97년 개최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에서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검시 제도(檢視制度)

우리 나라에서는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검시권도 당연히 검찰에 속한다. 그러나 몇 나라에서는 수사권에 대한 수사권을 따로 떼어 법의관이나 검시관이 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직종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한 가지 사건에서 독립된 다양한 의견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사 기관과 같은 기관에 속함으로써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싸잡아 매도당하는 경우가 많다. 독립하여 공정하게 검시하는 전문 기관이 생긴다면 불필요한 갈등은 크게 줄일 수 있다.

2. 사법부검 위주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이다. 따라서 부검은 검찰의 관심에 따라 좌우한다. 일견 자살이 분명하거나 사고사이면 부검을 시행하지 않는 편이 많다. 법의부검은 형사 사건뿐 아니라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중의 보건이나 안전을 위한다면 부검은 필요한 경우에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부검이 필요한 주검인데도 부검을 시행하지 않거나 부검이 필요 없는 주검을 구태여 부검하기도 한다. 적어도 부검 시행 여부는 검시를 전문으로 하는 직종의 의견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3. 부검에 대한 거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부검을 꺼리는 것이다. 사랑하던 가족의 주검에 칼을 댄다는 사실이 반가울 리 없다.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참시(斬屍)의 형

론이고 국회 등에서 진상규명 작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상규명 작업은 또 한 번의 시도와 좌절로 끝나게되어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만을 주게 될 뿐이다.

3. 프랑스의 나치협력자 숙청 과정에서 보듯이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청산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관련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 없이는 제대로 진상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형사적인 처벌과 프랑스의 비국민제도와 같은 사회적 처벌을 하여 다시는 역사의 무대 전면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처벌의 범주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4. 정치적 의문사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요인,

이 있었다. 그러나 부검은 변호사나 그 가족을 처벌하거나 괴롭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나 살아 있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일이다. 부검 거부하는 당연한 감정이겠으나 근거 없는 고집이나 투쟁의 방법으로 부검을 거부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가족들도 더 크게, 더 넓게, 더 길게 생각하여 판단해야 한다.

4. 법의학에 대한 전문성 결여

법의학의 대상 가운데 많은 부분은 일반적인 의학 지식으로 해결된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다. 아직 우리 나라에는 법의학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 법의학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보다 많다.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전문과목이 알려지지 않았고, 의사는 거의 모든 과목의 진료를 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산부인과가 아닌 피부과를 가는 일은 없다. 부검은 어떨까?

5. 법의학 전문 인력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나라에서 법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적다. 아직 법의학은 전문의 과목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그러나 법의학 전문 인력을 키우지 못하는 사회도 책임은 있다. 필요하면 일회용으로 써 먹고 말려서 '이용자'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매도해 버리는 '다수'의 횡포도 법의학 전문인이 자라는 데 방해 요소이다.

6. 불신

우리 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신은 부검과 관련된 법의학 조사에서도 큰 장애물이다. 특정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미리 판단하고 그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 믿지 않는다. 오히려 부검의사를 비난한다. 부검은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부검이 사망 사건 조사의 전부일 수 없다. 또 부검 감정이 잘못 될 수도 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논리적 주장도 없이, 단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신하거나 매도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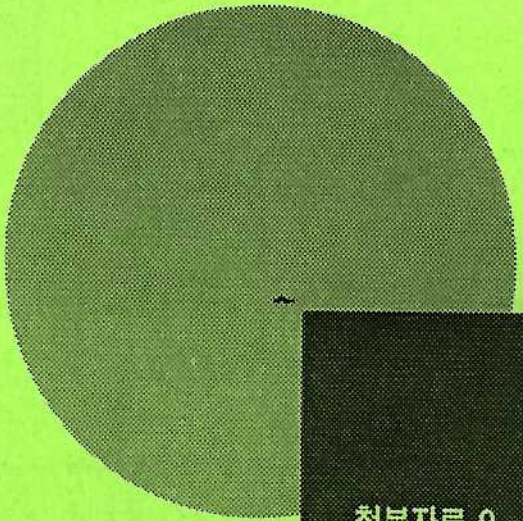
즉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들을 제거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보안수사대와 기무사의 민주적인 기관으로의 개편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문사를 자행한 국가기관 스스로가 과거의 죄를 밝혀 내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5. 양심 선언자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고 진상규명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양심선언자와 마지못해 자백을 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대 인권 침해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진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적었던 것은 이들이 가해자 집단의 보복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이유와, 주변에 자신의 죄악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진상규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6. 태오, 반 보편의 보고서와 같이 피해자의 구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평생 나치를 추적해 많은 전범을 재판정에 세운 공로로 98년 유럽 인권상을 수상한 나치 추적자 시몬 비젠탈의 수상 소감으로 글을 마친다.

"정의 없이 평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진실이나 관용 없이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첨부자료 9 - 기타 자료 2 - 사례별 자료모음
(1998년 1차 학술회의 자료집 중)

●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자료 중

1. 인혁당 사건
2.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3. 의문의 죽음 사례 1 - 안기부·보안서에 의해 정치적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4. 의문의 죽음 사례 2 - 강제징집당해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5. 의문의 죽음 사례 3 - 공식적으로 녹화사업은 중단되었으나
보안사의 공작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6. 의문의 죽음 사례 4 - 경찰, 사업주, 재단측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7. 의문의 죽음 사례 5 - 의문의 죽음을 당한 예국시민
8. 의문의 죽음 사례 6 - 의문의 죽음을 당한 예국시민

~인혁당 사건

편집자 주> 다음 글은 제2차 인혁당 사건의 진행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된 글이라 생각하여 여기에 전재합니다.
이 글은 신동아 85년 9월호에 이상우씨가 기고한 글입니다. (년도 표기는 현 시점으로 바꾸었습니다.)

박정권 18년을 통하여 가장 오랜 기간과, 그리고 가장 많은 의혹과 물의를 빚은 사건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인민혁명당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 역시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대로 처리된 것이었다.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부터 제1심, 항고심, 대법원의 확정 판결 그리고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사형집행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처리된 사건이었다.

그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혁당사건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내외로부터 심한 의혹을 샀다. 일부 사람들은 인혁당 사건이란 조작된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다. 과연 그러했을까?

관련 피고인 8명이 처형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된지 22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인혁당사건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불식되어 있지 않다. 뭔가 꺼림직한 여운을 그대로 끌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처형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은 아직도 웅어리진 한을 품고 세월을 살고 있다.

35년 전의 첫번째 인혁당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이란 것이 맨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64년 8월 14일이었다. 이날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기자회견을 소집,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 했다. 김형욱 부장이 발표한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인혁당은 1962년 1월, 북괴로부터 특수사명을 띠고 남하한 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이던 우동읍과, 동 간사장 김배영, 김영광,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이던 김금수, 동 경북도 간사장 도예중, 사회대중당 간사였던 허탁, 전 진보당원 김한득, 빨치산 출신의 박현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창당발기인회를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했다.

인혁당은 창당후 조직을 확대해오다가 1964년 4월 북괴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동당 중앙상임위원회인 도예중, 정도영, 박현채 등이 중심이 되어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유발토록 획책함과 동시에 학생데모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케 함으로써 현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했다.

인혁당은 학생, 언론인등을 포섭, 현정권이 타도될 때까지 학생데모를 계속 조종함으로써 북괴가 주장하는 노선에 따라 남북 평화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다가 6.3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들의 죄상과 당조직

망이 폭로될까 우려한 나머지 학생들도 주동자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지하로 잠복, 기회를 노리던 중 검거되었다。」

당시 인혁당사건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다.

도예중(40.무직), 박현채(30.서울상대강사), 정도영(39.합동통신 조사부장), 이재문(31.「대구매일신문」기자), 허탁(31.부산성대국민학교교원), 박상홍(45.서적상), 김정희(27.민중서관원), 전무배(33.「서울신문」기자), 박중기(29.한국여론사 취재부장), 양춘우(29.무직), 서정복(24.서울문리대 철학과 4년), 김정강(24.서울문리대 정치과 3년), 김정남(22.서울문리대 정치과 3년), 김종태(24.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현승일(21.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김도현(21.서울문리대 정치과 4년), 김승균(26.성균관대 동양철학과 4년).

인혁당사건은 중앙정보부에서 관련자들을 조사하다가 64년 8월 18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었다. 사건은 묘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정보부가 주장한 것처럼 사건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국가보안법 사범이 아니라는 점과 이로 말미암은 검찰내부의 분규 및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설이었다.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공안부의 담당 검사진은 이용훈부장검사를 비롯하여 최대현검사, 김병우검사, 장원섭검사였다. 그들은 만 18일간 거의 철야로 수사했다. 그 결과는 중앙정보부의 송치 결과와는 달리 기소할만한 내용의 사건이 아니라는 결론이었다.

민청학련 배후조종 혐의의 두번째 사건

유신 2년째 접어든 그해 정국은 재야세력과 학원가의 반체제 데모 때문에 소란하기 그지 없었다. 일부 언론인, 문인, 대학교수, 종교인, 재야정치인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여 개헌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대학가는 반정부 데모로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정부는 유신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비상권한인 긴급조치권의 발동으로 이를 봉쇄하려 했지만, 반체제의 불길은 수그러질 줄을 몰랐다. 74년에 들어와 「3.4월 위기설」

이 떠도는 가운데 4월 3일 서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에서 약속이나 한듯이 일제히 반정부 데모가 터졌다. 이들이 살포한 선언문은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이란 명의로 되어있었다. 바로 이날 정부는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다.

그 내용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 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 물건 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이 조치를 위반한 자 및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되어 있다.

긴급조치 4호 선포에 즈음한 특별담화에서 박대통령은 「작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적화통일을 위한 이른바 통일전선의 초기 단계적 불법화 양상이 대두되고 있음에 이같은 불순요인을 발본색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을 공고히 다지고자 헌법절차에 따라 긴급조치를 선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단체인 인혁당재건위 조직과 재일조총련계 및 일본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74년 4월 3일을 기해 현정부를 전복하려는 불순 반정부세력으로, 이들은 북괴의 통일전선형 성공작과 동일한 4단계혁명을 통해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권 수립을 목표로 했으며, 과도적 정치기구로 민족지도부의 결성을 획책했다. 민청학련의 배후 주동인물로는 ① 전인혁당당수 도예중과 여정남 등의 불순세력, ② 재일조총련 비밀조직의 조원인 박동익과 박의 조종을 받은 일본공산당원 胎塗舛齋와 ??? 등 일본인 2명 ③ 기독교학생총연맹 간부진 ④ 이철, 유인태 등 주모급 학생운동가와 유근일 등이다」

10년만에 재현된 인혁당사건의 내용

10년만에 인혁당 이름을 다시 듣게 된 것이었다. 혐의 사실도 10년 전의 것과 거의 똑같았다. 현정부를 전복하고 노동자, 농민에 의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학생데모

를 배후조종했다는 것이었다. 다만 학생들의 배후 조종자가 이번엔 인혁당뿐만 아니라 재야 각계가 거의 망라되다시피 광범위했다는 점이 달랐다. 전 대통령 윤보선 씨를 비롯하여 김찬국 교수, 박형규 목사, 지학순 주교, 김지하 시인 등도 민청학련의 배후조종자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됐다.

민청학련사건 관련자를 포함하여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모두 1천 24명에 달했다. 그 가운데서 재판에 회부된 인혁당 관련자는 서도원(52.무직), 도예중(50.삼화건설 회장), 하재완(43.무직), 이수병(37.삼락일어학원강사), 김용원(39.경기여고교사), 우홍선(45.한국골드스탬프사 상무), 송상진(46.양봉업), 여정남(30.무직), 김한덕(블록제조업), 유진곤(대산목재사장), 나경일(노동), 강창덕(무직) 김종대(일어학원원장), 전창일(극동건설 외공부장), 황현승(광신산업교사), 이창복(무직), 조만호(학교도서관보급), 정만진(목욕업), 이재형(가전사), 임구호(고려학원강사) 등 23명이었다. 당시 황산덕 법무부장관이 밝힌 인혁당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인혁당은 「남한에 강력한 지하당을 조직하라」는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19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재남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하여 1962년 1월에 조직한 지하당이다.

인혁당의 조직과 활동상황은 1964년 6.3사태 배후조종자로 인혁당관련자들이 검거됨으로써 처음으로 드러났는데 당시 김상한과 재정책 김배영이 1962년 5월, 월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거된 자들은 고문에 의한 조작설을 유포, 법정투쟁을 통해 극히 경미한 형을 받았다.

그뒤 1967년 김배영이 인혁당 재건 지령을 받고 다시 남파되었다가 검거되어 인혁당의 진상이 뒤늦게나마 입증되었으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다시 처벌할 수가 없었다.

인혁당은 그뒤 지하로 잠복했다가 1972년 7월 4일, 남북대화의 시작을 틈타 지하활동을 강화, 1973년 10월 이후의 학원소요와 유류파동, 개헌청원서명 등이 일어나자 제 2의 4.19로 사회혼란을 조장, 민중봉기로 정부를 전복함으로써 적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숙단, 인혁당재건을 완료하고 학생을 선동, 폭력에

의한 정부전복을 기도하다가 검거된 것이다」

인혁당 관련자들은 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의해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은 6월 15일부터 시작, 비상보통 군법회의, 비상고등 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약 10개월이 걸렸다. 3심을 거치는 동안 인혁당 관계에 관한한, 피고인들의 형량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특히 도예중,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의 피고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형에 변함이 없었다.

고문설을 둘러싼 공방전

인혁당 사건을 둘러싸고 또다시 고문에 의한 조작설이 분분하게 나돌았다.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가족들에 의해 고문설이 알려졌다. 다만 긴급조치하의 통제된 언론풍토와 대공관계사건에 대한 전통적인 경계와 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에게 까지는 소문이 전달되지 못했다.

맨처음 고문과 조작설을 대담하게 터뜨리면서 항의하고 나선 사람은 외국의 목사와 신부들이었다. 「조지 오글」목사와 「제임스 시노트」신부 같은 외국 종교인들이 기도회나 반체제 집회 같은 곳에서 인혁당을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인혁당에 대한 고문설을 극적으로 전한 사람은 시인 김지하였다. 그 자신 민청학련 사건 배후조종자로 재판에 회부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75년 2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김씨는 「동아일보」 2월 16일자에 실린 옥중수기 「고행 - 1974」에서 서대문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인혁당관련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함으로써 인혁당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전했다. 김씨는 이 글 때문에 반공법위반으로 재구속되었다.

그 무렵부터 인혁당사건의 고문조작설은 재야세력, 종교계에서 파다하게 떠돌아 다녔다. 민주회복 국민회의 같은 재야단체는 「김일성 지령에 의해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것은 공소사실에도 없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공개재판과 사건진상

및 고문사례진상을 관련 합동으로 공동조사하자고 제의했다. 기도회에서 피고인 가족들은 여러가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이 분분한 의혹과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혁당이 복귀의 지령을 받은 지하당임에 틀림없다는 확신에서 일보도 후퇴하지 않았다. 정부는 인혁당관련자들이 발뺌을 위해 고문설등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 이목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의 강경자세

정부측의 이같은 강경자세 속에서 대법원은 4월 8일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에 대해 원심대로의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도예중,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의 인혁당 관련피고인들은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례적인 사실은 대법원판결 바로 다음 날인 4월 9일 이들 8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당시 군법회의 법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될 경우 국방부장관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형집행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이 내려진지 5일 이내에 형을 집행토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확정판결 바로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한 케이스는 극히 드문일이었다. 이 때문에 재심이나 탄원을 시도해 볼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시체를 유족들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실랑이도 의혹의 소지를 남겼다.

다음은 75년 4월 9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8분중 우홍선 열사의 부인이 사건 12년이 지난후에 쓴 호소문이다.

“세칭 인혁당사건 관계자들을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편들은 가족들 얼굴 한번 못보고 천추의 한을 남기고 아침이슬처럼 스러

져갔습니다. 그후 많은 사람들이 그 돌기도 어마어마한 죄명들에 묶여 감옥에 끌려가고 또 풀려나고 사면되고 복권되고 마치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 법의 유희를, 변화무쌍한 이 세태를, 우리 유족들은 수없이 거듭 찢긴 가슴을 아파하면서 너무 부러워서 피눈물에 얼룩진 가슴으로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29 선언 이후 또 많은 2,335명이란 수치의 내란음모에서부터 벌의별 사건의 주인공들이 사면복권되는 이 마당에서도 유독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 온천하가 모자라면 전세계가 다 알고있는 너무 억울하게 희생된, 너무 어처구니 없이 희생된 정치적 재물임을, 더욱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더 잘 알고 있을 이 사건을 사면, 복권, 보상에서 제외하고 어떻게 법이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무슨 민주화를 실현한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화가 실현될 가망이라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을 이대로 묶어 사장해서 발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그 어느 누가 민주화를 선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어느 누가 민주화를 부르짖며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되었던들 무슨 민주화 정치를 할 것입니까.

1977년 당시 통일당에서 발간한 “민족의 행진”이란 책자에 실린 그 당시 탄압받고 있는 양심인들 명단에서 인혁당사건에 묶인 인사중에서도 유독 죽은 분들 8명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어 양일동당수(지금은 고인)에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역사를 왜곡해서 기록했느냐고 울부짖으며 항의 했을 때 잊어 버리고 누락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한 웃지 못할 웃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사면, 복권, 보상에서도 잊어버리고 누락된 것은 아닌지요? 복권, 사면, 보상을 결정짓는 여러 형태의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세칭 인혁당사건이 조작이었다는 것을 정말 몰라서 이러는 것인지요? 박정희가 자신의 실책 중에서 가장 큰 실책이 8명을 사형시킨 일이라고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전 윤보선 대통령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의 현정권이 유신정권의 연장이 분명 아니고 진정 민주화를 향한 참신한 정권으로 변신을 하였다면 우리들(세칭 인혁당사건) 즉각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만약 우리를 사면, 복권, 보상할 수 없다면 유신정권과 같음을 시인 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법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더죽여 가족들의 아픈 가

슴에 못을 박지 마십시오. 저는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 신문에 나는 박정희사건을 그가 죽을 때까지 약 5년간 이가 아프도록 꼭꼭 씹어서 뱉곤 하였습니다.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가서 푸른하늘을 향해 “살인마 박정희 천벌을 받으라”하고 외쳤습니다. 한번 외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꼭 세번씩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무심치 않았습니까. 박정희는 머리가 하나도 남아나지 않고 죽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주하여 신문에 난 머리를 꼭꼭 씹었기 때문이라고 꼭 믿고 싶습니다. 박정희가 죽기 전에는 세상이 사람사는 세상 같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당했다 해도 내가 누명을 벗길 수 없어 죽었다면, 억울해도 모든 현실을 받아들 수밖에 없으나 남편의 무죄를 다 밝히고 조작한 정보당국에서도 활말이 없었는데 사람은 죽어버리다니, 이게 어디 법치국가며 사람사는 세상이라 그래서 택시를 타면 택시 운전수에게 인혁당이 조작임을 폭로하면서 “나를 못믿겠으면 파출소나 경찰서로 나를 고발하십시오.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내가 한 이말을 당신 아닌 10명에게 이야기하고 그들 10명보고 또 다른 사람 각각 10명에게 이야기하자”고 울부짖으며 거리를 누볐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나를 경찰서나 파출소앞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집앞까지 위로하여 태워다 주었습니다. 이 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박정희가 죽은 후에는 이제 “내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셨다”하고 억지로 생각하고 매주 산소에 가서 울부짖던 일도 그만 두고 언젠가는 민주화가 되면 내 억울하게 죽은 남편도 사면, 복권, 보상을 몇몇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온천하가 민주화 물결이고, 죄 없는 양민을 8명이나 재심청구의 기회도 주지않고 이웃나라들에게 야만인이라는 평을 들어가며 새벽에 확실한 원흉 박정희도 제명에 못죽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부하에게 죽고 없는 이마당에서도 온천하가 다 아는 조작된 인혁당사건을 모른체 외면 한다면 이는 거짓 민주화 그리고 유신정권의 연장임을 인정한 소치임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유신정권의 연장이 아니고 민주화를 선언하고 외치는 정권 내지 정당들이라면 하루 속히 세칭 인혁당사건 관계인사들을 사면, 복권, 보상하십시오.

1987. 8 세칭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된 우홍선의 처 강순희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세상의 모든 죽음들 치고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없지 만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죽음이 가장 원통한 죽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권에 의해 그 진상이 은폐 되거나 왜곡되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전국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에서 집계한 바로는 이렇게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이 48분에 이른다.

1. 의문사의 유형

이 분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유형으로 안기 부, 보안사 등에서 자행한 것이 확실시되는 정치적 타살 이 11분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학생운동을 했다 하여 징 집 영장도 없이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는 강제 징집 행 위가 전두환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끌려가서 보안사에서 사상 전향과 프락치 활동을 요구하는 '녹화사 업'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6분이 자살로 위장되어 살해되 었다. 공식적인 녹화사업 폐지 이후에도 보안사의 이와 같은 공작 의해서 5분이 또다시 살해되었다. 세 번째 유 형으로는 조합활동과 시위 등으로 공권력과 자본에 의 해 13분이 살해되었다. 네 번째 유형은 운동 과정과 특 별한 연관을 갖지는 않았지만 불의에 항거하다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로 애국 시민이 2분, 애국 군인이 11 분에 달한다. 이와 같은 통계는 전체 의문의 죽음 가운

데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문의 죽음 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독재 정권 당시의 시대적 배경 과, 살해자의 철저한 은폐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경우 진 상 규명을 요구하기 보다는 자포자기 하였으며 비관 자 살, 또는 단순 사고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통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승만 정권 당시에 자행된 애국 인사들에 대한 암살과, 박정희 정권 때 수많은 장기수 선생님들이 고문을 동반한 사상 전향 과정에서 살해되 었으나 단순 옥사로 처리된 것들이 다 이에 해당된다.

2. 의문사의 원인

의문의 죽음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첫 째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기 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것 이고 세 번째로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테러리즘에 기인 한다.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이며 각각 이 서로 다른 체제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현 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 이나 안기부법, 그리고 집시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있 으며 기득권 세력의 사상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섬멸적인 제국주의 양태와 폭압적인 군사 독재의 방식으로 표현되어 집단에 대해서나 개인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자행되어 왔다. 이러한 양태는 일제시대 때 부터 자행되어 온 치안유지법과 같은 사상 전향 행위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에 기인한다. 여기에 해방 이후 미군정이 자행한 고문 기술이 보태졌고 이후 군사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더욱 그 형태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것은 공권력 외에도 기업이나 사학재단 등도 마 찬가지로 자행하고 있다. 조직 폭력배를 동원하거나 구 사대, 첩거반원을 동원하여 노조, 학생회, 첩거민들에 대 한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취도, 새도 모르게 죽 여 버린다'는 말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이다.

3. 의문의 죽음이 갖는 지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죽음이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것이라 한다. 수많은 열사들이 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였기에 그 제단에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조차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는 외부 와 완전히 차단된 곳에서, 자신의 사상과 조직 그리고 동지들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 억압과 착취의 세 상을 해방 세상으로 바꾸려는 시위도중 운명하신 분들 과 같이 진상 규명이 되지 않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분들도 예외가 아니다.

4. 김영삼 정권에서의 의문의 죽음들

우리는 단순 의문사로 기록될 뻔한 박종철 열사를 기 억한다.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 소리를 내며 죽었다.'며 은폐하려던 것이 물고문 전기 고문에 의한 살해 행위로 드러나자 전 국민이 분노하였고 급기야는 6·10 항쟁으 로 발전하였다. 최루탄에 맞아 운명한 이한열 열사와 4·19 혁명 당시의 김주열 열사, 그리고 쇠파이프에 맞 아 살해 된 강경대 열사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이와 같 이 의문의 죽음들은 정권의 도덕성을 크게 손상시키고 전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사인을 단순 자 살이나 사고사로 위장해 버린다.

소위 문민정부라하는 김영삼 정권하에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의 죽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노 점삼 강제 철거에 대응하다가 양 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바다에서 떠오른 이덕인 열사,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 재정 확보 투쟁 중에 경찰의 폭력 진압에 의해 살해된 노수석 열사, 철거 투쟁 중 경찰에 의해 타살된 민병일 열사, 그리고 경찰의 쇠도리깨까지 동원한 살인적인 폭 력 진압 과정에서 살해된 류재을 열사가 바로 그 분들 이다. 류재을 열사는 살해된지 60여일 만인 5월 24일 새 벽에야 가까스로 장례를 치렀다. 이 것으로 볼 때 김영 삼 정권 하에서의 의문의 죽음들은 경찰의 폭력성이 더 욱 심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이 학생운동권과 노점상, 첩거민들에게 더욱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진상 은폐의 수단

법의학에서는 '시신은 모든 것을 말해 준다'는 명제가 있다. 그 만큼 부검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가 정치적 성격을 띤 의문의 죽음에는 통하지 않고 있다.

전에는 당국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부검을 하지 않거나 형식만 갖추고는 서둘러 시신을 화장해 버린 경 우가 많았다. 녹화사업에서 희생된 분들과 김용갑, 우중 원 열사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던 것이 이제는 부 검을 진실 은폐의 합법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박창 수, 이철규, 이내창, 이덕인, 노수석 열사까지 모두 다 그렇게 부검이 은폐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부검이 진실 은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 기 때문이다. 국과수의 잘못된 감정으로 70 노파의 살해 범이 뒤바뀐 경우도 있었지만 김기설 열사의 유서를 대 필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조작까지도 하였다. 이철규 열사 의 경우에는 오염된 도구를 사용하여 부검 결과를 왜곡 시키기도 하였다. 국과수에대한 이러한 불신으로 부검을 국과수 외의 다른 곳에서 하려 하니 거부되고 있고, 부 검 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부검의를 직접 참여시키려고 하나 이 것도 입회에 그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류재 을 열사의 경우 부검을 거부한 것이다. 진상 은폐의 또

다른 수단으로 목격자들을 조작하고 증거 인멸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그 정권에서 자행된 의문의 죽음은 그 정권 하의 여러 기관들을 통하여서는 밝히기 어렵다는 불신으로 확대된다.

6. 진상 규명을 위하여

그 동안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 ① 84년 강제 징집 희생자 진상 규명 노력
- ② 88년부터 89년 사이 유가족들 의문사 진상 규명 요구하며 135일 동안 농성, 이에 따라 89년 국회 5공 청문회에서 의문사 문제 거론
- ③ 90년부터 의문사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10만명 서명
- ④ 국회 청원과 시위 - 회기 마감으로 자동 폐기
- ⑤ 이철규열사 사인 진상 규명에 대한 국회 청문회
- ⑥ 이내창열사 사인 진상 규명 노력 (한겨레신문과 안기부의 법정 투쟁)
- ⑦ 김용갑, 박창수, 이덕인 열사 등 사인 진상 규명 노력
- ⑧ 김상원 동지 유가족의 노력으로 진상 규명
- ⑨ 유가족 의문사지회에서 개별 청원

이 과정에서 진상 규명이 된 경우는 김상원 동지, 한 경우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혹들을 여전히 남겨둔채로 차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죽음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것은 그 죽음들에 대한 한 점의 의혹도 남겨두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의 죽음을 발생시킨 시대적 배경을 청산하는 길이다.

먼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을 가진 특별 검사제가 채택 되어야 한다. 구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기에 유가족 측과 인권 단체, 법의학자, 변호사 등이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 뿐 아니라 옥중 희생자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독재정권 하에서 자

행된 인권침해 사례 전반에 대한 과거청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의문의 죽음을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일이다. 안기부법, 국가보안법, 집시법은 물론 철폐되어야 하며, 노동관계법의 독소조항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점상, 철거민들을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하는 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내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정부 당국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살아 남은 자들은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안기부·보안사에 의해 정치적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최종길 (41세)

1932년	충남 공주 출생
1955년 3월	서울대 법대 졸업
1955년 5월	서울대 법대 석사과정
1958년	서독 쾰른대 박사학위 취득
1962년	서울대 법대 교수
1973년 10월 16일	중앙 정보부에 출두
1973년 10월 19일	조사 받던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함

중앙정보부는 73년 10월 25일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 명단에는 73년 10월 19일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사한 서울대 법대 교수 최종길씨도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해명은 최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국내 간첩조직망에 대한 여죄를 조사받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변소에 가 투신자살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박정권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간첩단 조작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중앙정보부의 연락을 받고 최씨가 출두하기 이전 동베를린을 거쳐 평양에 다녀온 것으로 사건 조사가 꾸며져 있었고, 투신했다는현장을 공개하지 않고, 부검을 완강히 거부한 속에서 유가족을 협박해 장례를 급히 치르게 만든 점은 고문에 의한 타살을 은폐

하기 위한 술책으로 간주된다.

■ 다음은 1988년 10월 19일 故 최종길 서울법대교수의 죽음 15주기를 맞아 평화신문에 실린 ‘15년 갇힌 죽음, 이제 풀어야 한다’를 축약한 것이다.

1973년 10월 16일 오후 2시,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수사중이던 간첩사건에 대하여 수사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진출두한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는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동베를린에 갔다는 것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못이겨”, 용변 중 7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1973. 10. 19. 오전 1시 30분 자살하였다고 유가족을 기만하고 강압하여 서둘러 비밀리에 장례를 치르게 했다. 장례가 끝난 뒤인 10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최교수가 “범행사실을 자백한 후 국내 간첩조직망에 대한 여죄를 조사받던 중 용변을 보겠다고 변소에 가 투신자살했다.”고 다르게 발표했다.

최종길 교수의 의문의 죽음에 대한 항의와 진상규명 요구가 교수, 사제단, 재야 인권운동 부문에서 높아져 갔으나 중앙정보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무망한 일이었고, 88년 ‘서울의 봄’이 잠시 왔을 때 서울법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운동이 준비되었으나 5.17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박정희정권이 쿠데타를 집권한 이래 중앙정보부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위세 당당한 권력기관이 되어 외국에까지 악명높은 비밀경찰조직으로 널리 알려졌다. 1972년 10월 유신정변이후 학원에서 유신반대투쟁이 서서히 조직되기 시작했고, 1973년 8월 8일에는 김대중 전신민당 대통령 후보를 납치하는 사건이 일어나 세계의 이목이 박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집중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치권력으로서의 국내외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릴 필요성이 있었고 학원의 반유신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었다.

그 때 수사하고 있었던 간첩단 사건과 그 사건에 최종길 교수의 의도적으로 접합시킨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는 것이 사제단의 견해이며, 또 대부분의 관심있는 내·외국민의 시각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에 가기 며칠 전 교수회의 석상에서 학생들의 처벌에 반대하고 학생들에 대한 폭행을 중앙정보부에 항의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족이 확인하여 기록한 양심선언에 의하면, 간첩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이미 최 교수가 연행되던 10. 16일 이전에 완전 종결되었고, 검찰송치를 위한 의견서가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투신 자살 운운하며 최교수에 간첩누명을 씌우려던 중앙정보부의 수사결과가 허구요 거짓임을 입증하는 사실들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간단히 살펴보자.

1) 최교수가 죽고난 뒤 중앙정보부측이 가족에게 말한바가 '동베를린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했다'고 했다가 '평양에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자'로 둔갑했는가 하면, 공식발표문에는 '국내조직을 대라고 하자 이에 불응 투신자살' 등으로 횡설수설 반복하고 있다.

2) 가족에게 투신자살 현장을 공개하지 않았다(그러나 10. 19일 당시 중앙정보부 검찰실에 근무중이던 최종길 교수의 친동생 최종선씨가 비밀리에 극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장에는 유혈이나 유혈을 씻어낸 물자국의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

3) 사체부검에 최 교수측의 변호인과 의료진의 입회를 중앙정보부가 완강히 거부했다.

4) 새벽 1시 30분이라면 중앙정보부의 모든 창문은 안으로 잠겨져 있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창문을 열고 번기앞부터 -->번기꼭대기-->창턱을 거쳐 뛰어내리기까지는 어느 한 가지 동작에서도 실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2초가 걸리게 된

다. 그러나 최 교수는 잠그는 장치에 익숙치도 않았을 것이고 작고 뚱뚱한 몸집이며 더구나 조사 과정이므로 허리띠를 풀어놓은 상태에서 수사관에 6m 거리를 두고 투신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다.

5) 가족들에 의하면 10. 19. 최 교수가 사망 직후 장송록 수사단장은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처음 이를 동안은 범행을 완전 부인했기 때문에 지하실에서 조사를 했으나, 어제(18일)부터는 심경변화를 일으켜 순순히 자백하므로 아늑한 7층 호텔방으로 옮겨 조사하던 중 용변을 보겠다기에... 투신하셨다는 겁니다. 밤중에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기에 나는 지하실에서 물을 먹이다가 일어난 사고로 생각하고 달려왔더니 투신 자살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지하실에서의 고문, 물을 먹인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얼떨결에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6) 또한 중앙정보부는 최 교수가 죽은 뒤 가족들에게 막대한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하였으나 가족들은 그것이 허위조작을 시인하는 것이 되므로 강력히 거절,저항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장례식이 끝나자 태도를 돌변하고 10월 25일자 동아일보에 '유럽거점 대규모 간첩단 적발'이라는 대문짝만한 제목과 함께 최 교수에 대한 죄상을 근거나 증거도 없이 늘어놓으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고 이후 깊은 미궁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다.

70년대 초반 가혹한 노동조건에 분신으로 항거한 전태일 열사의 죽음과 유신헌법 권력의 고문에 의한 최종길 교수의 죽음은 70년대의 수탈과 전체적 억압을 상징하고, 또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15년이 넘도록 올바른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은 유신헌법의 연장선속에서 5공, 6공이 그대로 한국 현대사회의 암흑을 이루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정권의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최종길 교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제 최종길 교수의 죽음의 진상을 완전히 벗겨 독재권력의 본질을 국민앞에 폭로하는 것만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책임이요 의무인 것이다.

■ 장준하 (57세)

1918년 8월 27일	평북 의주 출생
1932년	평양 숭실 학교 입학
1940년 4월	일본 동경 일본 신학교 입학
1944년 1월	학도병으로 중국에 끌려감
7월	일본군에서 탈출, 중국군에 가담
1945년 1월	중국 중경에서 광복군에 편입, 광복군 대위에 임관됨
1945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요인으로 입국
1947년 12월	조선 민족 청년단에 참가
1964년	언론자유추진회 투쟁위원회에 참가, 언론 윤리법 반대투쟁에 나섬
1965년	조국수호협의회에 참가, 한일조약 반대투쟁에 가담
1967년 6월	육중 출마로 동대문 을구 국회의원에 당선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함

■ 다음은 「씨울의 소리」 1972년 9월호에 실린 장준하 선생의 글 '민족주의자의 길'의 일부이다.

1. 민족주의자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한 인간이 민족적 양심에 따라 자기의 생애를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삶, 고달픔과 보람을 민족의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리라.

민족적인 삶이 험하고 굶주리고 억압받고 있을 때 민족적인 양심에 살려는 사람의 눈물과 노력은 모두 이런 민족적인 간난을 극복하려는 데 바쳐진다.

하물며 민족이 민족으로서의 존재조차 없어지려 할 어두운 시절에는, 민족이 외세의 침략에 놀리어 그 마지막 숨통이 끊어지려는 암울한 시절에는, 민족주의자는 자기의 생명조차 민족적인 삶을 되찾는 싸움 속에서 불태우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민족의 생명, 민족의 존재가 이미 없어져 버릴 때는 민족의 한 사람인 그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명과 존재조차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적인 생명과 존재와는 따로 있는 자기, 민족의 생명이 끊어진 뒤에도 살아 있는 자기, 민족이 놀리고 험하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자기는 이미 자기 아닌 자기이며, 그렇기에 자기의 생명을 실현하는 인간이 아닌 것이다.

이것이 민족적 양심에 살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자기의 삶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참으로 인간적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살아간 길의 갈림점이었다.

애국자의 길과 매국노의 길, 민족적 사랑의 길과 배신의 길이 갈리는 길목인 것이다.

그렇기에 비민족.반민족적인 길에 빠져 버리거나 스스로 택하는 자의 모든 '개인적인' '인간적인' 번뇌는 아무리 그것이 절실하고 불가피하고 자기대로 푸념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인미 진실로 '인간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모습, 또 그의 본질은 자기를 성장시켜 가고 실현해 가는 것이지 노예의 부귀와 영화에 있지 않은 것이다. 저 길바닥에 던져진 한 개의 돌맹이조차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그 돌맹이를 지켜갈 때 그는 자기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겠거니와 설사 옥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그 때는 하나의 돌은 아닌 것이다.

하물며 노예의 부귀와 영화와, 참으로 인간적인 영광과는 정반대의 길이며, 오히려 노예 가운데서도 이를 벗어나려는 싸움이야말로 고귀한 인간적인 삶의 모습인 것이다.

불행하게도 민족적인 삶의 길이 험난했던 민족의 경우에는 살아가는 일조차 이렇게 험난했다. 말 그대로, 말은 쉽지만 행동은 힘들었고 그랬기에 구슬처럼 맑게 살아간 젊은 시인조차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써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윤동주)라고 육중에서조차 절규하지 않았는가?

우리 민족의 지난 날, 더욱 가까이 최근에는 정말 험난의 연속이었다.

세계의 시궁창이 이리로 흘러들어왔고, 세계의 모순, 세계사의 범죄가 이땅을 무대로 일어났다. 산높고 물맑은 강토에 살던 착한 우리 백성들은 홍수처럼, 악마의 불길처럼 밀려드는 이 세계사의 시궁창 물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세계사의 악 중의 악인 제국주의가, 악마 중의 악마인 군국주의가 그 가장 표독한 이빨을 우리민족에 들이댔던 것이다.

누르고 뺏고 마침내 말도 빼앗고 성조차 갈려갔다. 까닭 없는 싸움터로 내몰아 앞세워 죽이고 마지막 땀방울까지 빼앗아 갔고 인류의 족보위에 한 민족의 존재조차 말살하려는 것이었다.

하건만 표독한 이빨 앞에서도 끈질긴 항쟁이 있었다. 비록

총칼 든 전투, 이름난 의사, 열사가 아니더라도 들판에서 공장
에서 낚신 이국땅에서 끊임없이 싸웠다. 이 싸우는 민족에게는
바로 민족적인 삶이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었고 국토를 빼앗기는
것은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광복은
생활의 터전과 자기의 인간적인 삶을 되찾는 길이었다.

이와는 달리 애국이 자기의 삶과 일치하지 않고 지식과 논리
가 삶의 터전에 뿌리박지 못하고 있던 일부 지식인 지도층에
서는 민족에 대한 배반도 일어났다.

하지만 항쟁의 길이 고달프고 외로운 듯했지만 그 실은 온
민중과 함께 있는 것이기에 그렇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그 승
리의 영광은 더욱 보람찬 것이었다.

2. 장구한 싸움 끝에 일제는 패망하고 우리 민족에게는 광복
이 왔다.

빼앗던 자가 망하고 억누르던 자가 쫓겨가고 포악한 침략전
쟁이 채망하여 우리 민족의 삶을 다시 찾은 이 해방의 순간보
다 더한 감격이 어디 있었는가?

민중 해방의 환희, 그렇게도 그리던 기쁨, 이 기쁨을 기다리
며 참고 견딘 어두운 고통, 이 고통스러운 싸움 속에서 그리
던 희망, 이 기쁨과 희망을 현실로 실현하려는 설렘, 이 벽
찬 설렘을 무엇에다 비길 수 있으랴.

이 벽찬 설렘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알차게 영글어 갔다면
이에 비길 행복이 어디 있으랴만 세계사의 흐름은 그렇게 쉽
사리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 주지 않았다. 압제자 일본 군
국주의를 무장해제하기 위해 남북한에 나누어 진주한 외국군
은 군사적 진주와 점령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정치적 진주와
점령으로 굳혀 갔다. 세계사의 새로운 모순, 동서 냉전체제라
는 새로운 범죄가 우리의 강토, 우리 민족의 생명 위에서 새
로운 운명을 장난질했다.

게다가 세계사의 이와 같은 새로운 모순이 이 민족에게 무엇
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새로운 외세에 의한 민족의 양분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이를 권력장악의 조건으로 이용한
일부 신생 권력층은 안에서, 밖에서 강요한 양분체제에 대응
하였다.

통분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민족은 양분되었고, 통일을 갈
망한 민중의 염원은 현실적인 힘을 얻지 못하고 내외가 상응
한 분단체제에 묶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원통한 냉전체제에 의한 민족의 분단은 기억하기도 참혹
한 열전으로까지 터지고 말았다. 세계의 갈등이 그 가장 참혹

한 열전으로까지 터지고 말았다.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그토록 불구대천의 원수로 갈라진 무
슨 주의가 있었고, 그 주의에 따라 나라와 민족을 두 동강 내
어 살기를 원했던가? 그뿐인가, 역사의 동인 전쟁, 그 가장
더러운 동족상잔을 우리가 청부맡아 했더니 오천년 민족사 앞
에 아니 인류의 역사 앞에 무슨 낫을 들 수 있으랴.

회상하기도 끔찍하고 몸서리치게 싫지만 다시 다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에 앞서 평화를 확보한 자보다 이긴 승자는 없다. 하물
며 동족과 형제끼리의 싸움에 평화보다 더 영광스러운 승리는
없다.

어떻든 우리 민족은 금세기 가장 더러운 세계사의 범죄를 청
부받았다.

전후 냉전체제에 의한 남북 분단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우리 민족에게 자기부정을 의미하고 있다.

하나는 이 분단에 내용한 국내세력의 움직임이 어떠했던 그
기본적 계기는 외세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분단된 민족은 역사의 실천 단위로서는
적어도 하나의 주체적 자기존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
다. 둘로 나누어진 그 한쪽은 어느 쪽도 하나의 주체적 단위
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강변은 분단의 합리화
를 위한 거짓 명분일 뿐이다.

어떻든 이 분단체제 그 세계적 주범인 양극 냉전체제도 긴장
완화나 해방이니 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갔다.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공의 대결과 대립의 완화, 소련과 중
공의 동맹과 대립의 과정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주변 정세를
바꾸어 놓았다. 적어도 냉전체제의 최전선에서 총칼을 앞세운
대결은 의미를 잃었고 오히려 대국의 공존을 방해하는 것으로
도 보이게끔 되었다.

이와 같은 양분 무력대결의 근본 조건이 바뀌어져 가는 상황
아래 우리 민족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외세에 의한 자기 분열을 강요했던 자기부정의 조건이 스스
로 변화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자기부정을 고집하
고 있어야 한단 말인가?

■ 임기윤 (58세)

1922년 12월 27일	평남 용강군 출생
1951년	중앙신학대 신학과 졸업
1961년	중앙신학대 사회사업과 졸업
1966년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 안수
1971~ 72년	부산기독교 연합회 총무
1979~ 80년	부산신학교 운영위원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 부산지방 감리사
1980년 7월 19일	국군 보안사령부 부산분실 (속칭 삼일공사)에 연행됨
1980년 7월 21일	부산 통합 병원으로 옮김
1980년 7월 26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연행동기

임기윤 목사는 암울한 유신치하인 1975년 2월 16일 침례
교와 성결교 등까지 포함하여 범교단적으로 40 - 50명의 목
회자가 조직한 '사회정의구현 부산 기독교인회'의 회장으로 취임
하여 합석헌 전생, 서남동 목사, 문동환 목사 등의 초청강
연회를 개최하는 등 반유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임기윤 목사의 친지인 김광일 변호사는 5.17적후 김대중
사전 및 부산지역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1차로 많은 인사를
연행, 조사, 구속하였으나 그후 2차적으로 그동안 요시찰 인
물로 찍혀있던 인사들에 대하여 그 이전의 활동에 대한 조사
검 반체제 운동 예방을 위한 일종의 정신교육, 순화교육 차
원에서 민주인사들을 연행하였는데, 이때 임기윤 목사도 연
행된 것이다.

또한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사태에 대한 설교를 하자,
바로 며칠 뒤 "사상이 의심스럽다"는 내용의 협박편지가 제
일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우송된 적이 있고, 설교내용으
로 담당 형사가 찾아와 전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
을 때 임기윤 목사는 "나는 정치 잘하고 있다고 말 못한다"
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임 목사의 연행은 이러한 설
교 말씀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제제조치였으리라고 판단되어
진다.

■ 사망경위

임기윤 목사는 1980년 7월 19일 국군보안 사령부 부산분
실 참고인으로 불려간 뒤 3일만인 21일 통합병원으로 옮겨졌
다가 26일 순교하였다. 보안사 안에서의 3일 동안 어떠한 일
이 목사님에게 있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으며 보안사 측에서
는 가혹행위는 전혀 없었고 고혈압으로 쓰러지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평소 혈압이 80-150으로 체구에 비해 볼 때 그렇
게 높은 편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혈압으로 인한 이상도 없
었다. 게다가 미망인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뒷머리 왼쪽이 3
센치 가량 찢어져 있고 그 곳에 피가 흘러 말라 붙어 있었다
고 한다. 당시에 통칭 삼일공사라 불리우는 보안사에 연행되
었던 사람들은 그 곳 지하실에서 20대 청년들에 의해 폭행이
흔히 행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고 임기윤 목사는 보안사 내에서
의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운명하였거나 설혹 육
체적 고통은 당하지 않았더라도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공포분
위기에서의 정신적 고통으로 운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친지
들도 고문, 폭행 여부는 당시의 보안대 담당자를 상대로 조
사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최소한 자연사는 아니라고 주장하
고 있다.

■ 다음은 당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미망인 최광명씨의
글이다.

드리는 글

고 임기윤 목사님께서 순교하신지도 어언 햇수로 9년, 만 8
년이 되었습니다. 광주의거가 일어난지 얼마 안되어 빛어진 갑
작스런 일들을 다시 회고해 본다는 것은 고통스럽고도 원통합
니다.

그러나 자꾸만 잊혀져 가려는 그날들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보안사 부산분실에서 참고인으로 와 달라는 통지서류를 받은
목사님께서는 1980년 7월 19일(토) 아침 6시경 집을 나섰습니
다. 그날 저녁 손님을 초대할 계획도 있고해서 꼭 돌아오실
줄 믿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다음날(주일) 주보는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고 설마하니 주
일아침에는 일찍 돌아오실 줄만 믿었던 목사님께서는 오전 10
시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

습니다. 10시 조금 지나서야 그리던 목사님의 힘없으신 목소리가 전화통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언제오시는 것입니까 물으니 내일이나 보내 줄것 같다하시며 서둘러 목사님 한 분을 단에 세우라 하시면서 잘 있으니 여기 일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없으신 그 목소리가 살아 생전 마지막 목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날(월요일) 12시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자 저는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1시경이 되자 전화 벨이 울렸습니다. 받아보니 모르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기가 임기운 목사님댁 입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가 어디냐 물으니 정식(장남, 한번 들어갔던 곳)이와 함께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정식이와 차를 잡아 타고 달려간 곳이 국군보안사 부산본실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선 저는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직원 한명이 말하기를 본래 목사님께서 혈압이 높으셨다고 질문을 하기에 혈압은 정상이라 말하고 당신들은 목사님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니 그것은 자기들의 잘못이라 시인하였습니다. 제가 목사님 계신 곳을 어서 빨리 안내하라고 독촉하여 옆 건물인 통합병원으로 인도 받았습니다. 병원문을 들어서니 수술방 유리문을 통해 목사님의 누워계신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미 순환기절제 수술을 하시고 산소호흡으로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반경 부산대학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받으시다가 5일만인 26일 오후 10시 43분 운명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임종 이후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흐른 지금, 목사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진상을 밝혀내려 애쓰시는 교단의 목회자님과 여러 신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고 임기운 목사님의 처 최광명 올림

■ 우종원 (28세)

1962년	경북 의성 출생
1981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입학
1983년	학의 유인물 배포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음
1984년	특사로 석방
1985년 10월 11일	'민추위' 사건으로 수배 중
	경부선 철로 변에서 변사체로 발견

1. 사건경위

가족들과 그를 아는 친구들에 의하면 그는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어렵게 생활을 꾸려 나가시는 홀어머니의 막내였음에도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강직한 성품을 가진 청년이었다. 그는 대학생활 중 이 사회의 심각한 모순과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자기 성찰의 와중에도 항상 주위의 친구들을 다정다감하게 위해줄 줄 알았고, 때로는 기지에 찬 유모어로 자주 주위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였다고 한다.

1) 수배에서 의문의 죽음까지

· 1985년 8월 중순경 : 예비군 교육 통지서를 받고 대구 집에 내려간 후 자신이 수배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기까지 계속 훈련을 받고 있었음.

· 8월 24일: 자신의 수배 소식을 들음

· 8월 26일: 가출

· 8월 27일: 소속 불명의 형사 2명이 집에 찾아와서 우종원을 찾았으나 부재 중이어서 되돌아감.

· 9월 27일: 중앙일보 11면에 삼민투 관련 용의자 수배자 명단에 우종원군의 이름이 기재됨

· 10월 7일: 어머니가 상경하여 학과 사무실을 통해 우종원군의 소식을 물었으나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귀가함.

· 10월 12일: 오전중에 대구 시경 소속 형사 1명이 집에 찾아와 어머니를 만남. 이때 "종원이는 참 아까운 학생이다. 삼민투에 가담하여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 신세 망쳤다. 빨리 자수시켜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고 함. 이날 오후 6시경 본적지(고향)에 거주하는 백부로부터 우종원군의 사망소식

을 접함. 즉 고 우종원군이 1985년 10월 11일 23시경 경부선 하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충북 영동 - 황간 역 사이, 황간역에서 4Km쯤 되는 곳에서 투신 자살했으며 시체는 다음 날인 12일 아침 (정확한 시간 미상)철도 선로반원 사람들 (성명불상)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백부에게는 황간지에서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됨) 이때부터 우종원군의 어머니는 실신상태가 됨.

· 10월 13일: 새벽 1시경 형님이 황간에 도착, 시신확인

2) 시신의 상태

· 당시 시신은 전날 많이 내린 비로 인하여 매우 젖은 상태였고, 하행선 철로에서 3m 떨어진 종발의 고랑에 횡으로 누운 상태였고 비닐과 거직으로 싸여 있었다고 함.

· 옷차림은 밤색 잠바, 바둑무늬 남방, 밤색 골덴 바지 및 해진 양말을 신고 있었고 내의는 상·하의 모두 새 것이었다 함. 운동화는 1짝만 신고 있었고 나머지 1짝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었다 함.

· 나중에 염을 하기 위해 옷을 벗기고 본 시신의 상태는 다음과 같음

코와 귀에서 출혈의 흔적이 있었고 오른팔은 골절된 듯 굽혀진 채로 굳어 있었다. 가슴과 목 바로 밑의 두 군데는 커다란 멍자국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흙물이 묻은 줄 알고 닦아 내려했으나 지워지지 않자 멍든 것임을 확인함. 또 복부가 전체적으로 붉은 색조를 띠고 있었다 함

· 10월 13일 자로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남성리 소재 영창의원(의사 조영호)에서 발급된 사망 진단서 상에는 직접사인을 "두개골 복합골절로 인한 뇌출혈"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 형님의 기억으로는 두부에 외상은 없었다고 함.

3) 소지품

황간지에서 형님 도착 전에 주머니에서 꺼낸 소지품으로는 자살의 유일한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소위 유서내용을 적은 쪽지와 수원발 동대구착의 특급기차표가 있었다 함. 기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전혀 없었다고 함. 후에 형님이 물에 젖은 술담배 (10개입) 및 성냥을 찾아냄.

유서는 독서카드용의 종이 2장에 쓰여 있는 것으로 제 1면에는 "수무상행 병무상세 오행무상세"이라고 한자로 쓴 어귀가 적혀 있었으며 매우 서투른 아라비아 숫자로 쓰여진 것 같은(내용 미확인) - 고 우종원군의 필체인 것 같다고는 하

나 아라비아 숫자는 전혀 아닌 것 같다고 함. 아라비아 숫자는 타인이 썼을 경우 무학자의 필체에 가깝고 동일인의 필체이라고 해도 비정상적 조건에서 쓰여진 것으로 추정됨- 글이 있었음. . 기타 제 1면의 나머지 글씨는 황간지에서 위외 주민등록 번호를 조회하여 나온 성명, 본적, 주소를 쓴 것이란 함.

유서의 제 2면에는 오직 어머니, 형, 누나, 숙부님, OO(주>사촌동생, 현서울대 재학중) 죄송합니다, 라고만 쓰여있다. (필체는 형님 의견으로 고 우종원군의 필체일 것 같다고 함)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기차표는 그 후 열차역에서 회수해야 한다고 하여 형님이 무심결에 주었다고 함. 고 우종원군의 사망 시간을 10월 11일 23시경으로 추정한 것도 위의 기차표 시간을 따져볼 때 사고 지점을 지나는 시각이 23시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지서 황간역에서는 판단한 것 같음.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시각도 이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으로 추정됨.

2. 우종원군의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들

이상이 고 우종원군의 죽음을 둘러싼 현재까지 알려진 전부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1) 어머니와 형님은 고 우종원군의 자살 그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미 한 번 감옥에 갔다 온 고 우종원군이기에 또다시 감옥에 간다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을 결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또 정말로 열차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의외로 의상이 없는 편이라는 점.

2) 자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물증인 유서에서 그의 신원을 밝혀주는 유일한 단서인 주민등록번호의 아라비아 숫자 필체가 고 우종원군의 여타 유서상의 그것에 비해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

3) 사망 추정시간을 결정하였던 유일한 근거인 기차표 역시 현재 유실된 상태이고 또 시신을 사망 후부터 형이 확인할 때까지 상당시간 (24시간 이상) 동안 폭우 속에 방치된 후에 이루어진 사망진단이기 때문에 그 정확성과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점.

4) 만일 고 우종원군이 정말로 자살하였다면 왜 단순 변사사건에 불과한 이 일에 대구 시경과 안기부가 그토록 민감

하게 개입하였는가 하는 이 점은 고 우종원군의 화장이 끝난 며칠 후인 지난 10월 17일 고인의 학과 친구들이 대구 집에 조문을 갔을 때 형사들이 집 앞에서 출입자들을 일일이 검문하고 들여보냈다는 사실에서 보아도 더욱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점.

3. 자료

우종원군이 83년 구치소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 중

어머님께

날씨가 다시 추워졌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마쳤는지 궁금하군요.

어머님과 형, 누나들의 건강도 염려됩니다.

저는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하는 것이 많이 안정되어 불편한 줄 모르고 잘 지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님과 가족, 친지들에 대해 저지른 저의 잘못을 어떻게 빌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제 몸 잘 보살피고 차분히 책이나 보는 것 외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더 정확하게 제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경찰서에서 우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가장 괴롭습니다. 제 자신은 약한 존재가 결코 아니고 또한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와 어머니, 형, 누나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부모, 형제간이기에 많은 괴로움을 간직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형의 결혼을 계기로 우리 집에 많은 행복이 넘치길 바라며 아울러 그 자리에 함께 못한 아쉬움을 전합니다.

저한테 돈이 충분히 있으니 2월 10일 정도까지 지낼 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설, 아버지 제사 지내고 오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머니가 자주 오시지 말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복, 속옷, 양말 모두 잘 빨아 입습니다. 몸 건강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편지할게요.

1. 17 종원 드림

어머님, 형, 누나

아무리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소신을 가지고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 어려운 여건에서 아무런 불편

함 없이 공부하도록 보살피 주신 어머니와 형, 누나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금할 길 없으며 입이 있어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손이 있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 염치가 없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왔다갔다 하시는 어머님께 죄송스런 마음을 아무리 마음 속에 간직한다 한들 여기에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편안히 잘 지낸다고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만 모쪼록 지금 이순간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머님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못한 자식을 염려하지 마시고 형, 누나들이 모두 화목한 생활을 해 주었으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친구 부모님들과 상의해서 변호사 선임은 돈을 많이 주고 살 것 없이 국선 변호인으로 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동안 책이나 열심히 읽고 앞으로 살아 갈 방법에 대한 모색을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출세를 해서 어머님을 복되게 해드리지 못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과정까지를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하에서 공부하는 처지이고 누구보다 형, 누나들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기에 혼자 울어도 보고 잠을 못이룬 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알면서 그냥 죽은 듯이 공부를 하고 일인의 영예를 위해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도 지금은 별로 위안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자주 연락을 드리면서 얘기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1월 15일 경에 오시고 누나들도 연말연시에는 교통편이 불편하니 오지 말고 3월초 첫 공판할 때나 오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형, 누나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회 정의를 위한다고 할지라도 형이나 누나로부터는 욕을 들을 만하다고 인정합니다. 동생 공부시키느라고 고생해가며 남들처럼 여유있게 생활하지도 못한 채 나에게 쏟아준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어머님 건강이니 나를 대신해서 내 몫까지 효도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나는 운동 열심히 하고 혼자 조용히 책이나 읽고 마음을 정리하겠습니다.

책목록: 책은 보통 평론집은 3일에 한 권 소설은 하루에 한 권 정도 읽음

소설: 토지 (박경리작)를 다음에 어머니 오실 때 보내주고 자세한 것은 국회사 약혼녀가 오면 전달하도록 합니다.

특히 숙부님께 죄송하다고 전해주고 집에서 편지할 때 주소

좀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절봉에 있는 대로 쓰면 됩니다. 편지는 검열이 됩니다.

그럼 이만 쓰겠으니 어머니 부디 몸조심하시고 연락오는 곳이 있으면 안부전해 주세요.

12. 15 종원

■ 김성수 (19세)

1968년 4월 15일	출생
1986년 2월	서울대 사회과학대 입학.
	총학생회 연극부에 가입하여 활동
1986년 6월 16일	행방불명
1986년 6월 21일	부산송도 앞바다에서 시멘트덩이를 매단 채 발견

1. 사건경위

· 1986년 6월 18일(수) 아침 9:30 - 10:00 사이에 전라도 말씨의 사람이 "서울대생"을 바꿔달라는 전화를 받고, 파자마에서 교련복으로 갈아입고 급히 외출. 11시에 교련 시험이 있었고 시험공부중이었다고 함. 학생수첩, 학생증, 주민등록증 등을 두고 나감. 누나에 의하면 약 5,000원 가량의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함.

· 6월 20일(금) 아버지 상경, 누나와 만나 고속버스 터미널 파출소에 가출 신고.

· 6월 21일(토) 6시경 부산 송도 앞바다(매립지) 방파제 앞 10m, 수심 17m 지점에서 세 개의 각기 다른 크기(4kg 짜리 1개와 작은 것 2개)의 시멘트 덩이가 각각 다른 종류의 끈으로 정교하게 허리띠에 매어 있는 채로 죽어 있는 김성수 군을 스쿠버 다이버 최영봉(31세)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

· 6월 22일 오전에 사체 인양.

· 6월 23일(월) 부산시 서부경찰서 부검담당 의사 손태동 씨에 의해 사체 부검 실시, 참관인으로 장병호씨(기자) 참석.

부검결과 폐에 플랑크톤이 들어 있다는 점등으로 익사로 판명, 사망 추정시간(20일) 밤 11시에서 (21일) 새벽 2시, 참관인에 따르면: 두피하 20cc 출혈과 세로 5cm, 상층 가로 3cm, 하층 가로 1cm 일직선 상처와 2/3까 굵은 위장에 독성이 없으나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 황색 액체가 들어 있었으며 위장은 없었다고 한다.

· 6월 23일 관악서에서 "김군과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 확인하라"고 자취방으로 전화가 올, 아버지가 떠난 후 또 전화가 와서 김군이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통보. 이날 오전 10시에 강릉의 아버지가 사체 확인 오후 8시에 담당검사와 경사가 "자살인 것 같으니 빨리 화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에 아버지 승낙. 화장 실시.

· 6월 26일: "성적 불량 비관 자살"로 보도 아버지가 서울 시청 강력계에 재수사 요청.

· 7월 10일: 사건 수사 결과 발표.

· 7월 11일: 부산일보에 "부산 서부경찰서에서 익사에 의한 자살로 단정한다"는 결말의 보도가 게재됨.

2.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의문점

본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발표한 수사 결과는 김군의 죽음을 익사에 의한 죽음으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사건 자체를 그것의 경과에 따라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점과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경찰 당국의 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밝혀 낼 수 있다.

1) 사건 자체의 경과에 따른 의문점- 자살로 단정한 경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 사건 당일까지의 김군의 생활에서 자살의 특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김군은 사건 당일까지도 기말고사를 대비해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으며, 가출일인 18일에는 당일 오전 11시에 치러질 교련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또한 원만한 교우 관계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가정에서의 생활이 위 사실을 더욱 잘 입증한다.

㉡ 사건의 발단이 김군의 자취방으로 18일 오전 10시경에 '서울대생'을 찾는 전화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 전화를 받고 김군은 소식이 두절되고 실종이 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는 이 의문의 전화를 걸었던 사람의 정체(파악)에서 비

못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㉔ 김군의 시체가 발견된 부산 송도 앞바다는 김군이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이고 초행 일뿐더러 김군이 당시 소지했던 용돈(5000원 내외)은 부산까지 도착하기에는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실로 비추어 보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된 경위에 많은 의문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또한 상당한 정도의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㉕ 사체 인양 과정을 목격했던 백길영(바다횃집 '대구집' 주인)씨에 따르면 사건 현장은 지금까지 자살한 사람이 전혀 없을뿐더러 해안으로부터 10m가량 떨어진 수심이 17m나 되는 곳으로 일반적으로 자살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건 현장은 매립지를 끼고 있는 민간인 통제 구역으로 높이 3미터 정도의 방파제로 막혀있고 그로부터 바닷물까지는 5-7미터 정도의 수초가 펼쳐져 있다. 따라서 김군이 무거운 시멘트 덩이를 몸에 매단채 사망 추정 시간인 밤 11시에서 익일 오전 2시 사이에 위와 같은 현장에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㉖ 사체 인양자인 스쿠버 다이버 최영봉(31세)씨에 따르면 김군의 사체는 수초가 끝나는 12미터 정도의 바닷속에서 1미터 정도 뜬채로 발견되었고 안경이 깨어져 있었고, 상하의와 신발도 입혀진 채였으며, 신체 상태 또한 전혀 이상이 없었고 사체는 시멘트 덩이에 매달린 채로 마치 고스란히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깊게 느꼈다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살자들이 일반적으로 최후의 순간에 직면하는 고통의 몸부림을 설명할 수 없다. 즉 김군의 경우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은 더욱 의문을 자아낸다.

㉗ 사체부검시 참관자인 부산일보 장병호 기자에 따르면 외상은 전혀 없었으나 두피절개 결과 두피하 출혈 20cc의 상처 - 세로 5센티미터, 가로 상부 3cm, 가로하부 1cm의 일직선 찢개모양 - 가 발견되었고 이것은 단순한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처의 부위와 모양으로 볼 때 정교한 타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김군의 죽음이 단순한 익사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원인에 의한 죽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㉘ 김군의 사체 부검이 유족 부재시에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원칙상 보호자 입회하에 부검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검은 보호자가 현지에 도착하기 전인 6월 23일 하오

에 이미 실시되었고 이것은 그 자체의 이례성과 더불어 사인에 대한 또다른 의문을 제기한다.

㉙ 김군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자살자들이 남기는 유서와 같은 기록도 없으며 특별한 심적 갈등에 대한 표시 또한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2) 사건경과 및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 및 정보기관의 태도에 대한 몇가지 의문점

- 공권력 개입 가능성과 관련하여.

㉚ 부산 경찰이 사망자의 유품에서 사진 인화권을 찾아 그것을 통해 사망자의 신원을 치안본부에 조회한 뒤 김군의 아버지를 통해 직접 신원을 확인한 것은 23일 오후 10시-11시경이었다. 그런데 벌써 23일 오전 10시경 강릉 어머니의 직장으로 정보기관으로부터 전화가 2차례씩 걸려왔다고 한다. 또한 경찰이 직접 김군의 집을 찾아와서 '김군이 학업에 소홀하다'는 등의 정보를 할머니에게 유도 심문해 얻어 가려 했다는 사실로 보았을 때 어떻게 정보 기관 등에서 김군의 신원을 부모의 공식적인 확인 이전에 알 수 있었는가가 의문이다. 더군다나 질문 내용에서 단순한 실종자 신원확인 차원을 떠나 김군의 집안 사정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듯한 유도성 질문을 많이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㉛ 김군의 신원이 확인된 후 6월 24일 오전 중에 경찰이 김군의 고교 3년 담임교사를 찾아가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성수가 공부를 소홀히 한 것 같다"라고 했다. 이 발언은 할머니 자신이 사실 무근임을 밝혔다. 이것은 애초부터 '자살'이라는 방향으로 사건을 수사하려는 경찰의 태도를 보여준다. 또한 7월 10일에 종결된 수사발표는 6월 23-24일 사건 초기에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㉜ 김군의 가족들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가족들은 지속적인 감시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그 일례로 전화의 상태가 사건을 전후로하여 현저히 다르고 -전화를 받는 가족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나 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잘 들리지 않음- 전신전화국으로부터의 이유없는 전화번호 확인이 있었고 가족들이 외출시 미행당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

■ 신호수 (24세)

1963년 8월 8일	전남 여수 출생
1980년 2월	성동중 졸업
1983년 8월	검정고시 합격
1985년 6월	방위 근무
1986년 6월 11일	인천시 남구 소재 도화가스에서 근무 중 서울 서부서 형사들에 연행 후 행방불명
1986년 6월 19일	전남 여천군 대미산 동굴에서 변사체로 발견

1. 사건 경위

신호수씨는 1986년 6월 11일 오후 1시 30분경, 인천시 남구 소재 도화가스 충전소에 파견되어 가스통 밸브작업을 하고 있던 중 서울시경 대공수사과 형사라고 신분을 밝힌 3명의 남자에 의해 연행되었다.

목격자 오욱현씨(인천시 남구 도화동 도화 LPG충전소 근무)의 말에 따르면, 3명의 형사가 무전기와 안테나가 부착된 회색빛 포니II 승용차에서 내려서 "신호수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가스통 밸브작업을 하고 있던 신호수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들은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뒤, 함께 소파에 앉아 약 15분간 대화를 했는데, 그들은 결봉에 "증거물"이라고 쓰인 봉투를 꺼내더니 뒷부분을 찢고, 그안에 든 유인물을 꺼내어 신호수에게 "이게 너희집에 있던거 맞지?" 하고 묻자 신호수씨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그중의 한사람이 "이봐! 거짓말 하지마!"하며 묻는말에 수긍하라고 다그쳤다. 이말에 신호수씨가 반발을 하자, 한사람이 약도를 꺼내어 가지고 "너 여기 살았지? 증거물이 나왔으니 순순히 인정해"하면서 재차 다그치며 신호수의 혀대를 풀고, 주머니 안에 든 소지품을 확인한 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승용차 뒷자석 좌측에 앉히고, 잠시 후 출발 경인고속도로 쪽으로 진입해서 서울 방향으로 갔다고 한다.

이후 신호수씨는 소식이 끊겼다가, 8일만인 19일 10시경 강릉공단 3명의 방위병에 의해 고향집으로부터 불과 4km거리인 전남 여천군 대미산 중턱의 한 동굴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사체 발견지점인 굴바위는 여수시로부터 12km떨어진

대미산 중턱으로 이곳은 도로에서 70°의 급경사로 100m가량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이 신씨의 연고지이긴 하지만 5살 때 상경하였기 때문에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는 약산이다. 신호수씨는 흰색 면양말에 팬티만 걸친 상태로, 입고 있던 바지를 동굴 바위틈에 고정시켜 목을 맨 모습이었고, 팔꿈치위의 양팔은 혁대로 감겨 있었으며, 소지품은 동굴 내에서 불태워지고 일부만 남아 있었다.

당시 서부경찰서는 신호수씨가 방위근무할 때 장판 밑에 모아둔 북한산의 뼈라(당시 군부대에서는 뼈라를 많이 모은 병사에게 포상휴가를 보내주었는데 신씨는 이를 의식, 뼈라를 대거 수집하여 장판밑에 보관하다가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제대, 나중에 이방에 살게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함)를 문제 삼아 대간첩작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장흥공작"이라고 명명하고 신씨를 연행한 것이 국회에 제출된 국정감사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사건 당시 여수경찰서는 가족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형사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추정하고 변사사건으로 처리해 버렸다. 경찰은 1986년 6월 21일 발견 이틀만에 전남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공동묘지에 가매장하고 6월 27일에야 가족에게 통보했다.

한편 가족은 사건 발생 11년이 지난 오늘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의문사항

(1) 신호수씨의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신호수씨는 평소 명랑 쾌활하고 의지가 강하며, 어려운 가사를 고려하여 스스로 학교를 자퇴하고 고학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할 만큼 효심이 깊었다고 한다. 성실근면한 신호수씨는 독재체제하에 신음하는 사회현실에 깊은 관심을 갖고 각국의 자주화와 민주화에 관련된 서적과 유인물을 많이 읽었으며, 가끔 친구들과 같이 집에 와서 토론하곤 했다. 그리고 5·3인천사태 직후 경찰이 여수 집으로 찾아와 신호수씨의 신원과 행방을 확인했다고 하는데, 신호수씨의 연행이 5·3인천사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으며, 5·3인천사태 이후 정국은 급속히 경색되었고 당시 정보기관, 경찰의 수사는 가혹해졌다.

더구나 경찰이 "장흥공작"이라고 명명을 붙일 정도로 가치있는 사건의 혐의자를 연행 3시간만에 풀어주고 더구나 서

을역까지 배운을 하고 차비까지 주었다는 서부서 담당형사의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2) 신호수씨는 서울시경 대공수사반을 자처한 세 사람에게 불법 연행된 뒤 소식이 끊겼다가 8일만에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없을 뿐 아니라, 경찰은 1986년 6월 19일 사체가 발견되자 이를 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1986년 6월 21일 재빨리 가매장 하였으며, 1986년 6월 27일 애야 뒤늦게 가족에게 통보한 것은 사실 은폐를 위한 기도로 밖에 볼 수 없다.

(3) 더욱이 변사체를 확인한 박산수씨(전남 여천군 돌산읍 평사리 도실부락 새마을 지도자)는 "사체를 살펴보니 백색 면양말을 신었는데 양쪽 발목이 피로 얼룩져 있었고 무릎에 상처가 있었으며 양쪽 팔목에는 잉크색의 멍이 들어 있었다"고 얘기 했으며 덧붙여 "느낌에 자살한 시체 같지는 않더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체의 상태가 타살흔적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해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4) 또한 최초로 사체를 발견한 방위병의 말에 의하면, 사체 발견시 목부분이 입고 있던 바지로 감겨져 있었고, 양손이 모아진 상태이고, 가슴부분은 양팔을 휘감아 등부분과 함께 허리띠로 감겨 있었으며, 펜티차림 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도저히 자살 행위라고 판명할 수 없다.

(5) 인천에서 성실히 근무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집 가까이인 험악한 산으로 올라가서 유서 한 장 없이 자살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사체발견시 자살 시기를 4-5일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는 경찰 수사를 받은 직후이고, 경찰에 연행되고 사체로 발견 되기까지 신호수를 보았거나 만난 사람이 직장, 집주변, 친인척을 포함하여 아무도 없다고 하는 바, 결국 수사 과정에서 살해된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 고정희 (28세)

1960년 12월 4일	전남 광주 출생.
1979년 3월	연세대 전기공학과 입학.
1986년 1월	졸업후 IBM입사 (호주 파견근무)
1987년 3월	퇴사 후 연대 정외과 편입학.
1987년 10월-12월	김대중후보 당선을 위한 청년학생 단체인 민애청 중앙본부 기획위원회에서 활동.
1988년 1월이후	청와대, 미대사관, 각 언론기관에 부정선거에 관한 투서 및 미대사관에 투석 계획.
1988년 3월	서초 경찰서 대공과에 연행된 후 정신병원에 강제수용.
1988년 5월 13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1. 사건경위

1988년 1월 이후 청와대, 미대사관, 백악관, 독일대사관 등에 '노태우 부정집권'을 고발하는 투서를 한 고정희(연세대 전기공학과 86년 졸업)는 지난 3월 경찰에 연행되어 서초 경찰서 대공과에서 조사를 받다가 강남 성모병원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된 뒤, 5월 13일 오후 5시 40분경에 병원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다.

병원측의 주장에 따르면 고씨는 사건당일 10층 정신병동 정문을 통해 나와 비상계단을 이용해 9층으로 내려간 뒤 공사중인 신축공사장 배리어판(구멍)을 뚫고 나가 투신, 2층 구름다리 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과 증언들에 의하면 병실안에서 인권위원회, 대사관 등에 탄원서를 쓰는 등 처참하게 몸부림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2. 의문점

1) 변사 현장에 대한 의혹

· 떨어진 투신현장에 피가 입주위에만 원형으로 고여 있다.

· 투신했다면 안경이 깨어져 안경알의 파편이 있어야 할

텐데 안경테 밖에 없었다. - 처음 본 인부 증언

· 떨어졌을 때 턱은 상하로 길게 찢어져 있고, 부딪힌 현장에 놓여있던 각목은 사방 3인치 굵기로 방향은 좌우로 놓여 있었다.

· 투신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환자복이 영안실에서 소각되었다.

· 어떻게 죽든 사람의 시체가 발견되면, 경찰은 그 현장을 보존하거나 현장사진을 찍는게 보통인데 현장의 피를 지워버리고,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 사건 당시 타워크레인이 작동 중이었다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목격자일 수 있을텐데 일체 언급이 없음.

2) 자살동기에 대해

· 고씨는, 병실 안에서 항상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자살과 관련 유서나 메모를 남기지 않은 점과 사고 전날에도 결혼, 수영 배우기 등 퇴원 후의 생활 설계를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자살할 이유가 없다.

· 당시 친구의 면회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사고 그 다음 주도 구체적인 약속을 함)

· 사고 당시 퇴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으며 사고 전날은 의사에게 "단 하루라도 좋으니 제발 집에 갔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3) 병원측 주장에 대한 의혹

병원측의 설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의혹을 남긴다.

· 썸머타임이라 매우 밝은 시간이었고 9층 내과병동은 물론 택시 승강장, 영안실 등에 사람이 항상 붐비는 상황인데 목격자가 병원측 관련자(경비 이선철과 10층 수간호원, 그의 2명의 인부)뿐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 정신병원이라면 경계가 엄할텐데, 어떻게 고정희씨가 10층에서 9층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가? 당시 경비가 1층 식당에 식사하러 내려가고 남자조무사가 대신 봐주고 있던 상황(그러나 경비의 진술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함)이었으며 그 사람도 바로 뒤따라 나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음.

· 사고 발생 후의 상황에 대해 왜 담당의사들은 말을 못하는가? 사건발생에서 영안실 안치까지의 25분간이 너무 짧

고(영안실 기록은 엉뚱하게 7시로 되어 있음) 이 55분간의 공백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이 없었음. 이 점이 의혹을 가장 강하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 사건 당일인 5월 13일은 오전 이후 오픈병동에서 고정희씨를 본 사람이 없으며(점심도 자기 침실에서 먹지 않았음) 폐쇄병동으로 간 것이 분명하나 경찰수사상이나 병원측에서 일체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폐쇄병동은 중환자나 발작환자를 가둬두는 곳으로 독방에 가둬놓고 밤새도록 구타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조무사중 거친 사람이 2명 있는데 그중 1명이 고정희씨 사고 후 보이지 않는다고 함.)

· 영안실에 36일 있는동안 3-4일 간격으로 고정희씨 시신만 혼자 남겨 했다는 점.(영안실에 사무실 정보과 형사가 자주 드나들음)

4) 같이 입원해 있던 환자 현승민의 말에 의하면 노왕구 의사가 '고정희씨가 정치 때문에 죽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함. 또한 사고당시 10층 수간호원이 간호대에 있었으며 10층 경비 2명중 키작고 뚱뚱한 사람이 사고당일 경비했다고 함(병원측은 1층 경비가 임시근무했다고 함.)

■ 이내창 (28세)

1962년	서울 출생
1986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입학
1987년	판화패 새김 창립, 회장 역임
1988년	조소학과 학생회장 역임. 학과 내에 민족미술연구회 창설. 서울지역 미술대학 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주최 "청년미술대학 한미당" 개최
1989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1989년 8월 15일	거문도 덕촌리 유림해수욕장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유인타살, 사건의 고의적 은폐 >

- 새로운 형태의 의문사 -

1. 사건경위

중앙대 안성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내창씨는 열정을 갖고 학생회장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여 학우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던 운동가였다. 그는 또한 미술생도로서 민족민주미술 운동에 헌신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2학기 사업점검으로 한창 바쁜 때인 8월 15일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낙도 거문도 앞바다에서 외상에 의한 피하출혈 흔적이 7군데나 있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는 15일, 전민련 주최의 '민족해방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16일에는 총장과 면담약속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학우들과의 약속도 단 5분을 넘기지 않고 확실히 지키던 그가 갑자기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바로 그전날 거문도행을 한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나중에 안기부 인천분실(세칭 인하공사) 소속 여직원이라고 밝혀진 도연주와 그 남자친구 백승희 등 2인과 동행하여 편도로도 밤새워야 갈수 있는 거린 거문도까지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일은 다른 의문사의 경우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이내창씨는 8월 14일 오전에 학교로 찾아온 도 백 2인과 이날 오후 4시 45분경 안성을 출발해서 다음날 18시경 여수발 거문도행 해리호에 승선한 일이 확인되기까지의 행적이 미궁에 빠져 있다. 그리고 12시 50분경에 거문도에 도착하고

13시-13시30분경 방파제에 앉은 이씨가 목격되며 15시경 거문리 소재 '삼호다방'에서 도, 백씨와 함께 음료수를 마신 일이 다방 종업원 최씨에게 목격되고 그런 후 15시 30분경 거문리와 덕촌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에도, 백씨와 함께 타고 덕촌리로 건너왔음이 사공에 의해 목격된다. 그런후 이씨는 약 3시간후인 1시 30분경 상의가 완전히 벗겨져 물에 엎드린 상태로 발견되기에 이른다.

이후 19일 부검이 실시되고 부검결과를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의사를, 경찰과 검찰측은 단순의사로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지었고, 대책위와 학생, 교수들은 자살이나 실족은 절대 아니며 타살, 의사를 당했다고 주장, 수사과정의 전면공개와 검찰측의 은폐조작기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그후 사인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체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하다가 전대협장으로 이내창씨의 장례식이 있던 10월 6일 <한겨레신문>에 "이내창씨 최후동행자 안기부직원" 제하의 기사가 실리고 국회에서도 야당위원들에 의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치안본부는 전면재수사, 공개수사를 천명하여 사건이 진척되는 듯이 보였으나 경찰은 이를 어기고 수사를 재개하는 시늉만 하다가 어느 정도 사회적 관심이 수그러들자 <한겨레신문>을 도씨 명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은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

이내창씨 사건은 이철규씨까지의 "의문사"가 개연성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목적의식적으로 죽음의 장소에까지 유인, 타살하고 (정황이나 목격자의 진술, 상처 등으로 보아 자살일 수는 없다) 그 살인행위를 국가권력이 의식적으로 은폐, 조작해준 뚜렷한 사건으로 앞으로의 권력에 의한 의문사의 발생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즉, 이제는 수사과정이나 연행과정에서 전적으로 죽일 목적이 없이 고문 등을 가하는 과정에서 죽이게 되고 그를 사후에 은폐, 축소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을 갖고 대상을 고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사후대책까지도 마련한 속에서 왜곡, 축소시키는 유형의 정치적 목적의 의도적 타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첫번째 경우가 이내창씨의 의문사가 아닌가하는 점이다.

2. 의문사항

- 미진한 부분이 많지만 <한겨레신문> 89년 10월 8일자 신문을 보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내창씨 죽음 꼬리무는 의혹

동행자들 알리바이

경찰은 지난 8월 15일 이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뒤 지금까지 직접 면담, 목격자 탐문, 출장수사, 우편조사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모두 7백여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활동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중앙대 '공동대책위'도 4차례에 걸쳐 연인원 2백여명의 '조사단'을 현장에 보내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과정에서 이씨의 마지막 행적과 관련된 주요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은 안기부 직원으로 밝혀진 도아무개(23.여)씨를 비롯해 도씨의 동행자 백아무개(22), 서아무개(22), 또다른 박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의 친구인 이아무개(20.여)씨 등 6명이다.

배 탄 시간 진술과 틀려

이 중에서도 특히 도씨와 백씨는 이씨가 숨지기 2시간 전인 8월 15일 오후 3시부터 약 40분간 이씨와 '같이 있었다'는 증인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같은 증언들과 함께 이들의 진술도 서로 어긋나거나 사실과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많아 의문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씨와 백씨는 15일 낮 12시 30분경 거문도에 도착한 뒤 곧바로 동도에 있는 친구 박아무개씨 집에 전화를 걸어 "마중 나오라"고 한 뒤 20분 뒤인 12시 50분경 전화를 받고 마중 나온 박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를 거문도에서 만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와 함께 4명이 거문도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인근 영국군 묘지로 놀러갔다가 오후 5시경 동도의 친구집으로 함께 건너갔다고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도씨가 오후 3시경부터 20분 가량 이내창씨와 함께 있었다"는 거문도 삼호다방 여종업원 최희(24)씨의 증언과 거문도-서도간을 운행하는 덕성호 선장 이현우(42)씨의 "이내창씨와 도.백씨가 3시 30분경 함께 배를 타고 서도로 갔다"는 증언으로 결정적으로 깨져나간다. 또한 도.백씨의 진술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시 백씨의 친구로 마중나간 박씨와 서씨가 거문도에 도착한 시각도 도씨 등의 진술과 달리 1시간 가량 늦은 오후 1시 50분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문도 일대를 운항하는 거문호는 당시 오후 1시에 거문도를 출발해 서도의 선착장 2곳과 서도 인근의 외딴섬 2-3군데를 돌아 오후 1시 35분경 동도에 도착해 10여분 뒤인 1시 50분경 거문도로 되돌아오는 일방코스만으로 운항했고 박.서씨는 동도에서 이 배를 타고 와야 했기 때문이다.

도.백씨 연인사이 아닌듯

또한 거문도에서 합류해 4시간 가량 4명이 동행했다는 부분도 4명의 진술 이외에는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거문도 선착장에서 15분 거리인 영국군 묘지는 2평 정도의 크기로 2m 높이의 십자가 하나와 돌로된 묘비 하나만 서 있는 곳으로 일행 4명이 3시간 정도 머물면서 볼 만한 것도 없고, 다른 휴식 또는 위락시설이 전혀 없다. 도씨와 백씨는 부친에서 만나 여수로 같이 왔다고 진술하면서도 도씨는 14일 여수에 도착한 시각을 백씨보다 30분 가량 늦추는가 하면 배표를 예약해준 사람과 만나 표를 받은 사실을 빠뜨리고 있다. 도씨는 이날 "오후 5시경 서울로부터 여수에 고속버스편으로 도착했다"고 진술한 반면 백씨는 "오후 4시 30분경 도착해 5시경 여수시 봉산동 봉산우체국 앞길에서 도씨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거문도행 타코마3호 예매표2장을 받았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 출발하는 타코마3호를 타지 않고 1시간 늦은 8시경 이씨가 탄 신영페리호로 거문도에 갔다. 당시 신영페리호 배표는 방위병이 회수하게 돼 있었는데, 이 회수표 묶음에는 이씨, 도씨, 백씨의 순서로 표가 모아져 있었다.

이와 함께 도씨와 백씨가 그들의 주장처럼 '연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온다.

도씨와 백씨가 15일 밤부터 17일 아침까지 2박3일 동안 동도에 머무는 동안 함께 지낸 이아무개(여)씨는 "두 사람이 결코 연인 사이로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14일 여수에서 하룻밤 머무는 동안 각각 방을 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족의사' 추정의 의문점

경찰은 이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서도 유림해수욕장 방갈로 앞으로부터 약 5백m 가량 떨어진 암석지대에서 이씨가 실족 의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가 실족해 의사한 뒤 조류에 따라 5백m쯤 흘러왔다는 것이다.

잠목숲 해쳐간 흔적 없어

그러나 주민들은 물에 떠밀려 온 시체라면 몸에 상처가 훨씬 더 많이 생겼을 것이라면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암석지대로부터 방가로 앞 바닷가 사이에는 암초 등 바윗돌들이 많고, 당시는 여름이어서 오후 6시경에는 날이 흰해 떠밀려 오는 동안 사체를 목격한 사람이 없을 리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

또한 사체 발견 현장에서 3m 떨어진 곳에 이씨의 허리띠가 놓여 있었던 사실은 조류에 의해 사체가 떠밀려 왔다는 추정 을 결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경찰의 '실족추 정' 지점인 암석지대로 가려면 *해안을 따라 바윗돌들을 건너 뛰거나 타고 넘는 방식, 뒤편 오솔길을 따라 가다가 동백나무 등 잡목숲을 뚫고 들어가는 방식의 2가지가 있으나, 현지탐사 결과 2가지 가능성이 모두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동백 나무 잡목숲은 1-2m 두께로 빽빽해 헤치고 들어가는 것이 거 의 불가능한 형편이었고 헤치고 들어갔다면 사체에 긁힌 자국 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이씨의 사체에 긁힌 자국은 거의 없었다. 또한 바윗돌을 건너 뛰어가다 실족했을 경우 이 지역 의 바위들이 크고 둥근 모습이어서 사체에 난 것과 같은 상처 가 날 수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겨레신문 특별취재반>

■ 이철규 (24세)

1965년 5월 6일	전남 장성 출생
1982년	조선대학교 전자공학과 입학
1985년 11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2년형을 선고 받음
1987년 7월 8일	가석방, 3학년으로 재입학
1989년 4월	'민주조선' 발간에 관련, 수배
1989년 5월 3일	행방불명
1989년 5월 10일	광주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 수배 중 고문의 흔적 역력한 참혹한 변사체로 >

1. 사건 경위

89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시 북구 청옥동 제 4 수원지에서 조선대 '민주조선'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철규(전 자공학 4년)열사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철규열사는 교지

'민주조선'에 '북한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여 국보법 위반혐의로 4월 18일 광주·전남지역 공간합수부에 의해 지명수배 중이었다.

이철규열사의 사체는 수원지 관리인인 최왕균씨(52세)에 의해 수원지 상류에서 발견, 하늘을 향한 채 떠 있었다. 최씨 에 의하면 "5월 10일 오전 1시 30분경 집에서 기르던 개가 쫓아 물가로 내려가보니 사체가 있어 청옥동 파출소에 신고 했다"고 밝혔다. 사체는 입가에 피를 흘린 자국과 온몸에 멍 이 많이 들어 있어 구타흔적이 역력했으며 얼굴은 검게 변해 있었다. 또한 오른쪽 눈은 함몰상태에 있었고 왼쪽눈은 튀어 나와 있어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광주지검은 김각영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만들어 사망 전 이철규 열사를 검문하 였던 경찰들을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인규명에 착수하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 소는 5월 14일 이철규열사의 사인을 익사로 단정하여 발표하 였고, 검찰은 이와같은 사체부검결과를 토대로 이철규열사가 실족익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사체의 상태 및 죽음의 정황에 비추어 플랑크톤 검출 만으로 실족익사라는 검찰의 판단은 대단히 설득력이 없었 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재판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혹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국의 학생 및 재야단체 인사들 을 중심으로 '애국학생 고 이철규고문살인진상규명범국민위 원회'가 발족되어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노태우정권의 퇴진 운동을 펴나가게 되었다.

한편 미국무부는 이철규열사의 사체가 발견된지 이틀 후 인 89년 5월 12일 이철규열사의 변사사건에 대해 "개탄스럽 고 잔학스러운 사건이며 살인범을 체포해 엄벌하기를 기대한 다"는 극히 이해적인 논평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이 변사사건 에 모종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혹을 던져주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철규열사 사건에 관한 범국민 적 관심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89 년 6월 1일부터 현지에 내려가 활동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전 문 지식의 한계와 사인규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채부검 요청이 검찰측에 의하여 거부됨으로써 많은 의원들만 지적한 채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고서조차 발표하지 않고 6월 27일 활동을 종결하였다.

한편 검찰의 이와 같은 채부검 거부방침에 따라 유족 및 대책위는 칼쉬너 박사를 초청하여 동인이 6월 29일 내한하였

으나 검찰이 자체 부검마저 금지 시킴으로써 그 계획이 무산 되었고, 칼쉬너 박사의 1차부검 당시의 슬라이드 제출요청마 저 검찰에 의해 거부됨에 따라 검찰이 사인규명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사인을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결국 이철규열사의 사인은 국민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철규열사의 사체는 냉동 상태로 있다가 6개월후인 89년 11월 4일 망월동 묘역에 안장 되었다.

2. 의문사항

1) 사고사, 자살 주장에 대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① 도주 후 동일지점에 복귀 : 이철규열사가 산으로 도주 했다면 도주 후 다시 그 지점으로 와서 어둠속에서 철조망을 넘어 점퍼가 발견된 지점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정신이상자 가 아닌 이상 저지를 수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취수탑 경 비초소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했고 도주 후 경찰의 수사력 집 중, 매복가능성 등 신변에 위협을 초래할 요소가 많은 지점 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도주 하는 자라면 신변노출의 위험이 없는 야산을 통해 도주하는 것이 상례이지 위험지역으로 스스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떻 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도망자의 도피로는 사전 약속장 소 방향이나 위험이 덜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 다.

② 수원지 도강(渡江)

· 점퍼가 발견된 지점에서 만약 도강하려 했다면 현지 조건상 최악의 지점을 선택한 것이다. 폭이 200미터가 넘고 수심이 7미터가 넘는 지점인데 그 지점을 통해 광주로 진입 하고자 했다면 헤엄치는 물소리가 경찰 또는 경비 청원경찰 에게 탄로날 것이 자명한데 제아무리 수영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을 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설사 도강하려 했다 하더라도 도주자가 옥을 입고 신 발, 더욱이 구두를 신고 도강할 사람이 있겠는가, 더욱이 도 강후 옷과 신발이 젖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옷과 신발을 물에 젖지 않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옷도 벗지 않고 구두를 신고 도강한다면 도주자의 신변 노출을 자초하는 것 인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③ 실족해서 익사할 경우 : 실족을 했다면 당연히 점퍼를 입고 있거나 실족사한 부근에서 점퍼가 발견되어야 한다. 이 철규열사의 경우 점퍼를 벗어놓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메모용 지를 27조각으로 찢어 놓고 실족했다는 것은 행위의 전후가 모순되는 상식 밖의 일이다. 따라서 옷을 벗어 놓고 실족했 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④ 자살을 가정할 경우 : 평소 의지나 신념이 강한 이철 규열사가 도주한 후 자살을 감행할 이유가 없으며 유서 등 자살을 기도한 근거가 없는데, 실족 자살로 익사했을 가능성 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경찰 발표 및 수사상의 의문점

① 만약 경찰의 발표대로 도주자를 놓쳤다면 당연히 사건 현장은 물론 인근지역에 대한 검문, 검색 강화는 물론 정밀 한 수색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지극히 미 흡했다. 경찰측은 국회진상조사시 평소 20:00-02:00까지 근 무시간임을 밝히고도 사건당일만은 23:30에 일찍 병력을 철 수시킨 것은 수사관례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 면 청옥동 파출소 소속 정종석 순경(41), 전기홍 순경(38)등 2명의 경찰이 더 투입되었는데도, 호반 산장에서 이군을 기 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무등산장 쪽에서 사건지점을 23:30 경 통과한 박효양(23,조선대 졸)에 대해서는 일체의 검문검 색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검문검색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 즉 도주자를 놓친 것이 아니고 체포해서 상황이 끝나지 않았 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② 도주자를 놓치고 난 후 홍성하씨(31)와 이행민씨(46) 등 2명의 청원경찰이 수색경찰과 합류했을 때 이군을 검문검 색한 지점에서 3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 즉 이군이 산으로 도주한 지점 바로 아래 수원지에서 청풍교 아래에서 돌리는 "어푸어푸" 소리를 1명은 5-6회, 다른 청원은 2-3회 들었다 고 진술하여 경찰과 수색을 재개했는데 자동차 전조등 또는 손전등으로 비춰보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만약 그러 한 소리를 분명 들었다면 20여분 전에 도주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부근 일대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도주자가 빠졌 을 가능성과 자연스럽게 결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탐색 작업을 했어야 옳지 않은가.

더욱이 허우적거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난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낚시하던 김오빈씨(35)와 김현빈씨(36)는 조용한 수원지에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청원경찰 2

명에게 얘기했고, 잠시 후 정복경찰 1명(정종석순경)과 형사 1명이 취수담 초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해 신분증 확인과정에서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얘기했다면 청원경찰이 들은 소리는 청원경찰만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소리라는 말인가.

③ 제 4수원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평소 20:00를 전후해 퇴근하는 것이 상례라고 인근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5.3사건 당일밤 10시가 넘도록 근무한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청원경찰이 무슨 이유로 청옥파출소에 어떤 내용을 무슨 방법으로 연락하여 2명의 경찰이 사건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의문에 싸여있다.

④ 도주자를 놓쳤다면 당연히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일이 지난 5일에는 북부서 형사계1반 팀장인 김자술경위가 북부서 수사과장에게 구두로 보고한 점은 경찰의 수사지휘체계 상 상식밖의 일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당시의 근무일지, 상황일지 등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⑤ 경찰측에서는 청풍교 부근 수원지 건너편에서 낚시하던 김오빈씨와 김현빈씨에 대해 사건발행 직후부터 12일까지는 청원경찰이 감시초소로 대려와서 조사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사건장소에 낚시꾼이 있었으며, 북부서 김자술 경위(51), 김남태 경장(30), 박재환 순경(37) 등 5명의 경찰관 외에 2명의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있었으며, 이들 낚시꾼에 대한 신원확인 내용은 청옥동 파출소에서 나온 정종석 순경(41)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한다.

⑥ 경찰은 당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5명이었다고 검경합동수사본부와 국회진상조사단에게 증언했으나 출동차량인 24인승 미니버스를 의경이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5명 주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소한 문제까지 자꾸 반복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엇인가 축소하거나 숨기려 든다는 인상을 받고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⑦ 검문경찰들은 사건 직후 검문과정에서 놓치고 추격하여 되돌아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처음에는 20분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추후 국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시 1시간 가까이 박재환 순경이 잠복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문경찰들의 진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지 않

을 수 없다. 1시간 여 동안 잠복한 박순경은 물론 관련 경찰들의 행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⑧ 검문사실의 첫 제보자인 택시기사 이재민씨(35)는 11일 11:30경 전대 의대 영안실 관리실의 인터뷰 장소에서 이철규열사가 도주할 당시 택시에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철규열사가 도망가자 운전기사 이씨가 맨앞에서 광주 4파 4684호 영업용 택시를 몰고 쫓아갔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⑨ 추적경찰 2명이 20여분 후 되돌아와 운전사 이씨에게 "들렀다" "놓쳐버렸다. 택시 강도가 많으니 밤늦게 이런 곳으로 운행하지 말라"며 순순히 이씨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검문 도중, 신원확인 중 피검문자가 도주해서 놓쳤다면 경찰은 당연히 승차지점, 목적지, 승차시간, 주행중 대화내용 등에 대해 추궁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이것은 경찰이 이씨에게 더 이상 물어도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또한 의문을 더해주고 있다.

3) 경찰의 수사태도의 의문점

① 5월 10일 제4수원지 관리인 최왕균씨(52)의 사체발견 보고 접수후 검문에 입한 경찰은 당연히 이철규열사의 도주 사실과 변사체와의 관련사실을 지휘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사 이재민씨가 검문중 청년 1명이 도주했다는 사실을 제보하고 이 사실이 보고되고나서야 비로소 검문했던 상황을 밝혔다는 것은 이철규열사를 마지막 목격하고 추격했던 경찰에 대한 의심을 더욱 깊게 해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② 사체가 발견되었다면 그 일대를 수색하고 유류품 또는 흔적을 찾기 위해 집중적인 수색작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들이 지난 12일에는 점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수사관행상 상식밖의 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③ 5월 3일 사체 인양 직후 사체에서 현금 3,000원이 발견되었다고 당시 이철규열사 행선지 등 정황으로 보아 3천원보다 많은 금액을 소지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된 후 14일에는 사체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당시 북구청 보건소 지방의사 김세현씨(38)가 변사자의 모든 호주머니를 뒤져 주민등록증, 현금, 도장 등을 찾아냈는데 현금 20만원이면 주민등록증보다 두꺼운 부피임에도 발견치 못했다는 사실은 혹시 돈봉투가 다른 곳에서 보관되었다가 사체에서 나중에 발견된 것으

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점퍼, 소지금액은 물론 안경, 수첩, 담배, 가스라이터 등에 대해 최후 목격자나 제보자의 진술과 보도가 먼저 제시되고 난후 수사결과가 곧바로 뒤따라 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은 수사본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욱 의혹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다.

4) 부검 소견 및 유류품 발견 발표의 의문점

① 위 내용물: 5월 11일 전남대 의대 영안실에서 있었던 이철규열사의 부검당시 위에서 발견된 밥알은 사망 2-3시간 전에 이철규열사의 식사 사실을 반증했었다. 사건 당일 이철규열사의 행적을 살펴볼 때 17:30경 호남대앞 음식점에서 후배 정우태군(호남대 사학과 3년)과 짜장면을 먹었고 동일 20:40분경 산수동 오거리 소재 '길목' 카페에서 후배인 이희복양, 이경미양과 만나 음료수만을 마신것으로 관련 목격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실종된 22:20이후 점심식사는 6시간 이상 경과해 위 안에 남아있을 수 없었고 더욱이 오후 늦게 식사를 하고 후배 생일축하 식사가 약속된 까닭에 17시 30분 짜장면 식사후 다른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수사 당국에서 추정하는 대로 익사했다고 할지라도 위 안에서 발견된 밥알은 사망일자와 사망시간은 물론 실종후 이철규열사의 행적에 결정적 단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공개 가검물검사 중 위 내용물을 조사하면서 약물에 의한 중독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사망시기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렵다.

② 점퍼: 5월 3일 길목 카페에서 만나 동일 22:00경 헤어진 이철규열사의 후배 이희복, 이경미양에 의하면 12일 경찰차량 의해 발견된 베이지색 사파리 점퍼는 사건 당일 이철규열사가 입고 있던 점퍼가 아니고 얇은 천으로 된 쪽색이었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만약 이철규열사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이 점퍼가 12일까지 10일 28mm 11일 14.7mm 12일 5.2mm의 강우량(광주 기상대 보고)을 보인 일기에서 가장 습기에 약한 담배나 성냥이 비에 젖지 않고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건 발생 3일째 되는날 발견으로써 사체 발견 인접지역을 수색하는데 그토록 소홀히 할 수 있는나는 점 또한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 정도로 보아 넘기기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술한 의혹과 의문을 남긴 채 89년 11월 4일 이철규열사의 장례식이 치루어짐으로써 이철규열사의 변사사건은 관련자의 양심선언 등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 영구히 미궁 속으로 빠져 버릴 공산이 크게 되었다.

■ 김영환 (26세)

1965년 2월 15일	강원도 삼척 출생
1984년 3월	고려대학교 불문학과 입학
1989년	한겨레사회연구소연구원으로 활동
1991년 4월 27일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

1. 사건경위

김영환씨는 명지대생 강경대열사가 운명한 그 다음날 자취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김영환씨는 4월 25일까지 자취방에 있는 모습을 집주인이 보는 등 생존한 모습이 보였으나, 그후 행적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한겨레사회연구소로 재직하면서 민족문제, 군축문제, 통일문제 등에 대한 정력적인 연구와 논문발표 등의 활동을 벌였고, 죽음 직전 윤석양후원사업회 관계자들을 만나 군 내부의 인권문제에 관한 자료를 전달 받았으며 그후 기무사 요원이 그의 행적을 감시한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사인에 대해서 밝혀지지 못하고 가족과 동료들에 의해 장례가 치루어졌다.

2. 부검 결과

1) 사망원인: 대동맥이 파열되어 다량의 혈액이 누출된 것이 사인으로 판명되었다. 부검결과 심장에서 9-10센티 위에 있는 대동맥이 5센티정도 찢어진 것이 발견되었는데, 고인은 "해리성 동맥류"로 87년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인의 동맥이 확대되어 있어 파열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사망시간: 사체 냉동 후(냉동시각 27일 오후4시경)

24시간 이전으로 파악되었다. 즉, 26일 오후 4시 이전인데 고인이 25일 오후 6시에 전화를 하였으므로 사망시간은 25일 오후 6시에 26일 오후 4시사이로 추정된다.

3) 외부충격 가능성 : 외부에서 충격이 있었다면 충격이 전달되는 중간 과정에서 흔적이 발견되어야 하나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외부충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위액 채취결과 : 완전한 소화상태가 아니다. 불확실하나 음식물 섭취 후 2시간 정도가 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의문점

1) 커피포트에 끓고 있던 물 : 사망시간은 25일 오후 6시에서 26일 오후 4시로 추정할 수 있다. 커피포트에 물이 끓고 있음을 확인한 시간은 27일 오전 9시 20분이었다. 따라서 25일 오후 6시에서 26일 오후 6시 사이에 커피포트 전원을 넣고 물을 끓였다면 커피포트의 물은 27일 오전이면 벌써 증발했어야 했다.

2) TV와 26일 저녁 8시에 켜졌던 형광등 : TV(채널 9)를 켤 수 있는 시간은 25일 오후 12시 이전이다. 고인이 25일 12시 이전에 TV를 켜놓은채 사망했다면 역시 커피포트가 의혹으로 남는다. 또한 25일 저녁에 켜졌던 불이 26일 오후 8시에 켜져 있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3) 사체발견 당시 고인의 누운 모습 : 대부분의 경우 동맥이 5센티 이상 찢어진다면 가슴이 찢어지는 격렬한 고통이 따른다고 한다. 그러나 고인은 요를 깔고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반듯이 누워 있었다.

4) 위액의 상태와 사망시간 : 음식을 섭취 후 2시간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25일 오후 6시에 음식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사망시간은 25일 오후 8시 전후이다. 이는 25일 오후 8시부터 자동응답기에 녹음이 되어 있었으므로 25일 8시 이전에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커피포트, 25일 저녁에는 켜져 있었으나 26일 오후 8시에 켜졌던 불과 모순된다.

4. 묻혀버릴 한 젊은이의 죽음

고인의 죽음은 분명 많은 의혹만을 남기고 있다. 특히 고인이 양심선언한 군인들과 여러차례 만났었고 그들로부터 4

월 16일경에 “군복무 기간 단축투쟁”에 대한 글을 전해받은 사실을 생각할 때 의혹은 증폭된다. 그러나 부검결과 동맥파열로 사망하였고 고인의 동맥이 평소에도 약했으므로 결국 고인이 동맥파열로 죽은 것으로 공식화될 것이다.

■ 박창수 (34세)

1958년 7월 28일	부산에서 출생
1979년 2월	부산 기계공고 졸업
1981년 5월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 배판공으로 입사
1990년 7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당선, 부총연 부의장
1991년 2월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1991년 5월 4일	의문의 상처입고 안양병원에 입원
1991년 5월 6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박창수 열사는 81년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배판공으로 입사하여 노동자의 삶을 시작했다. 열사는 한여름이면 5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작업탱크 안에서 얼굴에 허영계 소금꽃이 피고 겨울에는 영하 10도를 넘는 추위 속에서도 추락의 위험으로 옷조차 제대로 껴입지 못하는 참담한 노동생활을 겪으면서 인간다운 노동자의 삶을 고민하게 된다. 그 후 “노동자도 인간이다”라는 한맺힌 절규가 전국을 뒤흔들던 87년 7월, 마침내 이땅 천만 노동자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된 그는 3년간 노조 회계감사로 재직하며 자본가, 정권파의 고난한 투쟁에서 언제나 든든한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90년, 노조를 새로 건설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어용노조 민주화투쟁을 성공리에 이끌며 93%의 압도적인 지지로 노조위원장에 당선된 뒤 진정한 민주노조의 상을 세우고자 노력했다. 또한 그해 9월에는 부산노동조합총연합 부의장으로 선출된 후 계속되는 안기부의 전노협 탈퇴공작을 뿌리치고 30만 부산노동자와 1천만 전국노동자의 연대투쟁을 이끄는 지도자로 민주노조 운동의 대오를 강화하기 위해 실

천해왔다.

그러던 중 열사는 대우조선의 파업 관계로 긴급 소집된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조 회의’에 참석했다가 제3자 개입금지 및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91년 2월초 구속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 후 서울구치소에서 안기부로부터 전노협의 탈퇴를 집요하게 강요받았으며 그러던 가운데 91년 4월 말부터 단식투쟁을 하였고 5월 4일 운동 중 의문의 상처를 입고 안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열사는 그 뒤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안기부 요원 홍상태가 한진중공업의 전노협-연대회의의 탈퇴공작을 전개하는 도중에 우발적으로 죽인 후 투신 자살로 조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강제부검 이후 당국은 부검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박창수 동지의 어머니 아버님은 당시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이 규명 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한다고 한진중공업 조합원과 약속을 했으며, 현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대응을 하고 있다.

1차 진상규명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패소를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각오로 계속 싸우고 있다.

1. 사건 개요

1) 배 경

· 91년 2월 10일 대우조선 파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이유로 대기업 연대회의 간부 69명을 의정부 경찰서에 강제 연행한후 노조위원장 7명을 제3자 개입금지 혐의로 2월 11일 구속 시켰다. 박창수 위원장도 이때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 5월 1일 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세계노동절 정신계승 및 백골단 해체를 위한 단식투쟁을 전개하던 중 정확한 사유가 파악되지 않은채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며 구치소에서 안양병원에 왔으나 당시의 상태는 머리가 7Cm 가량 찢어졌고 사람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의식불명의 상태였다.

· 5월 4일 운동시간에 “노동운동 탄압하는 노태우정권 타도하자”를 외치면서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콘크리트벽 모서리에 머리를 박은 후 7Cm 가량 찢어진 상태에

서 병원에 입원 16바늘 꿰뚫.

· 박위원장 동생이 5월 6일 새벽 3시 30분까지 지켜보다가 깜빡 잠이들었는데 4시 45분경 간호원이 깨워서 일어나보니 박위원장이 보이지 않아 밖으로 나가보니 위원장이 중환자실 1층 복도밖에 누워있는 시체로 발견(이 위치가 건물의 부로 보면 옥상밀의 바깥인 것으로 보임)

· 시신의 상태는 피를 흘린 자국이 없고 가슴위로 반점 두개가 있었으며 다리가 통통 부어있는 상태였음. 발바닥에 링겔병 조각이 찍혀 발바닥에 소량의 피가 있었다.

· 5월 6일 새벽 5시경 안양병원에서 사망.

2) 사망원인

· 서울 구치소 교도관측의 발언

: 서울 구치소 내에서 운동시간중에 배구를 하다가 가볍게 머리가 찢혀졌고 치료를 위해 안양병원에 왔는데 5월 6일 새벽 5시경 투신한 상태로 발견 되었다고 교도관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함.

· 5월 6일 오전 뉴스에 발표된 내용

: “안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5월6일 새벽 4시부터 4시30분 사이 7층에 올라가 강경대 열사의 죽음을 규탄하고 노정권 타도를 주장하며 투신 사망했다”고 발표함.

· 노동부 장관 노동위 보고

: 5월 4일 배구시합을 하다가 머리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 5월 6일 새벽 1시 투신사망 이라고 보고.

· 조합측에서 주장하는 원인

: 박창수 위원장은 조합원을 위해서 투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이를 판단한 정권과 자본은 15대 박창수 집행부가 구성 될때 부터 노조파괴 공작을 모색 했음이 분명하다. (안기부 직원 홍상태라는 사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구치소에 있을때 온갖 화유협박 및 전노협 대기업 연대회의의 탈퇴 조건을 제시함이 분명하다(부산시 남구 대연동 모 카페에서 안기부 조정관이라는 자가 한진중공업 노조 사무국장 장세균, 조직부장 한재문에게 “전노협 탈퇴와 해고자 복직을 맞바꾸자”는 제안을 함. 또 노조 사무국장 장세균이 노조 직무대행 이정호에게 구속된 박위원장 조기석방을 위해 안기부 직원을 만나보자는 제안을 해 남구 민락동 횡집에서 안기부 직원을 만났을 때 전노협 탈퇴를 제의받음) 여기에 불응한 박창수 위원장을 안양 병원까지 찾아와서 압력을 했을 것이

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봄.

2. 의문점

1) 부상경위에 관한 관계당국의 발표가 갈광질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박창수 위원장의 부상경위에 대해 당국은 “여러명이 공놀이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고 검찰은 1차 “혼자서 공놀이를 하다가 다쳤다”고 했다가 중간 수사발표에서 “재소자 69명과 함께 운동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다가 대열 끝에서 7-8M 달려가서 시멘트 모서리에 이마를 박아 자해했다고 했다.

2) 왜 자해 했는가? : 검찰은 힘겨운 구치소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인은 병원에 있을 때 부인과 노조간부에게 이 시대의 노동자가 탄압당하고 있는데 구치소에 그냥 있을 수 없어 죽음을 무릎쓰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요지의 발언을 몇차례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박위원장은 위축감을 느끼는 듯 밖으로 얘기할 때는 배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해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3) 같은 방의 수감자는 누구인가? : 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방에는 3명이 있었다. 1명은 인신매매 용의자, 1명은 사기용의자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3의 인물에 대해서는 고인조차 말을 할 수 없다고 밝히길 꺼려했다. 그는 누구이며, 왜 구치소 측은 같이 있던 수감자와 조사단의 면담을 가로 막는가?

4) 왜 밥을 먹지 못했는가? : 고인은 부인에게 안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며칠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했다. 당시 고인은 단식농성을 하지 않았던 것은 확인 되었다. 고인은 밥을 안 먹은 것이 아니라 왜 먹지 못했던 것일까?

5) 합의 사항을 깨고 황급히 부검한 이유는? : 검찰은 유족과 대책위에 양측 합의 하에 부검하기로 해놓고 불과 17시간만에 약속을 어기고 황급하게 시신을 탈취 부검했다. 무슨 말 못할 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시신을 급하게 처리했는지?

6) 감시 중이던 교도관 한명은 어디에? : 감시중에 교도관 2명이 동시에 졸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박위원장 사망 시간을 전후하여서는 현장 주위에 1

명의 교도관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7) 부검 소견서를 왜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 검찰은 현재 사인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5월 6일 06시경 사망현장에서 검사는 김형태 변호사에게 현장을 찍은 사진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서 아직까지 안주고 있다. 관계 당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8) 시신은 20M 상공에서 추락했다 : 검찰은 중간발표에서 발목에 심한 골절상이 있다고 해서 투신자살로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20M 높이에서 추락해 발이 먼저 땅에 닿았고 해도 2차 충격으로 머리등에 외상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데도 발목외에 뚜렷한 외상이 없고, 죽은 모습이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였으며 링게르병 조각이 지름 1.5m 안에 흩어져 있던 점은 7층 옥상에 떨어졌다고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점,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링게르병을 팔에 꽂은 채 옥상까지 올라가 투신한다는 점도 자살로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9) 계속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은 누구인가? : 박위원장이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신원불명의 사나리와 두차례 통화를 했다는 점이다. 사회와 철저히 격리되는 구치소의 행정망을 자유자재로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들은 누구인가?

10) 안기부와 연락담당 장세군의 행방은? : 5월 10일 장세군씨가 행방불명 되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위원장의 죽음을 전후하여 장세군씨는 안기부와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 왜 장세군씨는 나타나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가

11) 한진중공업 노조활동에 개입했던 안기부요원은 누구이며, 안기부는 그를 통해 어떤공작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 1991년 4월 25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 모까페에서 안기부 노사조정관이라는 (홍상태)인물이 노조 사무국장 장세군 및 조직부장 한재문씨에게 “전노협 탈퇴와 해고자 복직을 바 꾸자고”제안을 하였음.

· 1991년 4월말경 장세군씨 주선으로 부산시 남구 민락동 횃집에서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이정호씨와 장세군씨가 안기

부 조정관을 만나고 이자리에서 안기부 조정관은 “박위원장 석방문제는 해고되지 않을 정도의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임 금인상과 단체협약도 최대한 신경을 써 보겠다면서 주위에서 볼때 노조가 변한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전노협을 탈

퇴하면 안되느냐고 하였음.

3. 검찰 중간 수사발표 내용의 의문점과 문제점 (아래 표)

	검찰 발표내용	유가족 및 관계자 증언	의문점과 문제점
자살동기	구치소 생활에 대한 염증과 노조활동에 회의를 느껴서	유서도 남기지 않은 점, 노조간부에게 “투쟁에 동참못해 미안하다 꼭 살아서 나가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밝히면서 삶에 애착을 보인 점 등으로 미루어 자살할 이유가 없다.	아무리 구치소 생활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노조활동에 회의를 들지라도 그것이 자살 동기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자살에 몰릴만한 어떤 다른 동기가 있었는가?
신원미상 청년의 병실방문 문제	5월 6일 04시경 신원미상 20대 청년이 병실에 들어와 박위원장 면회한 후 고인이 앉았다 누웠다 주위를 두리번 거리는 등 불안해 했으며 순간적 충동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됨.	5월 6일 04시경 30-40분간 병실에 박위원장 면회를 온 사람은 없었으며 고인의 동생 황인갑씨가 “맥박이 어떠냐”며 병실에 들어온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 했는데 이부분이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간호사 홍문숙, 오은숙의 증언)	검찰은 왜 간호사들의 증언을 왜곡해서 발표했는가? 순간적 충동에 의한 자살이라는 추정을 합리화 하고 사건진상을 호도하기 위한 고의적 왜곡은 아니가?
옥상으로 올라간 경위	교도관이 조는 사이에 박위원장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위 시국사범이라 하여 특별히 감호임무를 맡고 있던 교도관들이 두 명씩이나 똑같이 졸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가?
투신시신의 상태	부검결과 양발이 먼저 땅에 닿아 발목과 척추가 부러지고 장파열이 된 것으로 보여 진다.		20여미터 높이에서 추락 했는데 어떻게 머리나 신체의 다른 부분이 아닌 양발이 먼저 떨어졌는가? 발목과 발바닥 이외는 특별한 외상은 없음.

강제징집 당해 보안사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관련자료 1 국방부 발표자료

1. 실시 시기(기간) : 1982. 11 - 1984. 11

2. 법적 근거 :

교육법시행령 제56조(학칙기재 사항)
병역법 제22조9제학생의 징병검사 연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학칙보유자의 변동)
병역법 개정(법률 제3696 : 83. 12. 31)
제52조(징병검사 및 입영의 연기)
병역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1511호 : 84. 9. 22)
제94조(학적 변동자의 처리)
84년 이후 병역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병역법 제 19조 (지원), 시행령 94조 (학적변동)에 의거
학원 소요 관련 학사 징계로
81년 11월 - 83년 11월간 입대 조치된 자
447명에 대한 정훈교육대상자로서

82년 9월부터 시작되어 84년 11월 폐지시까지
보안사에서 교육대상자로 분류, 관리한 인원은 429명이며
교육을 실시한 인원은 265명이었음.
입대자와 교육대상자간 차이가 나는 8명은
사안이 경미하여 분류과정에서 제외시킨 인원임.'

관련자료 2 신동아 기사

안기석

강제징집이란 시위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단순가담자, 뚜렷한
혐의 사실도 없이 문제학생으로 지목당한 학생, 노동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야학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병역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병무청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신
체검사 통지서의 20일전 송달 및 입영명령의 30일전 송달)을
무시당한 채 경찰서에서 곧바로 군부대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른바 광주학살, 고문살인 최루탄 남발 등으로 얼룩진 제5
공화국 역사의 비망록에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또 하나의 대목
이 있다. 학생운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이 극심했던 지난
80년대초 소위 학내에서 문제학생으로 지목된 젊은 대학생들
이 강제로 군에 끌려가 겪어야 했던 비극적 운명에 관한 기록
이다.

당시 대학가는 전투경찰과 정보요원들이 학내 곳곳에 상
주, 평화적인 학내시위조차 삼시간에 집압당했으며, 시위를
주동한 학생뿐 아니라 단순 가담한 학생들까지 관찰 경찰서로
연행, 구속되거나 가족들 친구들과 석별의 정도 나누지 못한
채 곧바로 군으로 끌려가야 했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정
부 당국과 매스컴의 주도로 학생운동을 '좌경화'로 몰고 갔으
며, 학원의 좌경화를 막고 사회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명분
위에 "제적-구속" '지도후학-강제징집'이라는 학생운동을 탄압
한 두 개의 장치가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80년 5·17이후부터 83년까지 학생운동과 관련하여 학원으로
부터 추방당한 학생들은 모두 1천 8백여명. 이들중 1천3백63
명이 제적 또는 투옥되었고 나머지는 강제징집 되었다. 전자
가 적어도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등 현행법상의 접법 절차를
밟고 진행된 탄압이라면 후자는 아예 관계법을 무시한 채 은
밀하게 진행된 것이었다. 이들은 소위 '특수학적 변동자'라는
붉은 낙인이 신상기록카드에 찍힌채 군수사기관의 감시대상이
되었으며, 순화와 공작대상으로 간주, 군수사기관에 불려가
20세 전후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
어야 했다.

일전에 발표된 한 젊은 신인작가의 중편소설(정도상작 '친
구는 멀리갔어도', 풀빛출판사간 '밤길의 사람들'에 수록)은 강
제징집된 운동권 학생이 군에서 직면하게 되는 체험이 어떠한
가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 읽는 이들로 하여금 충격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 글은 강제징집실태에 대한 각종 보고서와 국회속기록
등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증언자들과 직접 인터뷰하거나 당사
자들이 직접써서 건네준 수기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다.
이들 증언자들은 현재 회사원, 학생, 출판업, 노동에 종사하
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육체적 정신적 상흔은 갖고 있
다. 그러나 그들은 '떠올리기도 싫은 고통의 기억들을 되살리
며' 성실하게 증언해 주었다. 이름이 보호되어야 할 사람은 이
니설을 사용하기로 했다.

진혼비를 돌려달라

88년 4월 6일 오후 1시경 고려대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
서는 '진혼비를 돌려달라'는 이색집회가 열려 오가는 학생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날 집회는 예당초 고려대 대강당에서 학
교대표, 평교수대표, 학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혼비 복
구를 위한 공개토론회'로 가질 예정이었으나, 참석하기로 합의
했던 학교측 대표들이 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진혼비 복구를 위한 결의대회로 성격이 바뀌어버린 것.

이날 학생회관 건물에는 '구국의 피맺힌 진혼비여, 너 다시
안압땅에!'(고려대 총학생회 명외), '민족고대 단결하여 진혼
비를 복구하자'(고려대 복교복학대책위원회)라고 써어진 대형
현수막이 드리워졌으며, '강제징집 서러운데 진혼비 철거 웬말
이나' 등이 써어진 피켓들이 여러개 등장한 가운데 허인회(전
고려대 학생회장) 등 학생들이 학교측을 성토했는 목소리를
높였다. 평교수대표로 참석한 윤용교수(신문방송학과), 이상
신교수(사학과)도 학교측을 비판하는 한편 철거했던 진혼비를
즉각 제자리에 복구할 것을 요구해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88년 고려대 총학생회가 들어서자마자 복구해줄 것을 요구
하는 '진혼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진혼비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난 81년 11월 9일 발생한 세칭 '고려대 문
무대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2차례에 걸쳐 문무대에 입소한 고려대 1학년생
들이 문무대 일부 장교들과 마찰, 한 장교가 학생들을 구타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문무
대 운동장에 집결, 군사집체훈련에 반대하는 내용의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를 순서에서 교가를 불렀다. 그후
교육기간중 유격훈련을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다가 퇴소했다.
이 사건으로 학교측은 제적 19명, 무기정학 1명, 직권후학 89
명등 1백 9명을 징계했고, 이들 대부분은 강제징집되고 말았
다.

그후 이들은 '특수학적변동자'로 취급, 전방에서 군복무를
마친 후 85년에 복학하게 되자 자신들처럼 강제징집되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의 진혼비를 만든다. 이 비는 그해
4월 17일 민주광장에 전국학생연합 결성식과 더불어 세워졌으
나, 4개월이 채 안된 7월 23일 밤 경찰에 의해 강제철거되어
버렸다. 문교부가 '2학기 학내 소요에 선별적 공권력 투입'을
발표했던 날이었다. 며칠 뒤 진혼비가 철거된 자리에서 윤용

교수가 퇴약별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자를 놓고 앉은채 '항의성 독서'를 해 당시 신문지상에 화제거리가 되기도 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다 학교를 떠난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학우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던 이 진혼비에는 뒷면에 문무대사건 관련자 1백9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앞면에 의문의 죽음을 당한 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김두황(고려대), 정성희(연세대), 이운성(성균관대), 한영현(한양대), 최은순(동국대), 한희철(서울대)

의문의 죽음 알려지다

그들의 죽음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84년 3월 8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제적생과 해직 근로자를 위한 기도회' 석상에서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식'을 통해 6명의 사망학생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토로했던 것이다.

이미 그 전해인 83년부터 대학가에서는 학업도중 강제로 군에 끌려간 동료대학생들의 신변에 대해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었다. 소위 운동권학생들로 지목되어 군에 강제입영한 대학생들은 최전방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면서 군보안대의 계속적인 감시를 받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건디기 힘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으며 때로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는 것.

당시 이러한 소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믿기 힘든 유언비어로 치부되었을뿐 아니라,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군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83년 12월 21일 학생운동에 대해 탄압 일변도를 견딘 정부당국이 그동안 양산된 제적 학생들에 대한 복교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각대학 복교 대상자들이 결성한 복학대책위원회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마련한 각 대학의 제적생총회 공청회 자리에서 대학생들은 주체적인 강제징집실태와 군에서의 비인간적인 취급, 정보제공 강요, 관계프락치공작 등에 대해 성토했으며, 강제징집당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84년 2월 20일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KSCF)과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가 공동주최한 '진정한 복교를 위한 공개간담회'가 경찰의 장소폐쇄로 무산되자, 이날 간담회

장소인 기독교회관 2층에 미리 들어와 있던 제적학생 1백 40명이 강제징집 철폐와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의 사인 진상규명을 관계당국에 요구하면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들은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등에도 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합동추모식을 거행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제적 학생들의 요구와 호소에 호응하여 한국기독교장로청년회 전국연합회는 성명을 발표, 최초의 공식반응을 보였고, NCC인권위원회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망학생 명단을 발표, 사회문제화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대한가톨릭 학생전국협의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명동천주교회 청년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지도 휴학-강제징집-녹화사업-정보제공강요-의문의 죽음'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과정이 5.17이후 실제로 존재해왔다면 이는 단순히 학원문제나 사회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정치책략화 하는 반민족적 행위이자 한국의 인권상황의 비상사태'라고 판단, 공동조사에 착수하여 '강제징집문제 공동조사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사망자중 5명은 강제징집자들

이 보고서는 서울의 7대 대학(서울대, 성대, 고려대, 연대, 서강대, 외대, 경희대)과 전남대 등 모두 8개 대학의 복학대책위원회의 보고서를 입수 분석하고 보고내용의 사실유무를 확인하는 한편,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사망자의 유류품(편지, 일기장, 유서)을 수집, 분석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당시 나온 여러 조사보고서중 가장 방대하고 내용이 자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고서는 외국 잡지에 번역 게재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군입영중 사망한 학생들에 대한 신원, 사망여부, 입대배경과 과정, 사망 당시의 정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영현(1962년 3월 1일생) 81년 한양대 기계과에 장학생으로 입학, 대학 1학년때 민족문화 연구부에 가입했으나 별 활동은 없었다. 83년 1월 중순경 부친의 야학에서 활동하던 한 선배가 연행, 조사과정에서 한글의 이름이 나와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받음. 조사가 끝난 후 4월1일 수원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녹막음으로 병종 판결, 그러나 이튿날 경찰출두 명령을 받고 나간 뒤 행방불명되었다가 23주후에 한글의 옷이 집으로 우송되어 가족들은 군에 강제징집된 것을 알게 됨. 한글은 입대후 훈련소로 가지 않고 4월 10일에서 18

일까지 직접 군수사기관에서 그동안 활동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5월에 자대 배치받고 6월 18일에 포상휴가를 받아 나왔다가 귀대후 7월 2일 부대로부터 전보로 자살 통보. 몸이 불편한 형이 가서 시체를 확인, 두 개골이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군부대측의 말은 '6월 30일 밤 탄환을 흘려서 다음날 사역도중 오전 10시에 식사하고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으나 조금후 병커에서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것. 사망 당시 21세.

△ 김두황(1960년 5월 23일생) 1980년 고려대 정경계열에 입학. 유복한 집안의 3남3녀중 3남으로 태어나 항상 명랑하고 매사에 성실하여 주위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학년때부터 경제학과 학회를 담당하면서 심포지움 및 강연회 등을 준비하고 학내활동의 활성화 민주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

4학년이 된 83년, 김군을 중심으로 학내 학회 서클 회장들이 축제 및 학도호국단 선거 4.19행사등에 관해 토론했고 그 방향성과 대안등을 계획하던 중 그해 3월8일 성북경찰서에 연행된다. 7-8일 동안 조사를 받고 3월15일 저녁에 석방되었다가 16일 저녁 부모와 함께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 18일 아침까지 미시간 호텔에서 형사들과 동숙.(부모들은 다른 방에 있었다고 한다.) 18일 아침 병무청 직원 1명이 와서 간단히 서류를 작성하고 강제징집되어 ○○○보충대에 입대. 김군의 군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983년 3월 18일부터 6월 18일 사망일까지 약 1백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출 한번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훈련소에서의 훈련성적이 우수하여 사단장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김군의 사망일시는 6월 18일 오후 11시 30분. 6월19일 새벽 군에서 집으로 연락이 와 사고 현장에 가족들(형 두분, 매형 두분)이 도착한 것은 오후 3시. 당시 현장의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일체 함구했으나,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함. 군에서는 '김군이 아침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은 후 저녁에는 밥과 누룽지, 빵 등을 먹고 동료2명과 함께 경계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로 갔다. 근무중 동료에게 '소변보러 간다'고 한후 나가서 잠시 있다가 총성이 났다'고 다시 상황을 설명. 김군의 유품으로 볼펜과 사진 한 장(군에서 찍은 것) 시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고 하나 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망 당시 23세.

총소리를 들었을뿐

△ 정성희(1962년 6월 14일생) 81년 연대 영독물 계열에 입학, 한 서클에 가입하여 활동, 그해 11월 25일 연세대 교내 시위 현장에서 동료 15명과 함께 연행, 5일후에 가족에게 알려지지도 못한 채 군에 강제 입대. 82년 6월 8일 첫 휴가 나와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훈련소에서의 생활과 보안대의 감시등에 대해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 귀대한지 1달후 사망통보가 날아와 정군의 부모는 전방으로 달려갔으나 '82년 7월 24일 새벽 0시 20분경 철책근무 중 목에 M16 소총 4발을 발사해 자살했다'는 통보와 함께, 유서는 없으며 '백양로를 한번 더 걸어보고 싶다. 죽음앞에서 내가 이렇게 담담하다니'등 8줄정도의 낙서만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시체확인시 목 이하는 비닐로 싸여 있어 보지 못하고 얼굴만을 보았는데 매우 깨끗한 얼굴이었다고 한다. 군에서는 당시 전방훈련차 와있던 조선대 2년생이 자살의 목격자라고 했으나, 가족들의 면담 결과 그 학생은 총소리를 들었을뿐 구체적인 상황은 분명히 모른다고 했다는 것. 사망 당시 20세.

△ 이운성(1954년 1월3일생) 5년 1남중 3대 독자로 태어난 이군은 경기고등학교 재학시절 웅변반에 가입, 서울역광장에서 일반인들이 모인 가운데 웅변연습을 할 정도로 활달하며 개방적이었다. 1981년 성균관대 역사철학계열에 입학, 2학년 때 인문과학연구회라는 서클의 회장직 맡음. 82년 11월 3일 학생의날 가두시위때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서클회장이란 것이 밝혀져 11월 7일 새벽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군에 강제 입대. 당시 이군의 부친은 고령(60세가 넘었음)이었으나 3대 독자인데다 시력이 몹시 나빠 보통의 경우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입대후 건강하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3년 1월 10일경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면회갔을 때. 이군은 '내가 여기서 찜밥을 제일 잘먹고 있으니, 걱정말라. 후배들에게 열심히 살아달라고 해라'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 그러나 제대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5월말경 이군의 부모는 군당국으로부터 이군이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는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군이 북에서 날려보낸 뼈라의 일종인 '안전보장증'을 갖고 있다가 발각되어 죽기 직전까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군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끝난 후 자대로 돌아가 혁대로 목을 매 죽었다고 하나, 시신처리나 죽음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가족들은 일체 함구, 자

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사망 당시 19세.

△ 한희철(1961년 2월 11일생) 1남 4녀중 외아들로 태어난 한군은 79년 서울대 공과대에 입학, 서울대 가톨릭학생회와 성남 대학생연합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했다. 82년 4월 2학기 때 휴학을 하고 그해 11월30일 입대, 명량한 성격과 활발한 적응력으로 성실하게 일해 군간부들에게도 호감을 샀다고 한다. 군생활중에 포상휴가를 두 번씩이나 나왔고 정식휴가는 83년 10월 24일경 나왔는데 친구들에게 '늦어도 한달후에는 의가사 제대를 하니 학교를 마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귀대 후 한군은 군보안대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직접적인 계기는 주민등록증 일제갱신때 학생운동으로 도피중인 김무현이란 친구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는 쪽지를 전봉일이라는 방위병 친구에게 부탁하는 편지가 발각되었기 때문. 한군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학 1년부터 최근까지 활동상황에 대한 자술서 40여장을 썼고 5일째 되는 날 반성문과 서약서까지 쓰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한군이 속한 가톨릭학생회 지도신부와 의 면담과정에서 군수사기관이 조사사실을 시인함으로써 밝혀졌다.

그해 12월 11일 자살했다는 연락을 받고 부친이 시체를 확인했을 때 한군이 가슴에는 세발의 총상이 나 있었다고 한다. 군부대측에서는 12월 11일 새벽 4시30분경 보조를 자진 신청하여 M16 소총으로 자살했다고 말하면서 타이핑된 유서를 건네 주었다. 그날 오후에 치러진 영결식에는 자살한 사병에 대한 예우로는 볼 수 없는 군악대와 예포가 동원되었다. 사망 당시 22세.

△ 최은순(생년월일 미상) 81년 동국대 사범대 수학교육과에 입학, 83년 3월말 시위예비모도로 5명의 동료와 함께 경찰에 연행된 뒤 강제징집됨. 입대 후 몇 개월 후인 83년 8월 14일 사망, 군관계자의 말로는 최군이 고참사병과 함께 보조근무중 사소한 언쟁 끝에 시비가 발생, 최군이 '나는 인생이 끝장난 놈이다'며 고참에게 대들면서 총을 뺏으려는 순간 고참이 오발했으며 최군의 목을 관통했다고 함.

국회에서 문제삼다.

대학생들과 종교, 재야 운동단체들이 강제징집과 '의문의 죽음'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민한당 국회의원 김병오씨는 84년 3월8일 121회 임시국회 본회의 석

상에서 성균관대학생 이윤성과 최경식군의 불법적 입영조치 여부, 강제징집 여부, NCC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6명의 사망 여부, 속칭 '녹화사업' 및 관제 프락치공작의 사실여부에 대해 집중질의 했다. 이날 답변에서 권익혁 문교장관은 '5.17이후 데모와 관련 군에 입대한 학생은 모두 4백 65명'이라고 밝혔을 뿐 더 이상 자세한 대답은 하지 못했다.

또한 3월 12일 당시 민한당 국회의원이던 손세일의원이 국회 문공위원회에서 제차 이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권문교장관은 '병역과 군복무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태관련 입영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군복무중에 사망했다는 6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추모집회 잇달아

한편 84년 봄 각 대학과 종교단체에서는 이문제를 여론화하는 집회가 잇달았다. 주요 집회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3월 20일, 홍제동 성당에서 대학생 재적생 유가족 등 1천여명이 모여 한희철군 추모미사 드림.

△ 3월 30일, 서울대 학도호국단은 오후 1시반 교내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학생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희철군 추모제 가짐.

△ 4월 3일, 성균관대 1천 5백여명이 낮 1시부터 동교 금잔디광장에서 이윤성군의 추모식을 갖고 열을 지어 교내를 돈 뒤, 교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경대원과 대치하며 2시간에 걸쳐 교내 시위.

△ 4월 17일 고려대생 2천여명이 김두환군의 추모식을 교내에서 갖고 가두시위.

△ 5월 4일 고려대에서 6개 대학 학원자주율화 추진위원회 공동주최로 강제징집희생자 합동위령제 가짐.

△ 5월 19일 NCC인권위원회 주최로 한국 기독교 청년협의 회동 9개 단체가 영등포 성문밖교회에서 강제징집되어 군에서 사망한 6명의 대학생을 위한 추모예배 가짐

마침내 강제징집문제, 군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6명에 대한 문제로 학원이 들끓게 되자 윤성민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학적변동 군입영자' 사망경위에 대해 처음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했다.

'81년 이후 현재까지 학적변동 사유로 군에 입영하여 사망한 인원은 자살사고 4명, 군기사고 1명 등 5명으로 확인되었

으며, 학적변동과 관계없이 가정사정을 자진 휴학하여 자원 입대 근무중 자살사고로 사망한 1명을 포함한다면 모두 6명이 되겠습니다.'

이어 윤국방장관은 이들의 죽음은 특수학적 변동자에 대한 차별대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심리갈등과 군기사고로 빚어진 불행이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윤성군, 한희철군이 특별한 일과 관련, 군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인정했다. 또한 군입대와 관련, 한희철군에 대해서는 자진휴학, 자원입대라는 표현을 썼던 데 비해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휴학, 입대라는 표현을 써 강제징집에 대한 가능성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

윤성민 국방장관의 답변이 84년 6월 12일자 신문에 보도되자 강제 징집문제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5개 단체와 한국기독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전국연합회 등 8개 단체가 즉각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진상은 규명되어야 한다.'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윤장관은 6명의 강제징집 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근본적인 원인인 소위 '녹화사업'을 은폐한채, 불법적인 강제징집 자체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니, 현정부는 앞으로도 공권력을 사용하여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반문한 뒤 강제징집 불법성의 사례, 녹화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밝혔다. 그리고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의 즉각 중지과 관계책임자 처벌, 윤성민 국방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제징집의 사례

이들 종교, 재야 운동단체들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강제징집과 군에서 사망(자살사건 사고사건)한 6명 학생들의 근본적인 사인으로 규정한 '녹화사업'이란 무엇인가?

강제징집이란 시위현장에서 체포된 시위단순가담자, 뚜렷한 혐의 사실도 없이 문제학생으로 지목당한 학생, 노동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야학활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병역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병무청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신체검사 통지서의 20일전 송달 및 입영명장의 30일전 송달)를 무시당한 채 경찰서에서 곧바로 군부대로 끌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징집 대상자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시위 단순가담자로 경찰에 연행된 경우-이것은 시위현장이나 그 주변에서 사복경찰 전경대원 정제불명의 청년들에 의해 관할 경찰서로 연행, 조사과정을 거친후 곧바로 강제 징집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경찰서에서는 협박과 회유 등으로 입대동의서에 날인을 권유한다. 이 자원입대 서류에 날인하면 이것을 근거로 당일 또는 수일내로 입영하게 된다. 일단 입영된 후 사후처리는 '지도휴학'이라는 학칙상의 제도를 통해 합법화 된다.

84년 4월 12일 기독교회관 2층강당에서 있었던 NCC 인권위원회 10주년 기념예배에서 증언한 황언구씨(79년 연세대 입학)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그때(81년 11월 25일 연세대 학내시위때) 그 학생(군에서 사망한 정성회군)이 사복경찰에 둘러싸여 매를 맞고 있던군요, 저는 키만 크지 몸무게가 별로 안나갑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 자리로 뛰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초를 사이에 두고 저희 머리카락은 누군가의 손에 잡히고 또 팔도 잡히고 몇초 후 자가용이란 데 태워졌습니다. 생전 처음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밤 12시까지 조사를 하면서 뺑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데 한 형사가 무릎을 계속 밟으면서 '이 자식이 너 적극적으로 데모에 관련했지'라고 다그쳐 '아닙니다. 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실제로는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치장으로 보내더군요. 거기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혼방되고 15명이 남아 28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경15명이 나타나 저희 15명을 하나씩 끼고서 닭장차에 태웠습니다. 그 안에서 '군대 가서 고생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문제학생으로 지목되면 강제징집

△ 사찰기관에 의해 문제학생으로 지목되는 경우-강제징집이 학생운동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형태다.

각 대학 관할경찰서, 정보기관 등이 작성한 문제학생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학기중이나 방학기간중의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연행되어 군에 입대된다는 것. 이 때 강제징집 대상에 오른 학생은 이른 새벽 혹은 밤늦은 시간에 집에서 경찰의 기습적 방문을 받고 연행되어 학생활동중에 관한 조사를 받은 후 직권휴학과 더불어 경찰서에서 군에 바로 강제 입대된다.

수색영장도 없이 해당 학생의 집을 살살이 뒤져 노트 일기장 연습장 등의 메모나 낙서 등을 가지고 "유인물 초안이다" "시위의 주동을 계획했다" 등등의 혐의를 씌워 구속시키지 않는 대신 군에 입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근영씨(서울대 80학번)의 얘기를 들어보자.

"83년 봄학기부터 학내에는 강제징집자 명단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주로 지하서를 회장과 시위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로 인문대 11명 사회대 10명으로 알려졌는데, 그 해 여름방학중인 8월경 내무부장관이 각 대학에 명단을 내려 보내고 '데모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안 받으면 군대 보내겠다'는 요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 문제에 대해 인문대 사회대에서는 교수회의가 열려 인문대 찬반동수, 사회대 반대로 부결되면서 그 명단이 학생들에게 흘러나왔다.

당시 대상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다. 나는 10일쯤 지나 춘천 집에 잠시 들렀다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춘천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들이닥쳐 연행되었다. 8월 18일 경이었다. 관악경찰서에서 지도휴학 당하겠느냐, 자의로 휴학을 하겠느냐, 양자 선택을 요구해 자의 휴학을 선택, 동대문 경찰서로 갔더니 나와 같은 경우인 다른 대학생 20여명이 먼저 와 있었다. 그 길로 바로 춘천에 있는 한 보충대로 끌려갔다."

▲ 학생대표로 일한 것이 문제되어 지도휴학된 경우- 학도호국단 간부, 과대표, 혹은 학내행사 준비위원으로 학생들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하려 한 것이 경찰이나 학교당국의 자숙요구와 마찰을 빚어 지도 휴학된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행사도중, 혹은 행사이후에 연행 조사받으며 그 뒤 교수의 권유형식으로 휴학을 하고 군에 입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시위 주동학생이 강제징집 당하는 경우-83년 2학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향이 있는데, 시위 주동학생들을 구속 대신 강제징집시킨 것이다. 이는 80년 5.17이후 연이은 시위-구속으로 수감 학생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정부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악화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 이념서클에 관련되었다든가 야학교사로 일했다는 이유로 지도휴학된 경우-1981년초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을 대량 검거한 소위 '무림사건'이후 학내외의 서클 및 야학 심지어는 교회7대학생부의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어 강제징집된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에 불법 연행되어 수사를 거친후 학교의 지도휴학 조치와 더불어 곧장 경찰서에

서 군에 입대하게 된다. 현재 출판업에 종사하는 H씨(81년 당시 서울대 2년생)가 대표적인 예.

H씨는 81년 1월 무림사건관련으로 남산 및 시경대공분실에 끌려가 10일동안 조사를 받고 '군대 안가면 자르겠다'고 협박하여 할 수 없이 승낙, 군대가는 조건으로 조사를 끝내고 관악서로 이첩되었다. 거기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강제징집 당했다. 그해 2월 4일 통합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신체검사를 했으나 5.2미터로 눈이 몹시 나빴으나 '의사가 좀 쉬고 오라며 눈을 좋게'해주었다. 3미터로 허위 기재한 것. 그때 H군은 형 결혼식도 있고 아버지 생신도 있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가족과 면회만 하고 2월 18일 입대하게 된다. H군의 진술에 의하면 관악경찰서 형사가 '군에 입대하기 위하여 휴학을 원합니다.'라는 휴학원에 H군 도장을 파워서 자기가 찍었다는 것.

그외에 ▲ 교내유인물, 스티커 사건 등에 관련된 경우 ▲ 불심검문에 걸려 경찰에 연행, 조사를 받은 후 강제징집되는 경우 ▲ 학내 활동과 관련 유기 및 무기정학 등으로 처벌할 대상자들을 처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교수와 경찰이 종용하여 자진 휴학 형식으로 군입대시킨 경우 등이 있다. 마지막 경우는 반드시 강제징집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일종의 지도휴학 범주에 속한다.

신체 결함자도 징집

정상적으로 학적 변동이 되어 군에 입대하는 학생들의 경우와는 달리 '특수학적 변동자'로 강제 징집된 학생들의 경우 주목해야 할 사실은, 신체상 결격사유가 있거나 가정환경상 정상적인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입대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강제입대시킨 점이다. 앞서 학내시위와 관련 강제징집된 황인구씨는 시력이 나빠 방위대상자였는데 현역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병역수첩에는 방위편성대상자로 되어 있고 복무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제대증에는 3년 동안 현역으로 군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보충대에서 신체검사를 하는 중에 나타난 것인데, 저희들(강제 징집된 15명의 연세대생)중에는 골수염수술을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말쑥해 보이지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군요. 군의관들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된다고 한 것이 7명이었습니다. 15명중에는 3대독자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안된다고 평가를 내렸는데도 군의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더니만, '안된다 애들은 군대에 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 체정상(83학번 고려대 경제학과) 83년 4월 15일 교내시위 단순가담과 관련 징집, 신체검사 다시 체중이 징집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관이 체중을 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기재. 2대 독자로 보충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전방에서 근무하다 6개월후 의가사 제대.

▲ 최창환(81학번 고려대 경제학과) 석탑 축제시위와 관련 83년 5월 징집. 홀어머니(당시 51세)의 외아들로 징집 면제대상자였는데, 현역으로 임명. 84년 2월 23일 의가사제대.

▲ 이정록(83학번 고려대 경제학과) 83년 5월 26일 가두시위 단순가담으로 징집. 중학교까지만 해도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소아마비자였음. 5월26일 강제징집 당시에도 육안으로 구별될 정도의 이상이 있었음.

▲ 이재현(80학번 고려대 철학과) 83년 9월 26일 교내 유인물 배포 혐의로 징집. 83년 4월 신체검사이시 시력과 충충증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강제로 병무청 직원이 가지고 온 영장에 지장을 찍게하고 입대시킨.

▲ 이정철(83학번 고려대 사학과) 83년 11월 2일 교내시위 단순가담과 관련 징집. 65년생으로 강제징집 당시 병역법상 연령미달(징집연령은 19세인데 18세였음)

▲ 최경식(81학번 성균관대 국문학과) 83년 3월 30일 문제 학생으로 지목되어 징집. 당시 키 153cm 43kg으로 신체조건상 군에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집되었으나, 군대내에서의 신체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아 경찰서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경찰은 며칠동안 연금상태로 두었다가 다시 군에 입대시켜 형식적인 신체검사를 거쳐 현역으로 입대시킨.

이외에도 간질환자, 간염환자 및 평발, 신장초과 등으로 현역입영대상자로는 보기 어려운 학생들이 강제 징집된 경우도 있다.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84년 5월 2일자 [대학생 강제 징집문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국방부 장관앞으로 발송, 연령미달자, 신체상 부적격자, 보충역대상자들이 병역법상의 절차와 기준이 무시된 채 강제징집된 사실 여부와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에서는 회신 공문을 발송, [...다만, 본인이 군입대를 희망하거나 학교 및 연수과정에서 제적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징집연기 사유가 소멸되므로 병역법 제19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 부과는 오로지 법률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라고만 대답했

다.

[녹화사업]이란 무엇인가

결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강제징집자에 대한 조기입영조치의 합법성은 [제적이나 휴학처분]의 경우에 가능하다는 논리인데, 여기에서 언급된 휴학처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이 이른바 말쑥했던 [지도휴학제]이다. 80년대초 서울의 주요 대학의 학칙을 조사해보면 내용은 다소 상이하지만 모두 지도휴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조항은 79년 10월 서울대에서 제일 먼저 학칙에 신설하였고, 그후 각 대학이 공통적으로 학칙에 삽입하였는데, 문교부의 지시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조항은 대부분 학생본인의 의사나 객관적 판단기준 없이 총장이 직권으로 직접 휴학을 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소위 [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감동적인 명문으로 정평이 나있는 유시민씨(80년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 의장)의 향소이유서에 주목할만한 기록이 있다.

[...제대를 불과 두 달 앞둔 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사업] 또는 [관계프락치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벼를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數百 특변자(특수학적변동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대에 대한 공포감을 이겨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그로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사람들에게는 별거송이 산을 푸른나무로 채우려는 산림청의 사업정도쯤으로 이해될법한 [녹화사업]이란 용어는 여러 당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학생운동에 대한 정보입수와 탄압을 위한 수사기관의 순화 및 공작 사업을 총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특수학적변동자]로 처리돼 강제 징집된 학생들은 대부분 최전방에 배치돼 순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이들을 관리하는 군보안대는 반체제 반정부의식에 물든 이들 운동권학생들을 일단 [좌경 용공분자]로 규정하고 그들의 [붉은

색깔에 가까운 의식을 푸르게 녹화시킨다]는 것이 소위 [녹화사업]의 [기본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국군보안사령부는 82년경부터 녹화사업을 전담하는 특별 심사과를 신설, 순화사업과 프락치 공작사업을 병행토록 했으며, 이 목적을 위해 정규대학 출신의 중위급 단기장교를 선발, 특수학적변동자들이 복무하던 전방 일부 사단에 배치, 녹화사업을 담당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화사업의 내용은 가정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 대학생활까지 전과정을 상세히 쓰게 할 뿐 아니라, 대학서클에서의 의식화과정 세미나 내용 자신이 읽은 소위 이념서적이 내용요약 등 방대한 분량의 자술서를 쓰게 하는 것이 첫 작업이었다. 일종의 의식상태를 심사하는 작업인 것이다. 81년 강제징집되어 녹화사업 대상자였던 H씨(28세 출판사원)의 말을 빌면 [뇌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은 모조리 다 털어 놓아야 자술서 쓰는 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 및 과천의 보안사 분실 및 각 지역 보안대에서는 이들 특수학적변동자들을 재심사(A급은 서울, B급은 지역보안부대에서 실시)하여 순화작업에 들어간다.

관제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

순화작업은 국가관이나 특별주제에 관한 글을 쓰게 하거나, 남북 분단현실에서 반공의식 강화의 필요성과 사회안정의 중요성을 역설, 정부나 체제에 비판적인 의식을 안보논리에 입각한 체제긍정적 의식으로 개조해 나간다. 이 때 대부분의 특별자들은 순화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쓸 뿐 아니라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비판의식을 무너뜨려 가치관의 혼란과 자신에 대한 모멸감에 빠지기도 한다.

“오로지 살아 남아야만 한다는 판단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가치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3년에 강제징집되었던 K씨(27세, 회사원)의 이야기다.

강제징집 학생들은 짧으면 보름, 길면 두달까지 이러한 순화를 위한 재심사를 받아서, 일단 순화되었다고 판단되면 반성문과 서약서를 쓰게 된다고 한다. 반성문은 대개 자신의 대학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서약서는 보다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일체 입밖에 내지 않겠으며, 만약 누설하게 되면 군기법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며, 사후 보안사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에서 눈 딱 감고 지장을 찍어 버렸다”는 이 증언자가 회상한 서약서 내용요지이다.

그러나 이들 앞에는 이보다도 훨씬 힘든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순화]된 학생에게 관제프락치 임무를 부여하여 정보수집에 활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휴가형식으로 사회에 나와 재학시 활동하였던 서울 선후배를 만나 활동상황, 학원전반의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집된 학생들은 군대라는 조직사회속에서 협박과 회유, 고문 등으로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공포와 친구들을 배신해야 한다는 양심의 갈등으로 매일 매일을 보내야 한다. 구체적인 체험을 들어보자.

현재 노동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C씨(27세)는 82년 9월 20일경 밤늦게 집에 들어와 막 잠자리에 든 순간 들이닥친 K경찰서 소속 형사 2명에 의해 연행된다. 이 때부터 그의 운명은 강제징집-녹화사업의 [덫]에 걸리게 된다.

잠자리에서 연행된 C씨

그는 당시 S대 3학년으로 공개서클의 랑을 맡아 학내 주요 공식집회의 실무를 맡아왔다. 82년 여름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으로 국내에서는 일본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대학가에서는 민족 자주성을 각성시킨다는 의미에서 2학기 시위의 주요 이슈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서울시내 각 대학들은 9월 25일을 D-DAY를 설정, 광화문시위를 결의했고, S대의 경우 C씨가 여러 학내 공개 서클의 장들과 함께 계획을 짜는 등 실무를 맡았던 것이다.

C씨가 특별히 경찰 정보요원들로부터 주시당했던 것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개집회에서도 C씨가 기록을 담당했던만큼 정보요원들의 눈에 쉽게 띄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연행 즉시 K경찰서 2층 취조실에 내팽겨쳐졌다. 2, 3평 되는 방에는 매트리스와 책상 하나뿐이었다. “다 알고 있

어. 어떻게 결의문이 나왔지?”라는 질문과 함께 형사는 C씨의 몸수색을 시작, 광화문시위 준비내용이 촘촘히 적혀진 메모용지를 발견했다. C씨는 그 때 속으로 ‘끝장났구나’ 생각하며 굉장히 당황했다고 한다.

“누구랑 모의했지?”

그는 동료들의 이름을 들먹일 수밖에 없었다. 거명된 동료들은 이내 경찰서로 연행되고 이어 눈을 붙일 틈도 없이 분리심문에 들어갔다.

“배후조정선이 있으니 대!”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의논한 것이라며 완강히 거부, 따귀를 맞고 앞뒤로 뺨쳐자세로 몽둥이 세례를 받았다. 그후 전투경찰 1명이 지하실로 끌고가 이단 옆차기로 차고, 쓰러지면 짓이겨 버리는 등 실신할 정도로 구타를 당했다.

“크게 소리내어 울기도 했고 복부에 맞으면 속이 뒤틀려 호흡하기도 힘들었어요. 30분정도 실컷 맞고 난 후 할 수 없이 굴복하고 말았어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자 담당형사가 들어와 식당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쇠고기요리를 먹였다고 한다. 조사가 끝난 후 그는 잡혀 온 다른 동료들과 함께 큰 방으로 옮겨져 비교적 습통을 트고 생활하다가 입대권유를 받는다. 시위에비음모죄로 구속될 것이냐, 군대에 갔다 올 것이냐 양자택일 하라는 것. C씨는 징집영장에 지장을 찍었다. 그 다음날 아침 C씨와 동료친구들은 경찰서에서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춘천부근의 000보충대에 입대, 군생활을 시작했다.

“이 정도 고문은 약과야”

사단에 배치되어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C씨는 훈련 4주가 지난 어느날 아침 “명찰을 단 A급 군복상태에서 대기하라”는 대대장의 지시를 받았다. 대대장과 함께 짚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화천읍내에 소재한 사단보안대. C씨는 사단보안대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보안대 짚차에 갈아타야 했고, 그 짚차는 경춘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C씨는 서울 종로에서 내려 사복차림의 사단보안대 중사와 함께 택시를 타고 S동 어느 양옥 대문앞에 도착했다. 사단보안대 중사는 C씨를 인계한 후 돌아가버리고 보안사분실 기간 병 1명이 나타나 C씨를 데리고 들어가다가 갑자기 복도에 세운 채 마구 구타, C씨는 사정없이 두들겨 맞았다.

C씨는 사무실로 끌려가 위관급 장교와 대면, 고향, 본적, 가정, 학교 생활 등에 대한 형식적인 심문을 받은 후 어느 서클 어느 교회에서 활동했는지 질문받는다. 서울 이름을 대지 않고 얼버무리자 불호령이 떨어졌다.

“바른 말 안해? 정신차려야겠군. 취조실로 데리고 가”

취조실은 방음장치가 되어 있었으며, 양변기 침대 책상이 바닥에 놓여 있었고 높은 창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고 한다. C씨는 군복을 벗기우고 계급장도 명찰도 없는 군복으로 갈아입혀졌다.

“이 자리는 80년도 ×××가 죽도록 고생했던 자리다. 여기가 어딘줄 아나?”

C씨는 취조시작 무렵 오갔던 대화를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했다. 그 순간은 도저히 잊을 수 없다는 것. 저녁식사 후 취조요원 2명이 들어와서 본격부터 다시 묻기 시작, 지하서클 및 야학과의 관계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 취조요원들은 C씨가 서클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계속 물고 늘어졌고 C씨는 자신이 은밀히 관여했던 지하서클만은 보호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완강히 거부했다. 앞뒤로 뺨쳐 자세에서 계속 몽둥이질질을 가해도 C씨가 계속 거부하자 다른 사람들을 호출, 4,5명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다.

“1초내로 옷벗어”

C씨는 겹싸게 옷을 벗었다. 그러나 펜츠만은 벗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자 “다 벗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알몸이 된 C씨는 L자 형태로 누린 채 다리를 올리웠고, 취조요원들은 발바닥을 패기 시작했다. 그는 그 아픔은 견딜만했으나 옆방에서 들리는 비명소리에 공포심이 더했다고 한다. 계속 지하서클에 대해 모른다고 하자 취조담당요원은 “이 정도는 약과다. 지하실에 내려가 전기고문을 받으면 고생할 것 다하고 결국 볼게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C씨를 일으켜 세우더니 지하서클에 가입한 한 후배의 이름을 대며 “너 알지”라고 기습질문을 했다고 한다.

취조요원이 질문한 그 이름은 한 공개서클의 이름이었는데 마침 후배이름과 일치했다. C씨는 이들이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후 C씨는 지하서클에 가입한 날짜, 인맥, 세미나 내용 등을 자포자기 상태에서 소상히 밝히게 된다. 다음날 취조는 다시 시작되었다. 세미나 내용 선후배관계 활동사항 의식화내용 등을 모조리 쓰기 시작, 4일 동안은 꼬박 쓰고 고치는 작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야학과의 관계에 대해서만은 전혀 모른다고 부인, 더 이상 조사는 진행

되지 않았다.

일단 조사작업이 끝나자 고위급 간부가 와서 “앞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하라”고 훈시한 후, 순화작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6일째 되던 날이었다.

“너는 간첩은 아니지만 간첩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봐줄테니까 잘 협조하기 바란다”

취조요원은 이렇게 말한 뒤 국가관, 통일문제 등에 대해 소견을 쓰게 한 뒤 C씨가 자신들의 논리를 따르도록 유도했다. 위압적인 분위기가기도 하지만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C씨는 순화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조사는 끝났으나……

보안사본실에 들어간 지 2주 후, “그동안 고생했으니 호텔 같은 데서 좀 쉬다 가라”는 말을 들은 뒤 지긋지긋했던 보안사본실을 C씨는 떠나게 되었다. 눈이 가려진 채 승용차에 합승한 C씨가 끌려간 곳은 서울 종로 4가 세운상가 뒷편에 있는 모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들어간 집은 사복차림의 일반기간병 1명이 상주할 뿐 어느 가정집과 똑같았다고 한다.

하룻밤을 자고 난 C씨에게는 충격적인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바 프락치가 되어달라는 것.

“지금까지 반성문도 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학생운동은 일종의 이적행위인데 네 친구들이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너는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정말 그렇다면 증명을 해야 한다. 학생친구들을 만나 보라. 그들로부터 학내 동향을 듣고 와서 보고하라. 너는 혼자 나가기 때문에 너의 행동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항상 너를 지킨다. 탈영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를 믿고 보낸다. 잘하라.”

시내로 나온 C씨는 미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버스를 4번 갈아탔다. 맨 마지막에 내리고 맨 마지막에 타는 행동을 계속 반복, 미행자를 떨쳐 버리려는 것이었다.

그 길로 C씨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군대로 강제징집된지 얼마되지 않아 집에 나타난 자식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불안의 눈빛을 보내는 가족에게 C씨는 군대에서 근무성적이 좋아 포상휴가를 받았으며 안심시킨 후 하룻밤을 잤다. [영원히 깨어나기 싫은 잠]에서 깨어난 C씨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가야 했지만 죽어도 가기 싫어 전날 밤에 전화했던 친구 K군을 학

교 근처 다방에서 만났다.

그는 몇가지 학생활동 계획을 K군으로부터 들은 뒤 경찰에서도 이미 파악하고 있는 정보 몇 가지를 갖고 모 아파트로 돌아가 보고했다. 이날 C씨는 서약서를 쓰고 마침내 귀대하게 된다.

사단보안대에서 2박3일 편하게 지낸 C씨는 소총수로 전방에 배치, 철책근무를 서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C씨는 산을 내려오면서 굴러 떨어졌다. C씨는 그렇게 되기를 속으로 원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머리가 터지고 이마가 찢겨진 C씨는 응급치료를 받고 특별휴가를 1주일 받았다. 사단보안대 모 중사는 서울 모 아파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서울가서 연락하라고 했다. 서울에 도착한 C씨는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연락, 한 다방에서 먼저부터 자신을 취조했던 요원을 만났다. 그 요원은 C씨를 모 아파트로 데리고 가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S대 시위요주의 인물인 K.O.Y군을 군에 입대시켜야 되는데 그놈들이 미리 알고 도망을 쳐버려 잡을 수 없다. 너의 친구들이니까 무조건 찾아 보고하라’

두 번째 프락치 공작

서술이 퍼된 요원의 표정에 주눅이 들어 일단 알았습시다. 고 대답한 후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한다. C씨는 지난 7월 첫 정식휴가때 나와, 같은 서클 친구, 선후배들을 수소문해보니 지난번 취조때 자신이 이름을 댄 사람들이 이미 수배되어 소위 ‘도발이’ 중인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워 했는데, 또다시 그들의 끔나불이 되어 친구들을 배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죽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자신이 살아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로 고민하다가 집에서 5일을 보냈다. 학교에는 한번도 가지 않고 정 답답하면 창경원동에 가서 배회하기도 했다.

5일후, C씨는 다시 모 아파트에 들어가 누구누구를 만났는데 그들도 모른다더라는 식의 거짓보고를 올렸다. C씨의 표현에 의하면 일종의 태업을 시도했다는 것. 그들은 몹시 신경질을 내며 고함을 질렀지만 C씨는 자신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 보고가 전부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호소, 겨우 모면했다고 한다.

특별휴가가 끝날 무렵 C씨는 집에서 귀대신고만 하고 도주

하듯 자대로 복귀했다. 그동안 C씨는 자신이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대상임을 최대한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그 이후 더 이상 시달림을 받지 않고 그는 제대한다. 83년 말부터 유화국면이 되고 군에 강제징집된 6명의 죽음에 대학가와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녹화사업’의 기세가 수그러 들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C씨는 다음과 같은 말로 당시의 체험을 정리했다.

‘제대 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군에서 있었던 악몽 같은 체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의연히 대처하지 못했는가라는 적절한 패배감과 자신에 대한 혐오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죽어서는 안되겠다는 일념으로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나름대로 성실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일은 치욕적인 나의 경험을 보상해야겠다는 의지를 오히려 불태운 셈입니다.’

5·17 직후 끌려간 K씨의 경우

K씨(30세, 서점경영)는 80년 5.17 당시 지방 G대학의 학원자율화 추진위원회 언론분과위원장이었다. 5.17 전국 계엄령 확대실시 때 학교에 군이 진입했으나 마침 외부에 있어 연행되지 않았다. 그후 계엄당국의 수배를 받다가 80년 5월 30일 전북부안의 어느 콩나물 공장에 근로자로 취직해 있다가 전주 보안대로 잡혀갔다. 사단소속 보안대 지하실에서 1주일 동안 학내 활동에 대한 일체의 조사를 받고 한달동안 헌병대의 영창생활을 했다. 하루종일 무릎을 꿇고 생활해야 했으며 보안대로 끌려가 조사 받을때는 군화발에 온몸이 짓이겨져야만 했다.

한달간 조사가 끝난후 석방되었으나 3일만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8월17일자로 학교에서 제적통지가 왔고 신체검사도 없이 9월 4일 강제입대된 것이다. 논산훈련소에서 4주 교육을 받은 K씨는 경기도 연천부근의 한 포병부대에 배속된다. 특수학적 변동자로 낙인이 찍힌 그는 데모하고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사들에게 구타당하기도 했으나 잘 견디어나갔다.

그러나, 83년 1월 느닷없이 포대 본부에서 휴가증을 끊어줘 나가보니 정문 앞에서 쫓아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사단 보안대에 도착한 K씨는 그곳 조사실에서 녹화사업을 받게 되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낱알이 다 쓰라고 요구, 3일 정도 걸려 백여매의 ‘강제 자서전’을 쓰게 된다.

대학시절부터 특히 상세한 기술을 요구, 생각나는 것은 모두 쏟아놓아야 했다. 대학시절 시위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방화행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의식화 과정, 조직적 연계를 கே물었다. 자술서를 쓰다가 앞 뒤 문맥이 틀리거나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발가벗기고 권총으로 위협, 극도의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 구타, 몽둥이 세례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특히 K씨는 상당한 기간동안 군대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써야 했다.

놀라운 일은 K씨가 평소 동료 사병들에게 이야기한 것들이 이미 상세히 보고되어 있었다. 한번은 K씨가 동료사병들에게 농담조로 ‘때려잡자 김일성’ 구호는 몇 십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데 좀 세련된 구호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했던 것이 이미 보고되어 자료로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철저히 감시당했던 것이다.

취조방향은 K씨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다. K씨는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한다고 인정하게 된다. 일단 ‘빨갱이’로 규정된 것이다. 그때부터 K씨는 자기해체과정을 겪어야 했다. 국가관, 민주주의에 대한 K씨의 평소 소신은 깡그리 몽게지고 그들의 논리에 따라 ‘의식을 바꿔나가야’ 했다. 월남전의 성격에 대한 평가, 백기완씨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대공계장은 주로 언급했다.

일단 조사가 끝난후 술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자리에서 K씨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발언을 무심결에 해버려 다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달반동안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주로 군내부에서의 발언에 대해 집중조사를 받았다. 중간중간에 ‘한민족의 용트림’ ‘김일성 정치비사’를 읽고 감상문을 쓰게 한 뒤 자신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다시 구타, 권총 위협 등이 계속됐다. 결국 똑같은 책을 7번 읽고 그 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모조리 암기하게 되자 각서를 쓰게 했다. 이제까지 생활을 반성하고 국가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K씨는 이것을 ‘자기해체과정’이라고 표현한다.

녹화사업은 인간을 파괴

그후 1달반 정도 지나 보안대에서 한소령이 와서 보안사에 입사할 것을 권유했다. K씨가 소기의 목적대로 순화된 것으로 판단, 이제는 더 이상 음지에서 생활하지 말고 밝은 양지에 나와 일하자는 것이 요지였다. K씨는 ‘그것만은 죽어도 못하

했다. 고사를 하고 싶으니 제발 봐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고 한다.

보안대에서는 그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프락치가 될 것을 요구했다. '너희 동료들이 어둠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올바르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했다. ▲ G대 지하유인물을 가지고 오라 ▲ 친한 친구들이 어떤 조직에 가입했으며 활동하고 있는지 보고하라. ▲ 대학의 지하서를 조직계보를 파악해 오라.

'이것을 해야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마지막 부탁이다. 나가서 네 마음대로 활동해도 좋으나 끊임없이 관찰당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친구를 팔아야 된다는 생각에 K씨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한다. 휴가를 나온 K씨는 고된 끝에 공개유인물을 몇장 입수하고, 한 친구와 상의 끝에 이미 공개된 교회 조직의 계보를 파악, 귀대후 보고했다. 보안대에서는 '이것밖에 조사 안해 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시큰둥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1주일에 한번씩 만나 계속 의식상태를 체크해 가곤 했다고 한다.

그후 K씨는 보안사와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다짐을 받고 제대하게 된다. 제대후 학교에 복학한 K씨는 상당한 기간동안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양심적 고통을 겪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가 85년 학내시위 때부터 다시 학생운동에 나섰고 그후 재야운동에 참여, 집시법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녹화사업이란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인간을 파괴해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녹화사업 대상자 중 상당수가 무기력과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를 누가 보상해 주겠습니까.'

K씨의 말이다. '83년 강제징집된 6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84년 국회에서 논란이 일자 보안사는 녹화사업을 일단 포기하고 심사과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로 84년 경부터 강제징집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84년부터 특수학적 변동자들을 공식해체했으나, 입영복부종인 기존 인원과 강제징집된 학생은 아니나 문교부가 이른바 '관심지도 대상자'로 분류한 운동권 학생으로서 입대한 사병들에 대한 관리 및 순화 업무는 타처로 이관되어 계속되었으며 녹화사업은 한결 완화된 형태의 선도업무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87년에 일어난 김용권 사망사건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권군도 프락치 강요당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떠들썩했던 87년 2월 20일경, 미군카추사 부대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권군의 경우도 일종의 '녹화사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군당국과 NCC인권위에서는 자살이나 타살이냐는 문제로 날카롭게 대립, NCC의 김상근, 김동완 목사와 류태선 간사가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구류를 살게 된 이 사건은 유가족의 '타살됐다'는 강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군 군의관의 시체부검결과 자살로 인한 질식사로 결론이 났다.

군부대에서 제시한 자료로는 김군이 정신병 경력이 있고 병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하나, 가족측에는 김군이 인척인 보안대 추봉엽상사에게 고문당했다고 진술, 사인에 의문을 표시했다.

김군의 경우 자원입대했지만 운동권 학생으로 지목,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김용권상병 의문사건'에 대한 조승형, 김상철 변호사의 1차 조사보고서중 군보안대와 관련된 부분이다.

▲ 조사결과

김군은 86년 8월3일 포천군 소재 8사단 보안부대 행정계장 추봉엽상사의 요청으로 위 보안부대를 방문하였는데 다시 추상사로부터 군복을 벗고 서울대로 돌아가 프락치 노릇을 하면 충분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아울러 민민투 83학번 수배자의 소재를 대달라는 제의와 강요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탓으로 보안대 근무자로부터 사정없이 구타당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과 본건사망과의 사이에 분명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확인사실

프락치 활동권유와 83학번 민민투 관련자 소재수사(가족, 친구주장)로 86년 8월 8일 14시 10분부터 18시 30분까지 포천 보안대에 체류하였음.

8월 3일 직후 5일경 종로5가 인근 지역으로 김군이 어머니를 불러내어서 추상사로부터 프락치활동을 권유받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추상사에게 어머니가 프락치가 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한적이 있느냐고 물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매우 격분하여, '추상사 그 자식 야비한 놈, 나를 이용하여 출세하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함. 그후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추상사를 도저히 용서 할 수 없다. 반드시 복수하겠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병원을 출입하는게 다 추상사 때문입니다.'라고 반복 했음.

홍태룡(제2공병안 44대 중대 2소대)의 진술서에 의하면 '용권이 9월쯤 포천에 친구 면회간다며 나갔는데 며칠 뒤 동료 임차택 병장한테 보안대에 끌려가 7시간동안 발가벗긴채 맞았다고 얘기한 것을 이번 사건후에 들었다'고 함.

김군 사망 후 허병화(카추사로 근무경력이 같음)는 얼마전에 김군이 '의정부 보안대에 들락달락하고 있는 처지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김군의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함.

위에서 언급된 사실을 미루어보면 김용권 역시 녹화사업이 변형된 일종의 프락치 공작 대상자였음을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김군의 모친 박명선 여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생전에 용권이 그러는데 포천 보안대에서 추상사가 용권을 타달하자 곁에 섰던 두 장교급 사람들이 뺨을 엮는 것 뺨을 엮는데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녹화사업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남용, 이 나라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군 자체에 대한 회의를 조장, 정권유지의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려울 것같다. 앞으로 녹화사업의 전채상이 제대로 국민 앞에 공개되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6명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진상은 밝혀져야 할 것 이다.

그렇게 해야 문제학생으로 지목되어 강제징집당한 사람들의 인간으로서의 감당키 어려웠던 정신적 육체적 상흔도 회복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혼비 복구대회에 참석했던 고려대 이상신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설사 군에 강제징집된 젊은 대학생들이 자살했다 해도 그것은 죽은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유지를 위해 영향력 있는 학생들을 분리 이간질 시키고 죽음의 구렁텅이에 처넣었던 것입니다. 학교당국에도 책임이 큼니다. 어린 학생들이 군에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책임회피에 급급했습니다. 교육자로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시대가 저지른 범죄에 적극 가담한 공범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관련자료 3 강제징집 실태보고서

1984년 3월 8일
고대제작학생복고대책위원회

서론

반의세,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서있던 이 땅의 학생운동은 1980년 5월17일 이후 모진 시련을 딛고 더욱 더 성장하여 민주주의와 민족자존의 쟁취를 위하여 군세에 싸워왔다.

어떠한 탄압도 정의의 사랑을 갈구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억누를 수 없으며 어떠한 폭력도 반드시 패배하고 만다는 역사적 진리를 우리는 믿으며, 80년 이후 학원탄압의 새로운 제도적 장치로서 학원을 억눌러온 강제징집 문제를 파헤치고자 한다.

1971년 교련반대운동 당시 위수령 선포와 함께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학생을 군으로 끌고간 이후 정부는 소위 강제징집을 자행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학원탄압의 도구로서 호도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학생들은 언제 군에 끌려 갈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대학생활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80년 이후 학칙개정을 통한 지도 휴학제도의 확립과 이를 이용한 경찰의 폭력적 강제 징집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입대한 민주학우들을 인간외적 상황에서 신음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강제징집은 학교와 경찰 그리고 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실시하는 조직적 학원 탄압이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병역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불의의 옥고를 치른 학우들을 또다시 강제 징집하려는 정부의 음모가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 동안 자행된 강제징집의 실태와 이로 비롯된 우리의 학우 김두환군의 죽음을 파헤쳐 강제 징집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문

1. 지도휴학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79년 10월 각 대학 학칙에 지도 휴학 조항이 신설되었다. 고대의 경우 학칙 제 23조 2항에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장의 제의에 따라 총장이 직접 휴학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바로 이 조항이 민주 학우들의 강제 입영을 합법화 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이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학업을 정상적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판단은 누가 내리고 있는가?

그것은 총장도 학부도 학생 자신도 아닌 학원 사찰기관이다. 소위 '문제학생'으로 지목된 사람 혹은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였거나 구경중에 경찰서로 연행된 학생들이 경찰의 폭력과 협박 아래 자원 입대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그는 곧바로 군에 입대하게 되고 지도휴학조항이 사후적으로 적용되어 이를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도 휴학조항이 학내 민주화운동과 학원의 자율성을 근거에서 말살하기 위해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폭력적 조항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다.

지도휴학제도의 희생물이 된 학생들은 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배울 권리를 빼앗긴 채 군대에 끌려가 특별한 학적 변동자로서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해야 한다. 더욱이 이 지도휴학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더 조직적으로 활용되어 '문제학생'들을 학기중이나 방학기간 중에 무더기로 입대시키는 놀랄만한 사태를 야기 시키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배울 권리를 무시한 채 학생들을 죽음의 위협속으로까지 몰아넣는 이 지도 휴학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한 허구일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원 정치의 시너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 휴학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2. 강제 징집의 유형별 분류

강제징집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1. 문제학생으로 지목되어 지도 권고 휴학을 당하고 강제징집 당하는 경우 2. 시위에 단순히 참가하거나 구경했다는 이유로 연행되어 강제징집

당하는 경우 3. 83년 2학기에는 시위 주동 학생도 구속 대신 강제징집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 문제학생으로 지목되어 지도 권고 휴학 당하고 강제징집 당하는 경우

우리 고대의 경우, 82년 12월 정성한(철학3), 83년 2월 이강조(식물보호3) 83년 3월 김두환(경제4), 양창욱(사회4), 그리고 83년 여름방학중 소위 17인 사건등이 있다.

17인 사건이란 83년 여름방학중 학내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문제학생이란 지목 명단을 작성하며 지도 교수를 통해 군입대를 권했던 사실을 말한다. 83년 8월 10일경 이들은 지도교수와 면담을 통해 군입대 권고를 받았거나, 학내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라는 하였다. 이들은 학생처장과 이 대담을 통해서도 군입대 문제를 학생 자의에 의한 것으로 하고 학내 활동을 하지말 것을 권유하였으며 군입대전의 출처를 말하기를 꺼렸다.

이들후 해당자 7-8명이 차후의 문제를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고 다음날 비민주적 강제징집 조치의 철회와 아울러 차후의 강제징집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 연서하여 학생처에 제출했으나 반려 되었고 8월말경 4명의 동의 형식 군입대 조치 됨으로써 이문제를 매듭지어졌다. 이 한가지 사건만으로 보더라도 심각히 드러나는 문제점은 학교당국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이고 또 법적인 죄를 짓지 않은 학생들을 마음대로 학업을 중단케 하여 군대에 보낸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시위 단순가담으로 강제징집 당하는 경우

83년 5월 26일 교내 시위 당시 교내에서 시위를 구경하고 있던 강유성군(사회학과4년)은 그의 얼굴을 알고 있던 사복 형사에게 무단 연행되어 경찰에서 일주일씩이나 조사를 받고 아무런 혐의가 없음에도 강제징집 당했다. 이들이 강제 징집당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경찰서에 연행된 후 할 수 없는 협박한 분위기 아래 스스로 군입대를 원한다는 각서를 강제로 쓸 것을 요구 받으며, 이러한 강제적 폭력적 수단으로 각서를 받아낸 경찰은 학교에서 사후 지도 휴학을 시키고 동시에 가족과의 면회도 시키지 않은채 그대로 군입대 조치

를 취한다. 이 경우 시위 단순 가담자가 모두 강제 입영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 입영대상은 씨클원이나 학회원일 때 또는 형사가 얼굴을 알고 있거나 문제인물로 지목을 받고 있을 때 대부분 군대를 보낸다. 이를 보면 군입대를 학원 탄압의 수단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예) 82년 11월 2일 학생의 날 시위에서 진창원(법학3)외 2인

83년 4월 15일 시위에서 이상기(경제2), 채정상(경제1)

83년 5월 18일 이재구(사회3), 조항익(사회3), 오동건(사회2), 권주(사회1)

83년 5월 26일 강유성(사회4), 박기정(사회3), 하행민(경영4), 박홍렬(철학2), 박채규(정의2), 손희심(경제2), 이현찬(농경3), 이정록(경제1)

83년 11월 2일 홍윤기(중문1), 김정우(독문2), 김창현(사회3), 이정철(사회1), 김희성(사회1)

(3) 시위 주동학생이 강제징집 당한 경우

한편 83년 2학기에 들어서서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문제학생이나 시위 단순가담자 뿐만이 아닌 시위 주동도 또한 강제 징집 당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80년 5.17 이후 연이은 구속으로 재감 학생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정부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악화됨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2년 6개월이라는 긴 군복무 동안 끝없는 특별교육과 고문을 통해 민주적 의지를 말살시킬 수 있다는 효과를 고려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로 학원탄압의 수단으로 구속보다 강제입영이 더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원탄압이 훨씬 심각한 형태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 경우로는 83년 9월 26일, 교내 유인물 배포 혐의로, 이재현(철학4), 강재형(중문4), 안순준(건축2), 83년 11월 17일 시위 주동 혐의로 정용화(영문3), 박은홍(사회3)등이 있다.

3. 중요 사건별 분류

81년 11월 문무대 사건과 83년 5월 축제전으로 인해 강제 징집 당한 숫자는 엄청나다. 이 두 사건만으로도 총 120여명

이 불법적 피해를 입었다. 다음은 사건의 요지이다.

(1) 문무대 사건

이는 1981년 11월 9일 병영집체 훈련에 참가한 100여명에 달하는 나이 어린 1학년 학생들이 강제징집된 사건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인권유린 사태들이 이 땅위에서 스스럼없이 자행되고 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 또한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진정한 교육이란 무엇이고 스승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문무대 사건의 발단은 훈련장에 모인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를 시간에 교가를 부른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그 당시 스피커의 불량이 초래한 어수선한 상태속에서 대열의 뒤에서부터 시작된 교가가 점차 퍼져갔던 것이다. 그러한 행동이 스피커의 불량에서 비롯된 것이든, 어린 학생들의 단순한 의사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든 간에 도대체 이러한 행동이 28명은 제적되고 80여명은 권고휴학으로 강제 징집될 만한 이유가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무대측도 그 당시 학교측의 중재로 이 사소한 충돌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고 학생들도 아무런 사고 없이 훈련을 끝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떠도는 소문은 7명이 권고 휴학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실로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에 학생들은 소문의 진상을 학교측에 요구하고 서명작업을 했으며 아무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던 군당국과 학교측에 종래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바랐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학교측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학사일정을 단축, 겨울방학에 들어갔다. 자신들의 행동에 어떠한 계획된 의도나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던 학생들이었기에 학생들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생각없이 각자의 계획에 따라 방학에 들어갔다.

그런데 12월 중순경 엄청난 소문이 온 학교에 퍼져 나갔다.

즉 100여명이 넘는 많은 학생들이 문무대에서 벌어진 사소한 충돌로 인해 제적과 휴학을 당한채 강제 징집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헛소문이기만을 바랐던 것과 달리 이러한 소문은 급기야 사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무런 소식도 모른 채 고향으로 내려가 공부하던 학생들은 갑자기 날아온 신체검사 통지서에 따라 신검을 받는지 며칠도 되지 않아

하나 둘 강제 징집 되었다.

방학때라 서로 떨어져 있던 학생들은 도대체 자신들이 왜 끌려가는 지도 모른채 아무런 대책도 해보지 못하고 일방적인 강제 징집으로 인해 정든 학원과 가족과 친구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충돌이 있는 후 학교측의 중재과정 중에서 그 당시 학생 처장으로 있었던 지동식 교수는 학생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하라고 하여 아직 나이여리고 흥분하기 쉬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시킨후 그 대화를 녹음하여 학생들이 강제 징집에 희생되는 증거물로 삼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교수가 그런일을 할수 있으며 학생들이 이 시대에서 가질 수 있는 불만들을 스승 앞에서 토로한 것이 어떻게 강제 징집의 증거물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이 사건은 109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속수 무책으로 강제입영되는 결과를 낳아 이후 학교 당국과 군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누적되어 82년 3월 24일 교내시위로 매듭 지워 질수밖에 없었다.

2) 83년 5월 축제건

83년의 석탑축제는 과거의 쌍쌍파티, 가수초청 공연등에서 나타나는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축제의 성격을 벗어나 학도호국단의 주체 아래 민족 문화의 창달과 대학인의 올바른 학문 자세를 모색한 건강하고 발전적인 축제였다. 축제가 끝난 후 고대의 모든 학우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대학의 축제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였다'는 나름대로의 만족감이었다. 그러나 학교당국과 성북경찰서는 축제과정에서 있었던 자연 발생적 시위를 빌미로 하여 서클회원과 학회회원을 불법 연행하여 수사를 시작하였다. 이는 축제가 끝난지 7일 후였다. 이미 7일이 지난후였다는 것과 수사과정에서의 잔혹한 고문은 저들의 진의가 축제건을 구실로 하여 소위'위협인물'을 학원에서 추방하려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었고, 더욱이 6일간의 물고문, 통닭구이, 매달기 등에서 나타난 저들의 수사방법은 인간을 개취급하는 정도를 벗어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잔혹한 것이었다.

3명의 구속, 10명의 강제징집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83년 석탑축제는 학원의 탄압을 위해서는 폭력과 투옥 그리고 강제징집의 세가지 수단이 상호보완적으로 자행될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었다.

강집자 명단

김희근(경제4) 신성환(법3) 호박회 회장
문택환(농학4) 김기홍(사회3) 현대철학회 회장
최창환(경제3) 신동익(통계3)
홍종학(철학3) 인문학 연회회장
김종각(경제3) 문학연구회 회장
유종승(영문3) 경제 철학회 회장
진현철(철학3) 기독교학생회 회장

4. 강제징집된 후의 군생활은 어떠한가?

강제징집된 학우들은 입대하자마자 바로 '특수 학적 변동자'로 특별 취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매월 정기적인 동향보고의 대상이 되고 빈번한 특수교육이라는 육체적 고통을 받는 등 일종의 사상범 취급을 군으로부터 받게 된다. 게다가 특별휴가를 통해 재학시절 진행했던 학우들의 용태 파악을 요구 받는 등 군인이 아니라 정보 수집요원으로 이용되기를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집된 우리의 학우들은 엄청난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 고통을 당하게 되어, 심한 경우 정신분열 상태에 이르거나, 자살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가공할 사실인가?

단지 학원에서 민주화를 열망하여 이를 외쳤다는 이유로 사찰기관에 의해 학업을 중지 당한채, 군으로 끌려간 것도 부당한데, 사상범으로 취급받으며 특수교육과 반성문 제출, 더욱이 고문까지 받아야 한다면 군이 감옥을 대신한 사상범 수용소란 말인가?

또한, 재학시의 친구를 통해 정보수집을 강요하는 특별 휴가조치는 인간이 지닐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마저 짓밟이는 파렴치한 작태이며, 군이 학원사찰에 깊숙히 개입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짐작 할수 없는 일인 것이다. 다시 한번 천명하거니와 강제징집된 우리의 학우들은 결코 사상범 대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특별 조치는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다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학원탄압의 도구로 활용되는 불행한 사태를 더 이상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다.

5. 누가 김두황을 죽였는가?

1983년 당시 경제학과 4학년 재학중이던 김두황군은 83년 3월 경찰에 의해 강제징집 당한지 석달도 채 못되어 사망통지서와 함께 한층의 재가되어 돌아왔다. 그는 영원히 복학할 수 없는 불귀의 객이 되고 만 것이다.

김두황군은 79년 마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고대 경제학과에 입학하여 1학년 때에는 경제학과 1학년 대표를 맡아 하는 등 학내 생활에 적극적이었으며, 83년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김두황군은 문제학생으로 지목, 경찰에 연행되어 일주일 간을 온갖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하면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고문 속에서 자원입대할 것을 종용 받았다. 결국 김두황군은 사회학과 4년 양창욱군과 함께 자원입대에 서명 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석방되어 집에 감금되었다가 이틀후 또 다시 성북서에 연행되어 그 다음날 곧장 군대로 끌려갔다.

김두황군은 석달도 채 못되어 죽어서 되돌아 왔다. 자살이라고 하지만 자살의 동기나 정확한 내막은 아직 확실히 납득되지 않은 상태이다. 재학 당시의 김두황군의 성실하고 든든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는 그의 자살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때 그렇게 군대에 끌려가지 않았다면 김두황군은 여전히 밝고 혈기 있는 모습으로 우리곁에 있으리라는 것이다. 성북서를 통해서 강제 징집당한 경위와 문제학생으로 징집된 군대에서 받을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악조건을 생각한다면 결국 위법적인 강제징집이 우리의 친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다. 결국 김두황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학교, 경찰, 군의 세기관이 동시에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의문의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을 여직껏 받지 못한채 오히려 강제징집의 위협은 더욱 가중화 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다.

6. 시행령의 개악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수많은 학우들이 감옥 아닌 군에서 군인 아닌 죄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다 숨져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새로운 강제 징집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1979년 '긴급조치 위반자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자원'이란 명목하에서 이미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자와 달리 군으로 끌고간 사실이 있다. 이때에도 우리의 선배들은 그 부당성을 주장하다 다시 수감되기도 하면서 싸우는 과정에 10.26이 발발했고 그 후 병무청장이 정식으로 6개월 이상 실형을 복역한 사람은 징집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신문지상에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국민화합의 미명아래 석방된 학우들이 신검과정에서 당연히 소집면제 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정유보로 처리되고 있다. 병무청 실무자는 판정유보로 처리된 사람들은 시행령이 개정된 뒤에 징집된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일부 제적 학우들은 놀랍게도 징집영장을 이미 발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정부가 석방자들을 몸서리 치는 제3의 감옥인 군대로 몰아 넣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이며 우리는 정부의 '화합조치'에 깊은 회의와 우려를 품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신성한 국방의무를 학원탄압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 당국자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우겠다는 우리의 입장을 밝혀둔다.

결론

앞에서 보았듯이 강제징집된 수 많은 학우들이 한창 꽃을 피워야 할 나이에 특수교육과 고문 그리고 '관계 프락치 공작'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처절한 아픔이며 이 땅의 각박한 논리가 만들어 낸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동료의 죽음 앞에 단지 눈물짓고 있을 수도 없고 냉엄한 현실앞에 주저하고 있을 수도 없다. 학원은 정상화되어야 하고 정상화된 학원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우리 고대 제적 학우들은 지도 휴학과 강제징집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1983년 12월 21일 권이혁 문교부 장관의 학원 정상화 시책 발표에 따라 학원의 자율화가 이루어지고 사복 경찰이 학원에서 철수하여 경찰 본연의 임무로 되돌아 갔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학우들을 군대에 끌고 가 인간 외적인

한계상황에 시달리게 하고, 8명의 학우들을 급기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은 강제징집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 자율화는 허울좋은 명분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다시 수 많은 학우들이 부모의 얼굴 한번 못보고 군대에 끌려가듯 끌려가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하는 처절한 비극이 이번 학기에도 벌어질 것이 자명할진대 어찌 학원이 자율화되었다고 할수 있는가? 민주화된 학원과 사회를 갈망하다 수감되어 차디찬 감옥에서 고통받던 우리의 학우들을 또다시 군대에 끌고 가 정치 보복적인 이중처벌을 하려는 것이 정부의 음흉한 흉계 일진대 어찌 '국민화합'이 있고 '사회정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또다시 폭력과 탄압의 수렁 속에서 학원이 공전되지 않으려면 또 다시 우리의 학우들이 학원을 지키려고 싸우다 피 뿌리지 않으려면 지도 휴학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강제징집도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 학적 변동자'에 대한 군의 탄압도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시행령을 개악하려는 어리석은 작태도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정부가 이러한 비민주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의 민주적 해결을 위해 끝까지 힘을 합쳐 싸울 것을 엄숙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정부는 김두환군의 사인을 명백하게 밝혀라.
- 강제징집된 학우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 학교당국은 지도휴학제를 즉각 폐지하라.
- 시행령 개악을 즉각 중지하라.
- 정부는 강제징집을 즉각 중지하라.

강제징집 녹화사업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례

■ 정성희 (20세)

1962년 1월	출생
1981년	연세대 영독불계열 입학
1981년 11월 25일	시위관련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
1981년 11월 28일	강제 징집됨
1982년 1월 4일	자대 배치, 이후 학원소요 관련자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음
1982년 7월 23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강제징집 사망자 1호 >

1. 사건일지

- 사망장소 : 강원도 철원군 소재 제○○사단의 소속대 26번 철책초소.
- 사고일지 : 서기 1982년 7월 23일 0시 10분경.
- 사고내용 : 철책 초소 보조경계근무중 총기자살로 통보.
- 사고소식 입수시각 : 1982년 7월 23일 오전 6시경 (연천읍 소재 모식당에서 모 군인이 전화로 통보)
- 사망통지서 입수 일자 : 1982년 8월 초순경.
- 사고종교 접수후 현지도착상황 : 1982년 7월 23일 오후 5시경 연천 모식당에 도착하여 사망 통보한 군인을 접견한 후 병참모부에 다시 가보니 "근조 고 정성희"의 현수막과 빈수를 목격하였음.

2. 군당국의 설명 : 사고 현장은 최전방 민간인 통제구역인 이유로 현지 답사는 불가능하므로 간단한 도면 설명으로 "자살"임을 믿어 달라고 간청하고 군인의 사체는 군부속품으로 병참모부에 안치되었다고 하였음. 군은 부모로부터 부검포기

서와 화장동의서, 사망사인에 이의없고 이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등을 수사관이 받고 사체처리함.

사고총기의 개머리관 하단을 초소지면에 대고 상체와 팔, 다리는 약간 굽힌 채로 총구를 목 부분에 밀착시킨 후 자물쇠를 자동으로 위치하고 격발하므로써 연발로 4발이 발사되어 자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사입구-목부분 가로 5센티, 사출구-정두부 및 후두부 2개소)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임.

3. 사고경위 청취내용 : 군당국의 주장으로는 철책 초소 근무중 7월 23일 0시 10분경 총기자살로 확인되었다고 하였음. 유서는 없고 몇줄의 낙서 쪽지뿐임(또 백양로를 걸어보고 싶다. 죽음앞에서 내가 이렇게 담담하다니. 윤희(동생)야 네가 배운 지식을 가난하고 병들고 놀란자들을 위하여 활용 해라)

4. 사고 당시 목격자의 증언청취 내용 : 사망당시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제 2학년 학생인 임동구군이 전방훈련으로 나와서 죽은 정성희군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죽은 정군이 임동구군을 보고 말하기를 "형씨는 참 좋겠네요. 이제 전방교육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려는 학교도 다니고, 자유로이 활동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학교에서 데모를 하다가 강제로 군대에 끌려와서 전방군무를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낙인이 찍혀서 취직도 잘 안될테고 하니 참 희망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함께 초소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망 당시에 총소리가 나서 옆에 가보니 총으로 자살하여 죽었다고 말하였음.

5. 성장과정 : 은행에 재직 중인 아버지와 교편 생활하는 어머니 사이에 1남 2녀중 외아들로 태어나 주안지역에서 거주. 국민학교 때는 전교 어린이 회장에 뽑힐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고등학교 때 부터는 남달리 독서를 많이 하여 문학적 소양이 풍부하였고 비교적 과묵하고 조숙한 편이었다. 그의 일기에서 보면 고등학생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뛰어난 감수성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6. 학교생활 : 고 3시절 대학입시 준비에 바빴던 시간에도 틈틈히 많은 문학작품과 철학책들을 읽고 문학, 철학, 사랑, 장래의 이상, 종교, 신앙, 진리, 영화, 팝송, 고전음악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자기 나름의 생각과 인식을 정리하여 시와 단상

의 형식으로 남겨놓고 있다. 그리고 신문, 월간지 등을 읽으며 시국, 민주화, 언론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7. 정성희의 일기 중에서: 그 나라의 언론이 제 구실을 못하고 진실을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은폐할 때 그 나라 국민은 무지에서 비롯된 소극적이며 이기적이고 또한 근시안적인 무기력한 국민이되어 간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과거 우리나라의 언론이 그 책임을 완수치 못했기에 현 시국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1980년 5월 8일 일기)

대학생들의 데모, 계엄령 철폐요구, 정부의 학생들에 대한 자제촉구, 전국적인 데모파급, 계엄령확대, 26명 인사 연행.

8. 대학입학 후(연세대 영독 불문계열)한 서클에 가입하여 활동, 입학(3월) 후 8개월 학교생활후인 11월 25일 교내 시위 현장에서 20여명 동료가 연행되어 그중 15명이 강제징집당함. 교내시위에서 연행당한 다음날 학생처장 주장에 의하면 20여명 연행된 학생중 에이, 비, 씨로 등급 구분하여 에이급은 제적, 비급은 무기정학, 씨급은 유기정학으로 학사조치에 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함.

9. 입대하게 된 동기 : 일차 문무대 훈련당시 시위선동. 노래 선창으로 문교부 리스트에 기록됨.

10. 사망 후 부대의 조치 : 연천 병참모부로 도착하여 첫번째로 보인것이 "근조 고 정성희"라고 쓴 현수막과 빈수였다. 군 당국의 담당자는 사망당시를 도면으로 설명하고 총기 자살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목격자(당시 조선대생)를 면담시켜 주겠다고 한후 여러시간후 최전방에서 방금 도착되었다 하며 동행하였는데 목격한 임군은 총소리 이외에는 아는것이 없다고 함구 하였음.

그후 사체확인요 구하여 빈수에 있는 판을 보여줌. 검은색 판 뚜껑 위에 태극기를 접어 얹어 놓았고 뚜껑을 열어보니 작은 판에 키가 큰 사체의 고개를 꺼어 입관 하였는데 얼굴은 부었으나 깨끗하였고 코는 숨으로 막고 목 부분에는 검은색 천을 덮어 놓았으며 군인 작업복을 입히고 비닐로 싸서 비닐끈으로 묶여 있었다. 판 전면에는 확대한 고 정성희의 사진까지 세워 놓았다. 유가족의 자살 동의서 날인후 간단한 영결예배를 마치고 고양군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하고 인천으로 돌아왔다.(고 정일병의 외삼촌, 고모부 동행)

■ 이윤성 (19세)

1964년 1월 3일	출생
1981년	성균관대 역사철학계열 입학
1982년	인문과학 연구회 회장직을 맡음
1982년 11월 3일	가두시위에서 연행
11월 7일	강제징집됨
1983년 5월 3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제대 8일전에 목매달다니...

1. 사건경과

1982년 2학년때 인문과학연구부 회장직을 맡아 활동중 같은 해 11월 3일 가두시위에서 연행되어 11월 7일 강제징집. 그 후 군 수사당국에서 수사를 받음.

2. 의문점 및 참고사항

이윤성군은 예식장을 경영하시는 양친 슬하에서 5녀 1남 중 3대 독자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랐다. 국민학교 때는 학급에서 반장을 맡는 등 우수한 학생이었으며 고등학교 시절에는 명량한 성격을 지녔으나,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느껴 웅변반에 들었고 서울역 광장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모인 가운데 웅변연습을 할 정도로 활발하고 개방적이었으며 의지가 강하였다.

1981년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역사철학계열에 입학한 뒤에는 진리탐구에 남다른 열정을 품었고, 자신의 주변 뿐만 아니라 사회, 역사 전반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창생활에 임했다고 한다.

2학년 때 인문과학연구회라는 씨름의 회장직을 맡았고 평소 유복한 가정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이군은 82년 11월 3일 학생의 날 가두시위때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인문과학연구회 회장이라는 것이 밝혀져 11월 7일 새벽에 신체검사도 받지 않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가 고령(60세가 넘음)이신데다가 3대

독자이고 시력이 나빠 보통의 경우에는 현역입대가 불가능한 조건이었다.

83년 1월 10일경 친구들이 가족과 함께 면회갔을 때 이군은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여기서 찜밥을 제일 잘 먹고 있으니 걱정말라. 후배들에게 열심히 살아달라고 해라"고 하는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잘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제대 일자가 얼마남지 않았던 5월말경 이윤성군의 부모님은 군당국으로부터 이군이 자살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이군이 북한에서 날려보낸 뼈라의 일종인 안전보장증을 가지고 있었던 일로 죽음 직전까지 군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군수사기관에서는 조사가 끝난 후 자대로 돌아가 목을 매어 죽었다고 통보했다.

■ 김두환 (23세)

1960년 6월 23일	서울 출생
1980년	고려대학교 정경계열 입학
1982년 3월말까지	학회 활동을 주도
1983년	경제학회 학회장
1983년 3월 8일	성북서에 연행
3월 18일	강제 징집됨
1983년 6월 18일	보안사의 녹화사업 도중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으로 의문의 죽음을 당함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

1. 사건경과

김두환 군은 유복한 집안의 3남 3녀중 3남으로 태어나 1980년 고대 정경계열에 입학하여, 항상 명량하고 매사에 성실하여 주위의 사랑을 받았다. 학내활동은 자신감을 가지고 처리 하였으며, 뛰어난 유머와 기지로써, 또한 세심한 배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우 관계도 좋았다. 특히 3학년 때 경제학과 학회를 담당하면서 심포지움 및 강연회 등을 준비하고 학내활동의 활성화, 민주화를 위해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다.

3학년 말, 82년도 학내활동을 반성, 평가하고 83년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문과대, 정경대, 사범대, 경영대 등의 당시 뜻을 같이 하던 친구들과 모임을 갖고 83년도 축제 및 학도호국단 선거, 4.19행사 등에 관해 토론하고 그 방향성과 대안 등을 계획하던 중, 83년 3월 8일 성북경찰서에 연행되었다. "다른 학생의 일로 조사할 게 있으니, 곧 풀어 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7일동안 고초를 당하고 3월 15일 저녁에 석방되었다가, 16일 저녁 부모님과 함께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미시간 호텔에서 18일 아침까지 동료와 함께 3명의 형사들과 동숙하였다.(부모님들은 다른 방에 계셨다.) 18일 아침에 병무청 직원 1명이 와서 간단히 서류를 작성하고 강제징집되어 보충대에 입대했다.

성북 경찰서에서의 그의 모습은 텅텅했으며, 그곳에서조차도 유머를 잃지않고 같이 조사를 받던 동료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양창욱(사회학 80)군도 함께 강제징집을 당하여-자진휴학이라는 형식으로-당시 강원도에서 근무중이었다.

김군의 군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왜냐하면 1983년 3월 18일 입대하여 6월 18일 운명일까지 약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외출 한 번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가족들이 알고 있는 바는 훈련속에서 훈련성적이 우수 하였으며 사단장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소 그의 낙관적인 성격과 "어느 곳에 가든지 성실한 생활을 해야한다"는 그의 평소 신념의 소산이 아닌가 한다.

한편 같은 경우로 강제징집을 당한 모군의 경우를 보면 입대 후 군수사 기관에서 10여일간의 조사를 받고 학내활동의 조직상황 및 각 학생들의 성향에 대해 자백할 것을 강요 받았다고 한다. 또 "특별휴가"라는 명목으로 같이 학내활동을 했던 과나 씨름의 친구, 학회의 후배 등의 동정을 조사 보고 할 것을 강요 받았으며, 이러한 사실을 누설치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서울에 주둔하는 학교 담당 요원을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며, 위촉되고 고뇌에 가득찬 표정으로 말하기도 했다. 입대 후에 계속 반성문과 기타 시대관, 조국관 등 유사한 보고서를 써야만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군수사 요원을 만나는 것이 크나큰 심

리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강제징집을 당한 경우 거의 예외없이 강요되는 이런 사정을 볼 때 특히 김군의 경우, 고대 학생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감안 한다면 군수사기관의 김군에 대한 처우가 어떠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가족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김군의 운명일시는 6월 18일 오후 11시 30분이라고 한다. 6월 19일 새벽에 군에서 집으로 연락이 왔으며 사고현장에 가족(형남2분, 매형2분)이 도착한 것은 오후 3시라고 한다. 당시의 현장 정황에 대해서는 두부가 없어진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군에서는 "김군이 아침에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 입은 후 저녁에는 밥과 누룽지 빵 등을 먹고 동료 2명과 함께 경계근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지로 갔다. 근무중 동료에게 '소변보러 간다'고 한 후 나가서 잠시 있다가 총성과 함께 자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군수사대는 김두환군의 가족에게 사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화장동의서를 받아낸 뒤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

김군의 유품으로는 불펜과 사진 한 장(군에서 찍은 것), 시가 적힌 종이가 주머니에 있었다 한다.

그런데 김군이 운명하기 10-15일 전에 집에 보낸 편지에서 "시계를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가 평소 죽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지 않다. 또한 사고 1주일 쯤 전에 애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이는 그의 신념을 볼 때 '자살'이란 것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낙관적인 사고를 기본적으로 갖춘 그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가 자살이라는 현실 도피를 생각했다는 것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군에서 밝히고 있는 자살동기는 특수학적 변동자로 강제 입대하여 전방에서 비행근무시에 매일 6-7시간, 에이형근무시는 20:00-익일 05:30 경까지 근무를 하는데 대한 불만과 자신은 항상 감시를 받고 있으며 내성적 성격으로 노대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소외감 내지는 열등감으로 인한 복무증상으로 자살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군에서 유서라고 주장한 '끝'이라는 시와 필적감정시 사용된 유서 '끝'과 내용이 상이하고 군에서 제시한 평은 필적과 유서와의 필적이 서로 다르다.

■ 한영현 (21세)

1962년 3월 1일	인천 출생
1981년	한양대 공대 기계공학과 입학. 민속문화연구회에 가입. 대학연합 민속문화연구회와 야학활동을 함.
1983년 4월 2일	강제징집
1983년 6월 15일	휴가 중 녹화사업 폭로
1983년 7월 2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및 의문점

한영현군은 한양대학교 기계과에 재학했었던 학생으로 81년도에 4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그는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해 활동했던 사람이었다. 대학 1학년 때 민속문화연구부에 가입하고 선배와 함께 탈연합회에서 활동하였다. 82년 민속반이 학교의 방해로 등록을 하지 못하자 친구들과 소그룹을 형성하여 계속적으로 공부하였으며 82년 탈연합회의 선배 소개로 부천에서 야학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83년 1월 중순경에 부천의 야학에서 활동한 선배의 조사과정 중 한군의 이름이 나오자 성동경찰서는 그를 끌고 가 조사를 하면서 구타를 가했다. 조사후 4월 1일 수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나 녹막염이라는 국도의 쇠약한 몸으로 병종을 받아 군대를 갈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러나 4월 2일에 경찰서에 오라는 소식을 듣고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2-3주 후에 한군의 옷이 집으로 우송되자 가족들은 그때야 비로서 한군이 강제로 군에 끌려간 것을 알았다.

한군은 입대 후 훈련소에도 가지 않고 4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직접 군수사기관에서 그간의 활동에 대해 진술해야 했다. 당시 도망다니다가 5월 9일 시위를 하여 조사를 받던 한 동료의 말에 따르면, 조사중 한 수사관이 영현이가 동물을 토하면서 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한군의 육성이 녹음된 테이프를 돌려주고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5월에 자대를 배치받고 나서 형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보면 한군은 점점 건강이 회복되고 있으며 군생활에 인내력을

키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6월 초에 친구에게 몇 번이나 면회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다시 조사가 시작되어 심기에 불안함을 느꼈던 것으로 생각된다.

6월 18일에 포상휴가를 나왔는데 한군의 팔에 철사로 심하게 맞은 듯한 피멍이 선명했다고 한다. 휴가중 한군은 "정신력으로 모든 환경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되나 자신이 없다.", "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볼 것이며 81학번 뿐만 아니라 72학번까지도 여파가 미치는데 아마 커다란 배가 침몰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형에게 "기관 의 어느 사람을 만나면 의가사로 10월이면 제대가 가능하고 잘하면 10월 부터 다시 학교를 다닐수도 있는데 죄책감이 너무 크다"며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관원이 누구이며 만났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듯 한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집된 학생의 고초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귀대 후 7월 2일 부대로부터 전보로 자살통보가 와서 형님이 불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가보니 "6월 30일 밤에 분대 장으로부터 탄환을 흠쳐서 다음날 사역도중 오전 10시에 식사하고 화장실에 나갔으나 조금후 병커에서 총소리가 나서 가보니 이미 죽어 있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시체를 확인해 보니 두개골이 없는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일부 기관에서는 한 군이 가정 파탄을 비판하여 자살하였다고 하나, 아버님이 어머님을 살해한 것은 그가 죽기 3년전인 고 3때의 일이며 대학입학 후의 그의 건강한 생활태도와 행적을 볼때 그의 죽음의 직접적 계기가 될수 없다고 판단된다.

■ 최은순

1981년	경기도 졸업
1981년 3월	동국대 사범대학 수학교육학과 입학
1983년 3월 29일	시위예비비음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일주일 조사 후 강제징집
1983년 8월 14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1. 사건경위

학생운동에 헌신해 오던 중 83년 3월 29일 시위예비비음으로 5명의 학우와 함께 경찰에 연행되어 1주일간의 조사를 받은 후 강제징집 당했다.

83년 8월 14일 군에서 집으로 급위독이라는 전보를 보내와 가족들이 급히 부대로 가보니 동생은 벌써 이날 새벽 4시에 숨을 거둔 뒤였으며 시체는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다. 헌병대에서 나온 자가 자살이라고 통보하여 이에 가족은 자살할 리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강력히 항의, 영안실의 사체를 1주일간이나 지키며 재수사 및 진상규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군수사대는 재수사를 하여 그 결과 고참병과의 말다툼 끝에 피살되었다는 수정통보를 얻어내어 최씨는 자살이라는 오명은 벗고 대전 국군묘지에 안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은 그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다른 강집 의문사의 희생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씨 역시 보안대의 녹화사업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더군다나 최씨와 같이 운동에 헌신하고 군대를 혐오하던 사람이 장기하사관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더욱 그의 죽음은 결코 자살일 수도 고참병 누구의 총에 맞아 죽지도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2. 의문사항

1) 최초에는 자살로 발표하였다가 가족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히자 재수사하여 타살이라고 번복한 점(가족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다른 의문사 희생자들의 경우와 같이 자살로 끝났을 것이다. 최은순씨의 '사인변복' 사실은 자살로 발표된 나머지 사망자들의 사인에 대해서도 의문은 더해 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2) 가해자의 타살동기가 사소한 언쟁 끝에 오발에 의한 사고였는데 일반적으로 고참과 졸병 사이의 갈등으로 야기된 사고사는 고참이 졸병을 괴롭히는 과정에서 발생함으로써 졸병이 고참을 살해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없다는 것, 따라서 그의 죽음에 녹화사업을 담당하는 보안대가 개입되었는지의 여부가 계속 의문으로 남는다.

■ 한희철 (22세)

1961년 2월 1일	경남 마산에서 출생
1979년 2월	철도고등학교 졸업
3월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입학
1982년 12월 1일	군에 입대
1983년 12월 11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한희철은 서울대 공대 기계설계학과 4학년 재학중에, 1982년 12월 1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본부 부관 참모부에서 근무하다가 1983년 10월 14일 1차 정기휴가를 15일간 받아 귀가하여 집안일과 친구 만나는 일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던 중 외국어 대학교 데모주동자였던 학생 김무현군을 만났다.

당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던 때인지라 수배중인 운동권학생들이 도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들을 도와주기로서는 합의하여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친구 전봉일에게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는 부탁의 편지를 자신이 쓰고, 김무현이 전달하기로 하고 헤어진 후, 한희철은 휴가일이 다 끝나 귀대하였다.

김무현은 편지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갔으나 전봉일을 만나지 못했고 재방문을 마음먹고 있던 중에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그때 편지가 발각되어 한희철도 동년 12월 6일 부대 근무중 보안사령부로 연행되었다.

한희철은 군부대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를 받으며 입대 전 학생시절의 민주화운동과 야학연합회 사건 관련 혐의로 전기고문을 당하면서 5일 동안 취조를 받고난 후 12월 10일에 석방되어 심신이 피곤한 상태로 부대에 복귀하였다. 부대로 복귀한 그날 동료인 이모군에게 고문당했을 때 생긴 대퇴부위의 상처를 보이며 "전기고문을 두 번이나 당했다"라고 말한 후, "나는 이제 사방에서 감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다음날(12월 11일) 새벽 4시 30분경 한희철은 부대내 문서 보관창구앞 보조서는 자리에서 가슴에 3발의 총탄을 맞고 죽어있는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통보를 받고 달려간 부친이 그날 오후 5시경 부대에 도착했을 때 시체는 이미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고 고급장교 45명이 부친을 맞이하여 사망경위 등을 설명하였는데 그들에 의하면 5사단사령부 문서보관

공식적으로~녹화사업은 중단되었으나 보안사의 공작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김용권 (23세)

1964년 6월 10일	출생
1983년	서울대학교 경영과 입학
1985년	카투사 지원 입대
1987년 2월 20일	내무반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함

1. 사건개요

1983년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김용권 동지는 1985년 10월 카투사병으로 지원입대하여 의정부 소재 캠프 인디안에서 복무하였다. 그러던 중 1987년 2월 20일 오전 10시 50분경 자신의 막사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김용권 동지의 목은 탁자위의 전기스탠드 끝으로 이층침대 난간에 매달려 있었으며 얼굴은 침대 쪽을 향해 있었고, 하체는 꿇어앉은 모양이었다.

한편 영등포에 살고 있던 김용권 동지의 어머니인 박명선 씨는 그날 오전 10시경 부대로부터 김용권이 없어졌으니 급히 부대로 와보라는 연락을 받고 급히 부대로 왔다. 박명선 어머니가 부대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경이었으며 이때 아들 김용권의 시체가 막사에서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시체에 대한 검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으며 시체는 이

미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마침 스낵바에 있던 인사계(?)가 현장의 모습을 설명해주었으며 그에 따르면 김용권은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가족들이 김용권 동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시체로 발견되기 이틀전인 2월 28일이었다. 이 날 김용권동지는 자대를 오전 7시 25분 출발하여 용산소재 미8군 121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복용약을 받은 후 영등포의 자택에 들렀다가 오후 7시경 전철을 타고 귀대하였다. 가족의 입장에서 김용권 동지는 8월 18일에도 자살할 만한 별다른 징후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남1녀의 장남으로서 집안에서 김용권 동지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만큼 김용권 동지의 자살소식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더구나 김용권동지가 고문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들은 바 있고 또 시체가 발견된 날에도 몇가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아 타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생각조차 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김용권동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문 및 의문의 사망에 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문폭력대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위원회는 진정서를 접수한 후 김용권동지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문점이 무엇인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고박종철군 범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고김용권군 의문사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차원의 대응을 모색하였다. 이들 민간단체와 교회 등은

창고 앞에서 보초를 서던 중 자살하였다고 하면서 함께 보초 서던 사병이 발견했다는 유서를 건네주었다. 부친이 그것을 받아 본 즉 편지가 3매에다 쓴 장문의 유서였는데 그를 요약하면 작별인사와 민주화 촉구, 경제정의의 실현 촉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글이었고 죽음의 원인이 될만한 비판이나 고민 같은 것은 조금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부친이 장교들에게 “혹시 회철이가 보안대에 붙여갔다는 일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들 중의 본부대장은 일주일 전에 보안대 요원이 신상기록카드를 보고 간일이 있는데 회철이가 왜 보고 갔는지 이유를 물어봐 달라고 하여 그러겠노라고 한적은 있었다고 말할 뿐이었다. 부친이 영안실로 가서 시체를 확인한 바, 가슴에 3발의 총탄 자국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고, 손은 굵은 밧줄로 엮을 해 놓았는데 보기가 흉할 정도로 손등이 검은색을 띄고 있었고 약간 부어 있었다. 비통함에 잠긴 부친은 더 이상의 세밀한 조사를 못하고 그날밤 몇십명의 장병들과 나팔수, 소총수가 동원된 장례식에 참석하고 난 후, 태극기로 덮인 관을 군용 앰블런스로 벽제 화장터에 옮겼다. 그리고 장교들은 다음날(12월 12일) 오전 11시까지 가족이 화장터에 와서 시체를 인수, 처리토록 하라고 하였다. 부친은 다음날 군중 신부님을 오시도록 해달라고 하였고, 그들은 쾌히 승락하였으므로 시체를 화장터에 둔채 집으로 귀가하였다. 다음날(12월 12일) 아침, 부친은 친척과 함께 화장터에 도착한 후, 11시가 넘도록 신부님 오기를 기다리다 부대 담당자들의 독촉과 성화에 쫓겨 다급하게 화장을 하고 말았다. 그때 장교들은 의도적으로 부친의 부탁을 군중 신부에게 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후 3회에 걸쳐 부대를 찾아간 부친은 진상규명을 해보려고 애썼으나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아 별 진전없이 의문에 싸인 채 지낼 뿐이었다. 그러다가 서울의 각 대학생들의 주최로 열린 홍제동 성당에서의 “한회철 100일 추모제”때 배부된 “강제 징집 진상보고서”를 보고서야 의문의 실마리를 잡게 된 부친은 보안사령부를 찾아갔다. 그곳에서 부친은 한회철이 보안대에서 5일동안 조사받은 사실과 기록을 확인하였으나 고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끝내 부인하였으므로 할 수 없이 두가지 사항의 시정을 촉구하였다. 그 하나는 일단 머리를 깎고 군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전 학생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문제삼지 말고(녹화사업 등), 또 하나는 학생들의 강제징집을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자살이라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도 의문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다른 사람에 있어 의문사인 경우 유서를 조작한 사례가 있었고, 둘째 부대 고급장교들이 사망자가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유족에게 허위 대답을 했다는 점, 셋째 그들이 한회철이 학생활동에 있어서 지도자급임을 알고 한달내에 제대한다면 녹화사업에 지장이 될 것임을 예상하고 제거할 필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넷째 부친이 세번이나 부대에 가서 진상을 물었을 때 한결같이 답변하기를 꺼렸다는 점, 다섯째 보안사에서 취조와 고문한 사실이 석방된 한회철을 통해 알려지게 될 것에 대해 미연방지책을 쓸 수도 있다는 점, 여섯째 3발의 총탄자국이 삼각형을 이룬 것은 단발로 쏘았을 때 가능하며 연발로 쏘았을 때는 위로 직선을 이룬다고 여러 경험자들이 말한 점 등이다. 이와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타살되었을 가망성이 높으므로 이를 가려낼 수 있는 사법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만일 자살이라 하더라도 죽음으로 물고 갈만한 극한 상황을 만들게 한 보안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한회철이 사망 직전 동료에게 건네준 YMCA에 보내는 편지에 의하면 취조를 받을 때 고문당한 것은 물론 협박과 앞으로 전개될 일의 확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로 몸과 정신이 견디어 낼 수 없어 조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새에 자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사는 [한회철은 군부대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 종료 후 가정비관 (모친의 가출, 동생의 정신질환)으로 자살하였다.] (국정감사 때 제출한 정부측 자료)고 하여 비관자살이라고 결말지었다.

이는 참으로 엉뚱한 이유를 들어 발뺌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조사를 하고 조사보고서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2월 28일에는 고문폭력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상근, 3월 3일에는 목사 김동완 등이 연행되고 즉시에 넘겨져 구류를 살기도 했다. 이러한 민간차원의 적극대응과 아울러 박명순은 3월 3일 미8군 사령관에게도 진정서를 넣어 의문점을 통보하고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2. 제기된 의문점들

김용권동지의 시신이 발견된 2월 20일 이래 가족들이 가졌던 의문점들은 2월 24일의 진정서, 각종 민간단체의 조사보고서, 성명서, 미8군 사령관에게 보낸 진정서 등의 문서에 나타나 있다. 이들 문서를 토대로 당시 가족들이 가졌던 의문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살을 기도할 동기가 없으며 유서도 없다.

가장 먼저 문제로 된 것은 김용권동지의 자살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용권동지는 2월 18일 마지막으로 집에 들렀을 때도 전혀 특이한 언동을 하지 않았다. 군대에서도 연대장으로부터 상장을 받는 등 모범적으로 군복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김용권동지는 평소에도 즐거움을 써왔는데 유서도 한장 없이 자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2) 2월 18일 이후 행적에서 이상한 점이 많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김용권동지가 2월 18일부터 시체로 발견될 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였다. 집에서 2월 18일 오후 7시경 귀대했는데 이들 뒤 시체가 발견될 때까지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 이상했다. 김용권동지는 2월 19일 오전 7시 30분의 아침조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리고 19일 식사에 준하여 약을 복용한 흔적은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또 한국 헌병대와 미 CIA합동조사에서 사망추정시간을 발견전 8시간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역산하면 사망시간은 새벽 2시이므로 김용권동지의 방에는 불이 새벽에 켜져있어야 하는데 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김용권동지는 어디에 있었는가?

시체가 발견될 당일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경 어머니가 김용권동지가 안보인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을 때는 출입기록부에 김용권의 부대복귀사인이 없다고 하였으며 막사도 살살이 뒤져 봤지만 김용권이 없으니 부대로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막상 부대에 도착해보니 아들 김용권동지는 자신의 막사에서 발견되었다고 하고 출입기록부에는 귀대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후에 귀대시간을 적은 난을 보니 시간을 적은 방식이 나날 때 이용한 시간 기재 방식과 다르게 적혀 있고(나날 때는 미군의 시간표기방식대로 0725로 표기되어 있는데 들어올 때는 20:08로 기재되어 있음) 필체도 동일필체인지가 의심이 들었으며 귀대시간도 21시에서 20시로 고쳐져 있어 조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

너무나 이상한 나머지 어머니가 부대에 찾아가 인사계의 명살을 잡고 “바른 말을 대라”고 하자 인사계는 “윗사람 명령없는 바른 말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기도 했다.

3) 시체발견현장의 모습

우선 김용권동지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침대의 높이에 대한 진술이 들쭉날쭉하였다. 처음에는 1.2미터라고 하다가 후에는 1.5미터라고 하더니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니 2.6미터라고 되어 있었다.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가? 또 왜 이런 혼선이 생겼는가?

목을 매달았다는 전선졸의 매듭은 교수형매 쓰는 것처럼 사람이 매달리면 조여지게 되었는데 것이 아니고 더이상 조여질 수 없는 형태인데 이런 매듭에서도 목을 매어 죽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었다. 더구나 끈을 매단 2층 침대의 난간이 낮아 무릎이 지면에 닿아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곳에서 목을 매어 죽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그리고 먼저 목을 디밀고 자신의 목과 침대를 묶어 목을 매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더욱이 그와 같은 자세에서는 목의 뒷부분에 끈 자국이 남을 수 있는데 끊어진 부분없이 선명하게 한줄로 나 있었다.

4) 고문과의 관련성 여부

죽음의 동기와 현장의 정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가족으로서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것은 국군보안대가 죽음에 연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군입대전에 학생운동을 한 김용권동지는 군대에 와서도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김용권동지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르면 김용권동지는 1986년 8월 3일 포천군소재 8사단 보안부대 행정계장 추봉엽 상사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보안부대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추상사로부터 서울대로 돌아가 프락치노릇을 하면 충분한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한다. 이를 거절하고 나오려고 할 때 김용권동지는 다른 방으로 끌려 들어가 83학번 민면투 관련자 소재수사를 받으며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부대에 있던 홍태룡씨의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홍태룡씨에 의하면 김용권동지가 8월 3일 포천에 친구한테 간다며 나갔는데 며칠 뒤 동료 임창택 병장한테 보안대에 끌려가 7시간 동안 발가벗긴 채 맞았다고 얘기한 것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학교 1년 선배이면서 대학동창인 허병화씨에게도 김용권동지가 “의정부 보안대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처지이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후에 김용권동지가 보안대에 다녀갔다는 사실은 1986년 8월 3일자 출입통계기록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김용권동지는 이후에도 추봉엽 상사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으며 복수하겠다는 등의 언동을 하였고, 고문 때문에 허리와 고막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최근까지 그러한 프락치권유나 고문이 계속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김용권동지는 보안대에서 고문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김용권동지의 부모입장에서는 김용권동지가 자살했다는 것도 잘 납득되지 않지만, 만의 하나 자살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문에 대한 공포가 주요한 동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설사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추봉엽과 보안대의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김용권동지의 가족들은 명확한 사인조사와 아울러 고문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3. 김용권군이 군생활 중 남긴 글

1986년 2월 17일(월)

봄을 느끼게 하는 날씨가 몇일 연속했다. 쉽게 풀어나가려고 생각하니 하루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 어차피 군대에

와서 대단한 것을 할거라곤 생각지 않았다. 육군보다 조금 좋은 환경이니 뭘 좀 해보려는 것 뿐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상황에서 마땅히 갈 곳도 없었다. 도피처로 택한 군대이지만 패배의식만으론 오지 않았다. 권토중래 기간으로 삼았다. 이제껏 강하게 살아오지 않았던가 ‘천년 애련에 물들지 않는 바위’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강한 나, 그렇다고 굳어 있는 속박하는 내가 아닌 자유로운 내가 되어야 한다. 한동안 이생각 저생각으로 괴로웠다. 이제 앞을 보고 뻗어 가야겠다. 마음속엔 언제나 태양을 담고 휴화산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차분히 실력을 쌓는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피어오를 그날을 위해 그날은 그간 가꾸어 온 모든 것들을 활짝 펼쳐 내보일 것이다. 아름답게 마틴루터킹 목사님에 대한이야기가 TV에 나왔다. 비록 말을 못 알아들었지만 뜨거운 진실이 마음에 와닿음을 느낄 수 있다.

<나의 대학생활>

1983년 봄 나는 입학을 했다. 꿈에 그리던 대학으로 나는 부푼 꿈을 안고 향했던 것이다. 앞으로 4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밝게만 생각되었다. 당시에도 물론 입학금관계로 위축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적어도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3월 초 찬수형으로부터 써클 입회권유를 받았다. 나는 완강히 부인한다. 써클-태모-체적으로 이어지는 사고로 나는 몹시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말쯤에서 무료한 시간들을 채워보고자 또 사람이 그리워 ‘세문’을 찾았다. 역시 사회과학도서회였지만 그런 것을 공부해보고 싶기도 해 큰 부담은 없이 다녔다. 그 이후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문제로 나는 몹시 고민했다. 교정에서 잡혀가는 사람들을 보며 나와 저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행동을 강요당하는 압박감 같은 것을 느끼며 나는 그곳을 벗어나려고도 해보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관념은 현실적인 타격과 피해에서 무력해짐을 많이 느꼈다. 5월에 들며 나는 처음으로 시위를 나갔다. 긴장 속에서 보내진 몇 시간후에 이것저것을 겪고 떨림속에 유인물을 읽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여러번 시위와 집회에 참가했다. 때로는 허상에 젖어 의미부여를 하지 못하기도 했다. 여름으로 접어들며 농촌활동을 갔다. 학사경고를 두려워하며 보냈지만 이시기를 통해 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좀더 철저한 규명이 필요해진 것이다. 문제의식과 더불어 대책방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개혁과 혁명의 논쟁이 친구들 사이에 퍼졌다. 혁명을 이야기하며 우리는 피와 혼란을 두려워

했다.

■ 최우혁 (21세)

1966년 3월 4일	서울 출생
1984년 3월	서울대학교 입학
	학생운동에 헌신 중
	수차례의 구류를 삶
1986년 5월 20일	학내시위 도중 최루탄을 맞아
	전치 10주의 부상
1987년 4월 23일	군입대
1987년 9월 8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화염에 싸인채 장승처럼 >

1. 사건경위(군당국의 발표)

군당국은 1987년 9월 8일 0시 50분경 육군 20사단 예하 60여단 최우혁 이병(서울대 서양사 84학번, 87년 4월 8일 입대, 상황실 근무)이 부대내의 쓰레기 소각장에서 분신하여 국군 덕정병원으로 이송중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사망시각 : 0시 50분 - 1시 30분 추정). 현병대는 사망동기를 개인적 고민에 의한 자살이며 전신 화상과 점화 당시의 질식이 직접적 사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유서와 그에 준하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군의 최군의 사망을 전후한 행적에 대한 발표는 다음과 같다.

7일 21:00 일식 점호를 할때 최군이 자리에 없어 동료가 화장실에 간다면서 나갔다. 그는 불침번에게 "나는 야간 근무 허가가 났으니 누가 물어 왜 없냐고 하면 그리 대답하라"고 말했다 한다. 0:15경 최군이 자판기에서 울무차를 빼먹는 것을 운전병이 보았고 이 시각 이후부터 0:50까지는 목격자가 없다.

0:50경 소각장에서 평하고 불길에 치솟는 것을 위병 초소

근무자가 발견하고 달려가면서 보니 사람같아서 고함을 지르고, 남은 1인이 일직 사령에게 보고하고 같이 뛰어갔다 한다. 달려간 사령을 서서 불타고 있던 최군에게 "뭐하나? 굴러라" 하였더니, 최군이 두어차례 굴렀고 자기는 잠바는 벗어 감았다고 했다. 2-3분 내에 전화가 끝났는데 그때 최군이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일직사관은 최군을 담요로 감싸 병원으로 1:30경 옮겼으나, 의사는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최군의 죽음의 원인이 '분신이 아님'은 다음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군은 처음에는 최군이 개인적인 고민으로 자살했을 것이라고 유서도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군의 일방적인 장례식 이후 보안대 부관은 가족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렸다. 사망 일주일전 최군에게 2급 기밀문서 초안 30장중 15장을 정서하라고 지시했었다는 것이다(처음에는 복사를 지시했다고 하다가 최군의 형이 기밀문서를 마구 복사해도 되느냐고 묻자 황급히 정서하는 것이라고 바꾸었다). 그런데 최군이 실제로 그중 9장을 절삭처리해 버리고 질책이 두려워서 고민했었다라는 것이다. 최군의 형이 "왜 이제야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뭐냐?"고 묻자 보안대 부관은 장례식 당일인 그날에야 알았다고 답변했다. 기밀문서는 통상 1일 최소한 1회 이상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몰랐다는 것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살"이라는 발표의 신빙성 문제가 추궁되자 궁지에 몰린 당국은 갑작스레 최군을 무능함과 신약함에 비관한 줄장부로 만들려 했다.

또 한가지 그들이 황설수설하는 것은, 정보과 선임하사는 최군에 우혁군이 근무시간에 대공 서적(사회과학서적) 읽다가 보안대에 적발이 되어 선임하사 자신이 보안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했다. 보안대에 유가족이 이 사실을 추궁하자 그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그들 사이에 말이 맞지 않았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최군은 문책, 아니 더 심한 행위를 당했을 것이다.

최군의 유품중 대변이 손바닥만한 넓이로 군은 팬티가 발견되어서 가족들이 매우 놀랐다. 이것이 심한 구타나 고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의 증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혁군의 갑작스런 죽음에 접한 가족들은 미처 이 증거물을 챙기지 못하고 하루가 지난 후에야 그 속옷을 달라고 하였더니 이미 소각해 버렸다고 하였다.

육군 과학수사연구소 군의관 집도하에, 최군 가족이나 변호사의 참가없이 일방적인 부검이 시행되었다. 부검결과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최군의 왼쪽 손목에는 길이 1.5센티미터, 너비 1센티미터, 깊이 3밀리미터 정도의 음푹패인 상처가 있었다. 이를 따지자 군은 최군이 사망 수시간 전 자해를 기도했다고 하였으나, 21:00 점호 때 손검사를 했을 때도 야간 근무 직전에 옆 동료에게 왼쪽 손목시계를 풀어 주었을 때도 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었다. 군은 나중에야 22:00-24:00 상황실 근무중에 상처를 발견하고 치료를 했다고 했다. 흔히 손목 자해를 기도할 때에는 칼날로 동맥의 직각 방향으로 굳게 마련인데 실제 상처는 몽툰한 모양이며 무엇인가로 파낸듯하고 방향도 애매하다.

부검당시 최군의 내장은 깨끗이비어 있었다. 이는 최소한 하루 이상을 굶었다는 사실이며 여기에 대해서 군은 최군이 먹었는지, 굶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군은 공동 식사를 하는 곳인데 이 부분의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최군은 분명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 여러 끼를 굶었다.

2. 군의 발표가 허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의문

8일 0시경 근무가 끝나자 최군은 불침번에게 "누가 물으면 야간 근무 갔다고 그래라"며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고, 0:15쯤 운전병의 목격 이후 0:50 분신 시각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내무반에서 소각장까지는 거리가 꽤 멀고 여기까지 걸어가는 것이 목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일개 이동병이 화장실에 간다면 50분이나 들어오지 않았는데 내무반에서 아무런 보고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군 당국은 최군이 분신에 사용한 휘발유를 상황실에서 입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상황실은 항상 4명씩 24시간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군이 휘발유통을 그것도 1.3리터 용량과 큰 통을 아무도 모르게 들고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최군은 0시 이후 이 통을 들고 내무반, 상황실 사이에서 왼쪽 끝 소각장까지 먼 거리를 걸었을 텐데 목격자는 없다.

부검 집도의인 육군 군의관은 최군이 점화 순간 많은 연기를 마셔 질식사였다고 했다. 그런데 사망 현장에서 진화했던 일직 사령은 진화후 최군이 "살려주세요"란 말을 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질식사망은 허위이다. 그

리고 뚜렷하게 말까지 한 사람이 이송도중 사망을 한 것도 의문인데, 이송 과정 최군의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3. 여단장 및 군당국의 이상한 태도

우선은 통례상 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병의 사망사고(그것도 극단적인 자살)의 경우와 다르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었다. 그 일례로 화장이 아닌 매장을 쉽게 승낙한 점과 여단장이 사비를 털어(140만원) 장지를 마련한 점이다.

그 여단장은 육사 24기 현 대령으로 익년에는 확실히 장군으로 진급할 사람이며 빠른 진급을 하였다고 한다. 최군의 사건으로 진급에 지장이 있을까봐 부관들이 입모아 걱정을 했다.

가족들이 5일장을 치르겠다며 냉동실이 갖추어진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자 "최우혁은 이미 죽었는데 도대체 몇 명의 가슴에 비수를 꽂으려 하느냐?"면서 원색적인 흥분을 했다고 한다. 또한 장례식은 친우들과 친지들이 점심 먹으러간 사이에 머뭇거리느 부모님과 일부만 애틋한 마음에 실은 채 장지로 떠나 버렸다. 이러한 60여단장의 출세조건과 군 당국의 태도는 최군의 사인을 규명하는데에 원천적인 장애물이었다.

최우혁 군의 죽음은 군 당국의 발표대로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다가 분신 자살한 것이 아니다. 군 당국의 허둥지둥하는 모습가운데서 각 사람의 말이 서로 맞지 않았으며, 의혹의 사실이 점점 드러나자 날치기 장례식을 해버리고 가족들에게 협박을 하곤 했다. 대학시절 독재의 억압에 항거하는 스크림의 대열에 있었고 공장활동을 경험하며 진정한 민중해방운동을 준비했던 최우혁 군은 피맺힌 한을 품고 죽었지만 우리는 결코 조잡하고 형식적인 군의 발표에 승복할 수 없다. 이미 그들이 발표는 하나하나 그 허구성이 폭로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최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군의 비민주적 작태를 파헤쳐 단죄하는 것이다.

■ 우인수

1985년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입학
1987년 2월	휴학
1987년 9월	입대
1988년 6월 20일	경기도 파주 소재 1사단 야영지에서 의문의 사고
1988년 6월 24일	국군 수도 통합 병원에서 운명

귀대 직후 훈련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1. 사건 경위

우인수 동지는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으로 과학우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생회와 동아리의 열심히 하여 동아리 회장을 역임하였고, 87년 2월 휴학후 막노동 등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피부로 느꼈다.

87년 9월말 입대하여 육군 제1사단 포병연대 58대대 1포대의 서무계에서 근무하던 중 88년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의 외박을 나와 같은 동아리의 선, 후배들과 음주하다가 귀가 후 19일 08시경 주소지인 서대문구 홍은 1동을 출발, 귀대후 원인 불명의 사고로 의식을 잃고 사단 의무대, 벽제병원을 거쳐 19일 20:00경 동촌동 소재 국군수도통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가료중 6월 24일 오전 6시경 운명하였다.

2. 의문사항

군당국은 사인을 일사병이라 발표했으나, 20일 입원했음에도 21일에야 가족들에게 연락한 점, 사체를 확인한 부모에 의하면 우씨의 명치 주위에 멍이들어 있었다고 하며, 사체를 옮기던 동료에 의하면 우씨의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심한 구타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군대에서 운동권 학생에 대한 녹화사업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던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서 보안대에 의한 녹화사업 도중 변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었다. 그리고 이는 우씨가 귀대전 동아리의 선, 후배와 만나 상당시간을 함께 술마시며

대화를 가졌다는 사실이 이를 더욱 의심케 한다.

■ 남현진 (21세)

1970년 2월 22일	경북 예천 출생
1988년 2월	대구 대건고등학교 졸업
1988년 3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입학
1988년	2학기 총학생회 사회부차장
1989년	전대협 한라선봉대 용성총련 대표
1990년 11월 19일	군 입대
1991년 2월 3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1. 사건일지

90년 11월 19일	논산 제2훈련소 입소
91년 1월 14일	논산 제2훈련소 퇴소(08주특기 받음)
23일	연대 배치(주특기가 08에서 소총부대로 바뀜) 10일간의 행적 밝혀지지 않음.
24일	자대 배치
25일	전방입소 훈련 떠남, 내무반에서 친구에게 편지 이후 이창호하사와 대화 나눔
2월 2일	훈련을 마치고 새벽에 자대도착
3일	오전 10시경 교회를 다녀온 후 의무반에서 무릎상처를 치료받고 감기약 타감
	오전 11시 30분경 한 일병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3-5인분의 빵과 음료를 사들고 있는 현진이를 목격
	오후 2시 50분 부대밖에서 목을 맨 시체 발견

2. 의문점

- 08주특기(보안 및 정보요원) 받은 뒤 10일 후 소총수로 바뀜
- 남현진 열사의 키가 1미터 75센티인데 팔을 뻗으면 쉽

게 닿을 수 있는 2미터 소나무에 자의적으로 목을 매 죽을 수 있는가?

· 훈련소 퇴소는 1월 14일인데 자대배치를 받은 날은 1월 24일까지 10일간 남현진열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 사건현장은 부대 바깥이다. 그런데 내무반 생활 4일만에 신병이 어떻게 근처에 상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책 2개를 넘어 사건현장인 부대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

· 91년 1월 25일 내무반에서 이창호 하사(분대장)와 나눈 대화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그때 우리의 적은 누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갓 들어온 신병이 어떻게 “우리의 적은 미국이다”라고 대답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군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 속에서 남현진열사가 자대배치이전에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특히 열사의 군생활을 잘 알고 있는 훈련소 동기들의 증언은 이러한 의문점을 더하게 한다. 그들은 “군에서는 현진이가 전방입소 훈련을 사고없이 잘 수행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현진이는 무릎의 상처 때문에 60킬로미터 행군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중에 쓰러지게 되면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현진이처럼 08(보안 및 정보요원) 주특기를 받게 되면 엄격한 성분조사와 기무사요원과의 면담을 통해 적격(?) 여부가 결정됩니다”라는 동기들의 증언은 남현진 열사의 죽음에 기무사가 개입되었음을 확실하게 해준다. 다시말해 기무사가 남현진열사의 전력을 왜 조사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기무사가 철저한 사전조사와 면담이라는 형식을 통해 열사를 만났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기무사는 남현진열사가 논산훈련소에서 08주특기를 받은 후 그가 재학중 총학생회 간부였음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기무사가 그의 전력을 알았다면 조사과정에서 가해했을 많은 물리력과, 협박, 프락치 강요 등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다. 또한 훈련기간에 쓰러지게 된 원인인 무릎상처는 조사과정에서 행해졌을 물리력에 대한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군입대 후 논산에서 훈련 마치고 가족을 면회할 때 여유 있고 활달했던 현진이였는데 자기 키만한 소나무에 목을 매 달고 죽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애가 무슨 생각을 갖고 죽기 4시간 전에 감기약을 타먹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혼자 먹을 수 없는 빵과 두유를 갖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가는 신병이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상위 계급자와의 약속이나 명령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1월 24일 이후 남현진열사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한다. 굳은 얼굴에 마치 무슨 일이 있던 것 같다는 동료의 증언, “아무 말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유추 해석해야 한다”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문구와 함께 심리적 불안이 가득한 상태의 편지내용은 뭔가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자신을 엄습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인 것 같다.

1월 5일자 발송되지 않은 편지에는 유가족에게 자신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동기생들이 사건 직후 감금되어 나타나지 않은 일 등도 의혹을 더해주는 것이다.

■ 송종호 (24세)

1968년 9월 8일	경북 구미 출생.
1987년 3월	서울대 인문대 서어서문학과 입학.
1989년	학생회 활동.
1990년 7월 19일	군입대.
1991년 2월 20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포병부대에 배치된 그는 동계훈련 기간중인 91년 2월 20일 새벽 3시에 Box car(이동식 상황실) 안에서 벽면에 합판으로 목이 조인 웅크린 자세의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군당국은 주장한다. 국당국은 처음 자살로 발표하였다가 이후 안전사 추정으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갑상선 부위의 혈종은 질식사라기 보다는 일시적 타격에 의한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으며, 질식사일 경우 배변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 그런 점이 발견되지 않고 오른쪽 등에 난 상처와 등과 손, 눈가에 난 화상흔적과 몸 곳곳에 난 멍이 해명되지 않는다. 또한, 함께 박스카 안에 있던 몇명의 군무자가 밖에서 아크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고, 동료들과의 편지가 없어졌고, 수철 곳곳이 찢어진 점으로 미루어 학내활동과 관련된 타살로 추정된다.